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주 지 석 해 련 합장 031-855-5501,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오후 11시~ 오전 4시)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6월 11일 수요일 (주간) 제 425 호

천년고찰 파주 보광사 납골당 영각전
부처님 품안에서 왕생극락하소서
031)948-4440 한글도메인 · 납골당

북한산 노선 총리실서 결정

불교계 · 건설부 이견 못 좁혀 합의 실패

노선재검토위 '우회 우세' 속 활동 마감
회의결과 최종보고서 작성 총리실 보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의 노선 확정을 위한 노선재검토위원회(위원장 김안제, 이하 노선재검토위) 합의안 도출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은 국무총리실에서 내려지게 됐다. 그러나 노선재검토위에서 '북한산 관통노선 불가'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국무총리실도 건교부가 주장해 왔던 관통노선으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선재검토위는 5일 정부 세종로 청사 810호실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의정부 우회노선 △북한산국립공원 외곽우회노선 △북한산 관통노선 등 3개 노선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이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한 결과 의정부 우회노선 4명, 북한산국립공원 외곽우회노선 2명, 북한산 관통노선 5명으로 나타났다.

노선재검토위는 5일로 45일간의 공식적인 활동을 마치고 회의결과를 최종보고서에 담아 조만간 국무총리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합의안 도출은 4월 14일 불교계와 건설교통부가 노선재검토위 합의 당시 각각 5명씩의 위원을 추천받아 구성하면서부터 난항이 예상됐었다. 즉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으나 상반된 입장을 가진 양측에서 동수의 위원을 추천해 사실상 합의는 불가능했다. 여기에 위원장의 중립성 여부도 영향을 미쳤다.

불교환경연대는 5일 성명서에서 "5월 31일 위원회 내부 워크숍에서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 반대6, 찬성4로 결과가 나오자 건설교통부가 위원장을 표결에 참여토록 해 위원회의 파행을 부추겼다"고 비난했다.

조계종 공동대책위원회와 환경위원회는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지만 북한산 관통노선 반대가 6명, 찬성이 5명으로 나왔다"며 "정부가 앞으로 노선재검토위의 의견을 존중해 북한산국립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북한산국립공원 · 수락산 · 불암산 관통도로 반대 노원 · 도봉시민연대도 6일 성명서를 통해 "북한산 관통노선은 물론 수락산, 불암산을 관통하는 북한산 국립공원 외곽우회노선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6월의 불심 현충일을 맞아 서울 동작동 국립 현충원 지장사는 불자 보훈가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원 묘역에서 '호국영령 천도기원 금강경 독송법회'를 열고 순국선열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관련기사 7면 사진= 박재완 기자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02)737-0090 부산:(051)632-0064 대구:(053)768-8008 광주 전남:(062)375-9986 전북:(063)255-2274 대전:(042)489-9390 충북:(043)258-3282 강릉:(033)643-5599 동해 삼척:(033)521-6293 영주:(054)634-3429 경남 동부:(055)353-1196 제천:(043)644-4366 경남 서부:(055)547-3469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대학불교 현장에 뛰어든 스님들

총무원, 포교원, 교육원 등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국장급 스님 10여 명이 대학생 법회 지도법사를 맡기로 했다. 최근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대학생 불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총무원 총무국장 주경스님은 "최근 종무회의에 참석했다가 대학생 포교의 어려움을 전해 듣고는 우리가 나서서 지도법사를 맡아 보자는 제안이 있었고, 대부분의 국장스님들이 흔쾌히 응했다"고 전했다.

대학생법회를 맡기로 한 스님들은 현재 어느 대학의 지도법사를 맡을 것인지를 놓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일단은 서울 지역 대학교를 대상으로 활동을 벌이면서 대학생 포교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들 스님들은 부분적인 재정 지원은 물론 포교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서울 지역 대학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에는 이같은 제도를 전국 각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대학이 있는 해당 지역의 교구본사 또는 큰 사찰의 소임자 스님들이 각 대학의 지도법사를 맡아 대학생 불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중앙종무기관의 국장급 소임자들의 요즘 하루하루는 말 그대로 전쟁이다. 법장스님이 취임하면서 업무량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데다, 전문성까지 요구하고 있어 일 감당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스님들이 나서게 된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법회에 중앙종무기관 소임자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겠느냐는 기대 때문이다.

젊은 불자들과 부딪히다보면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거꾸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잇점도 있다. 그런 상보적 관계는 궁극적으로 불교의 '힘'이 될 것이다. 각 지역 교구본사나 큰 사찰의 소임자 스님들도 지금 당장 고려해볼 만한 일이다.

한명우(취재1부 차장)

대불련 40돌… 동문을 찾습니다

그리운 동문찾기 · 대학생포교 후원캠페인 전개

1963년 창립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는 지난 40년간 한국불교 최대의 인재산실로 수많은 승 · 재가 동량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본지는 대불련 창립 40주년을 맞아 대불련 총동문회(회장 성기태)와 함께 6월부터 연말까지 특별기획 '그리운 대불련 동문찾기 및 대학생포교 후원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번 공동캠페인은 지난 40여 년간 대불련 활동을 통해 불교를 접하고 사회에 진출해 전국 각 분야에서 중견으로 성장한 동문들을 하나로 모아 당시의 구도열정을 되살리고 교계 최대의 인재은행을 만들어 내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총동문회로 연락주세요

밤을 지새우며 구도열정을 불태우고 전국을 누비며 수행현장을 찾았던 대불련 활동 당시의 소중한 법우나 소중한 가르침을 받았던 지도법사님. 세월의 간극을 넘어 그리운 동문과 은사를 찾고 싶으신 분은 간단한 사연과 연락처를 담아 본지나 대불련 총동문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사연 중 채택된 원고는 본지에 소개될 예정이며, 본지와 총동문회가 갖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동원해 그리운 동문과 은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www.buddhanews.com
대불련 총동문회 www.daebul.or.kr

대불련 후원회원 됩시다

올해 40주년을 맞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청년불자의 열정과 구도심으로 불교를 보다 젊게 그리고 사회화하는데 한 몫을 하면서 한국불교계에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불교학생회 감소, 대학 졸업생의 취업난 등의 영향으로 인해 대학 불교학생회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꿋꿋하게 활동하는 불자학생들을 돕고, 포교기금을 마련하는데 불자 및 동문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후원이 절실합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이 한국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동량을 육성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 명단은 본지에 게재되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종찬)에 대학생 포교기금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참여방법: 일시 후원- 1구좌(1만원 이상)
정기 후원- 월1구좌 자동이체
▶문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02)732-0239, 739-0913

▶계좌번호: 국민은행 023-01-0565993
농 협 053-01-252868
조흥은행 390-01-071917
예금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불련 어제와 오늘 (기획연재)

1963년 창립 이후 40년간 한국불교의 발전과 함께 했던 대불련의 주요 역사, 전국 주요 대학별 불교학생회 소개 및 출신동문들의 활약상, 대불련과 함께 젊음을 바쳤던 동문과 재학생들의 생생한 사연, 그리운 동문 및 은사 찾기의 애절한 사연들이 기획시리즈로 본지를 통해 연재됩니다.

63년 창립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추억의 사진, 활동상황을 회고 하면서 그때의 동문들이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신행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을 조명합니다. 또 대불련 동문들의 현주소를 밝혀주고,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 안타까운 사연도 소개합니다. 사연은 대불련 동문회와 본사 사이트에서 공동으로 접수받습니다.

공동주최: 대불련 총동문회 ·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 현대불교신문사

간화선 중심 수행지침서 보급

상설행자교육원 · 중앙연수원 2006년 완공

31대 종책과제 발표

2006년에 간화선을 중심으로 한 조계종 수행 지침서가 발간 · 보급된다. 또 조계종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상설행자교육원과 중앙연수원이 2006년 하반기에 건립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취임 100일을 맞아 3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1대 총무원 종책 기조 및 31대 중점 종책 과제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 인터뷰 3면

31대 중점 종책 과제에는 간화선 중심의 수행종풍 진작, 상설행자교육원 및 중앙연수원 건립, 승려복지방안 수립 등 조계종의 당면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

이날 발표된 종책에 따르면 조계종은 2006년까지 각 수행법 및 간화선에 대한 지침서를 발간 · 보급한다. 또 상설행자교육원 · 중앙연수원 · 불교종합사회복지센터 설립 및 승려복지방안 수립은 올해 하반기까지 개별 추진위를 구성해 2005~2006년 사이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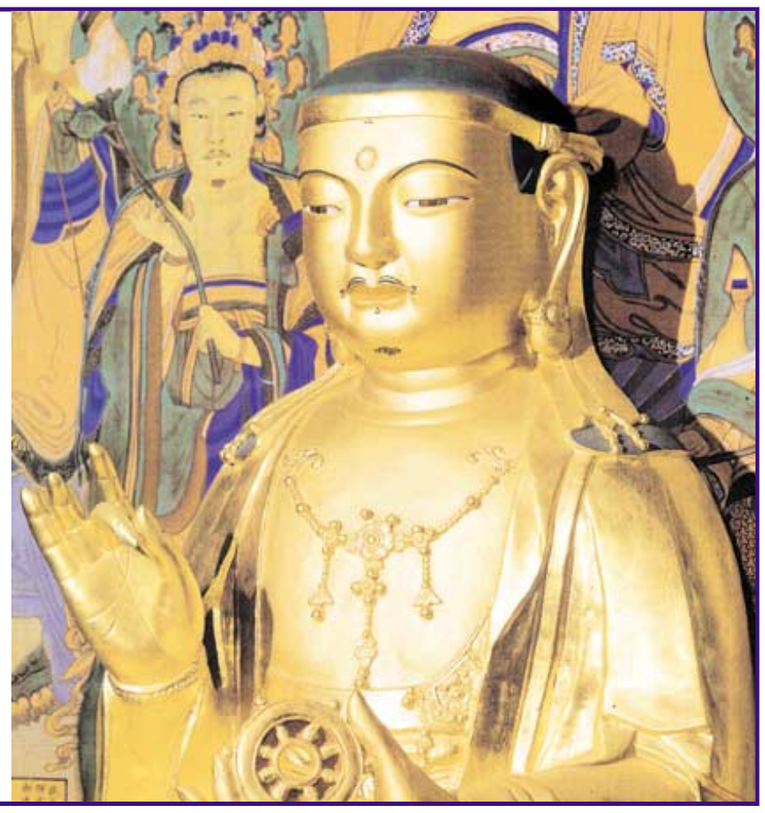
총무원장 법장큰스님 초청

도솔암 극락보전 낙성식 및 천일재 · 백중천도재 안내

귀의삼보하옵고
그동안 여러 불자님의 관심 속에 진행됐던 도솔암 극락보전 중건불사가 원만 진행되어 낙성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모연했던 아미타부처님의 개금불사도 회향하여 점안식을 하고 격에 맞게 다시 조성한 아미타불후불탱화의 점안식도 갖게 되었습니다.
천년을 지나 오늘에 와서 우리의 힘으로 다시 천년을 이어갈 터전을 마련한 소중한 자리입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기쁨과 영광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깊은 날을 맞아 도솔암에서는 사부대중 뿐만 아니라 선망부모, 무주 유주 고혼과 함께 회향하고자 1029일 동안 49재를 21번 지내는 천도재를 봉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제일의 지장기도도량 도솔암에서 총무원장 법장큰스님을 모시고 봉행하는 영가천도법회에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여 뜻하신 바의 소망이 성취되고 돌아가신 모든 영가의 극락왕생과 함께 성불의 인연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 극락전 낙성식 및 점안식 : 2003년 6월 21일(토) 오전 10시
■ 백중기도 입재일시 : 2003년 6월 21일(토) 10시
■ 백중기도 동 참 비 : 일금 오만원정(영가수에 상관없음)
■ 천도기도 입재일시 : 2003년 6월 21일(일) 10시
■ 천도기도 동 참 비 : 일금 오십만원【망축(시댁 · 친정, 생축)】
(기도비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 문 의 : 전화 063)561-0075, 564-2861 팩스 063)561-4080
■ 접수안내 : 천도재 법회에 동참하시는 분은 6 월 19일까지 망축 생축 축원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 계좌번호 : 농협 521030-51-002482 예금주 : 도솔암
■ 교통안내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조계사앞 출발
매주 일요일 오전 6시 30분 조계사앞 출발
■ 문의전화 : 이회장 017-221-8778 진연회 02)820-3242, 4689
부산 박길하 011-579-7226 / 대전 이현호 011-409-2702

제24교구본사 선 운 사 지장제일기도도량 도솔암 주지 지 정 합장



사 설

세계불교여성 학술대회의 의미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불교여성학술대회 조직위가 구성되어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더구나 "여성과 불교"라는 메인타이틀 아래 '한국불교계의 비구니'의 역할과 역사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 한다. 여성과 불교를 주제로 거행되는 메머드 국제학술대회는 초유의 일인지라 관심을 끈다.

부처님 재세 당시 엄연히 존재했던 비구니들이 남방불교권에서는 사라진 지 오래 되었다. 동북아권에서도 대만과 한국만이 비구니교단의 특성을 유지하며 수행과 사회운동 양면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비구니계의 종주국은 대만과 한국이라는 인식이 세계불교계에 각인되어 있다.

내년 세계불교여성학술대회에는 국내외의 세계적인 여성불교전문가들이 참가할 것이라 한다. 수행자와 학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지구촌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에 대해 불교적 관점에서 토론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동시에 한국불교가 비구니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임이 분명하다.

불교적 관점에서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는 것 역시 분별심이다.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성의 사회적 역할과 그에 수반하는 성의 사회적 차별은 많은 지성인들에게 관심과 고민을 안겨준 것 역시 사실이다. 관계자들은 내년의 행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조계종단 내지 불교종단협의회는 불교계의 만년대계를 위해 이 대회가 원만하게 성료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불련 동문찾기와 후원운동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동문 찾기와 후원 운동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창립 40주년을 맞아 대불련의 활성화와 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그리운 대불련 동문 찾기 및 대학생 포교 후원 캠페인'을 본사와 함께 벌이기로 했다.

대학생 포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각 대학 불교학생회에 가입자가 줄어들어 불교학생회 자체가 없어진 곳이 생겼는가 하면, 대학 불교학생회의 연합체인 대불련 회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바라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던 일이 바로 엊그제의 일이다. 그러나 이 단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탄식만 하기에는 아직 한국불교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한국불교계는 염불처럼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현대화, 세계화를 부르짖어 왔다. 근대문명이 도입된 이래 한결같은 화두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아직도 교육이나 인재불사는 승려를 양성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작금의 불교계 현실이다.

40여년 역사의 대불련을 그냥 방치해선 안 된다. 특히 조계종단은 한국불교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운운하며, 노력 없이 익은 과일만 챙기려는 안이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들의 활성화와 발전이 곧 한국불교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종단 예산에 대불련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위법망구의 거창한 구호 보다 진정 커피 몇 잔 아껴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후원 운동에 너나없이 동참하자. 그것이 작게나마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유승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군법사 수적 열세 · 파병땐 소외

군종장교 불균형 심각

개신교 58%에 불교는 25% 불과
군불교위, 진급·수급 균형 촉구

개신교 군종장교가 전체 480명 가운데 280명(58.3%)에 달하는 반면 불교 군종장교는 120명(25%)에 불과해 종교간 군종장교의 비율이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종활동을 지원하는 외부 성직자도 목사가 473명으로 스님 79명보다 6배나 많았다.

이같은 내용은 불교 군종장교를 파송하고 있는 조계종 군불교위원회(위원장 성광)가 최근 작성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고위직인 영관급 군종장교는 불교가 35명(22.3%)인 데 반해 개신교는 102명(65.0%)으로 전체 군종장교의 비율보다 큰 편차를 보였다. 특히 군종장교의 최고 계급인 대령은 개신교가 5명인데 비해 불교는 2명에 불과했다. 가톨릭의 4명 보다 작은 수치다.

군 전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육군의 경우도 불교 군종장교는 24.3%인 84명이 배치되어 있는 반면, 개신교 군종장교는 61%인 211명에 달했다. 특히 전체 영관급 군종장교 115명 가운데 개신교 군종장교가 78명(67.8%)으로 불교 군종장교 23명의 3배를 훨씬 넘어섰다.

이에 따라 군불교위원회는 국방부에 형평성을 고려해 군종장교의 진급과 수급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박봉영 기자

해외파병 군법사 제외

1965년 베트남전 이후 전무
국방부 편향 시정에 긍정적

1965년 베트남 전 파병 이후 군법사의 해외 파병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육군본부가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라크 전을 포함해 99년 동티모르 내전과 93년 소말리아 내전 등 유엔평화유지군 국군 파병 시 군법사 파견이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소말리아 파병 때에는 군목사 2명, 동티모르 파병 때에는 군신부 7명과 군목사 1명 등 군신부와 군목사만 파견됐다. 또 지난 4월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으로 파병된 국군 서희부대 역시 군목사 1명만 군종장교로 파견돼 종교편향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불교계 한 관계자는 "이 문제는 군 내 각종 종교정책에서 불교가 소외당했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불교계 내부에서부터 자기점검을 통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군내 종교편향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3일 국방부에서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원우) 소속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치운 국방부 차관보는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 예정된 이라크 2진 파병에서 군법사가 파견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남동우 기자

동국대 주요 보직자들의 종교분포는 불자 36명, 무교 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동국대 인사관리팀이 최근 작성한 학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등 주요보직자 38명의 종교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자 34명 무교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5월 20일 열린 수계식에서 대학원장, 야간대 교무처장 2명이 수계를 받아 무교는 영상정보통신대학원장과 문과대학장 2명이다.(관련기사 5면)

한편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들은 5일 "주요 보직자중에 건학이념에 상반되는 인사가 있다"며 "보직자들은 건학이념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동국대 주요보직자 38명중
불자 36명 무교2명

조계종 출가자 연령제한 공청회

25기 행자교육원 입교 앞둬 큰 관심

조계종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가 11일 오후 2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출가연령 제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40세 이하로 출가연령을 낮춘 이후 첫 적용되는 제25기 행자교육원의 입교지원서 서류접수(13~20일)를 앞두고 열리는 자리라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계종은 지난해 9월 승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승가 위계 확립을 위해 출가연령을 5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낮췄다. 하지만 이후 출가를 제한하는 것은 부처님 법에 맞지 않고, 뒤늦게 발심한 고령 출가자에게도 길을 터줘야 한다는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권형진 기자

6·15공동선언 3돌 기념 조계사서 남북 동시법회

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는 6·15 공동선언 3돌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동시법회가 14일 낮 12시 조계사에서 열린다.

이날 법회는 통일기원 타종을 시작으로 헌화, 남북불자들에게 보내는 통일메시지, 남북공동발원문 순으로 진행된다. 박봉영 기자

천성산 환경보존위·뉴욕사원련 불교시민단체 지원대상으로 선정

조계종 총무원은 5일 천성산 환경보존대책위와 조계종 뉴욕사원연합회 등을 2003년도 불교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 지원 대상단체로 선정,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원 대상단체 및 프로그램은 △천성산 환경보존대책위(환경백서 발간) △뉴욕사원연합회(UN본부내 종단의 NGO활동 연계 사업) △(재)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귀뚜르르 어린이 자연체험교실) △불교환경연대(교계 온라인 동호회 및 네티즌 인적네트워크 구축사업) △참여불교재가연대(사찰의 지역화 전략모델 개발 및 '매뉴얼 북' 제작) △불교인권위원회(불교인권생명윤리연구소 발족) △조계종 포교사단(탈북자 포교센터 구축 사업) 등 모두 7개 단체다. 지원 내용은 총무원 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명우 기자

'통합신도회 역할·방향' 조계종중신회 워크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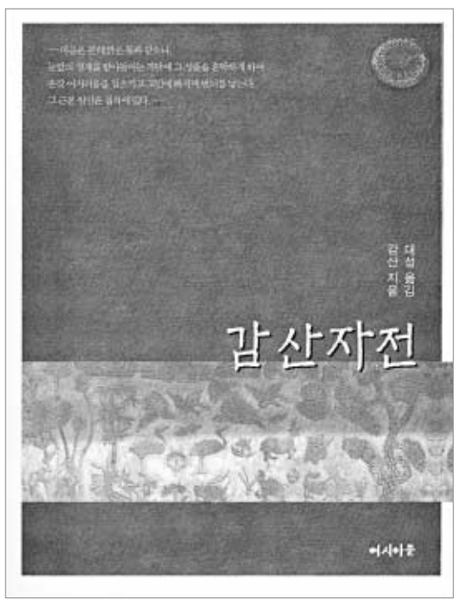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는 13~14일 서울 봉은사에서 통합신도회의 역할과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중앙신도회 이상근 총무부장과 조계종포교원 박용규 신도과장이 '신도회 통합의 의미와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제하고, '신도조직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대구지역신도회 박진수 사무국장, 김철현 6교구신도회 사무국장, 김석두 불교레크레이션협회 사무국장이 각각 발제한다. 참가자들의 종합·평가 토론도 진행된다. 박봉영 기자

'현대'만평 심민섭



감산대사 수행일대기 한국 초역



신국판 변형 248쪽 값 8,000원

마땅히 가야 할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옛어른의 공부 길...

하지만 가지 못하고 있는

– 이자전自傳의 원제는 『감산노인자서연보실록憨山老人自序年譜實錄』으로, 감산스님이 자신의 평생사平生事를 기술한 일종의 자서전이지만, 문학적 전기傳記라기보다는 년年 단위로 주요사건을 기록한 개인적인 행적의 기록에 가깝다. 때문에 매우 간략하게, 주로 저자 자신의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없는 대목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시기의 이야기들은 주변 인물들과의 구체적인 대화나 사건 전개를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당시의 정황을 생동감 있게 전해 주고 있다. 특히 젊은 시절 깨달음을 열어 가는 이야기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

지은이 감산 (憨山, 1546~1623)스님은 운서 주굉, 자백 진가, 우익 지욱과 더불어 명대의 4대 고승으로 일컬어진다. 12세에 출가하여 19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1581년에 오대산에서 무차회 無遮會를 열어 법을 설하자 5백여 명의 대중이 모였다. 1597년에는 조계曹溪에 머물면서 선禪을 부흥시켰다. 1616년에는 여산廬山 오유봉에 법운선사法雲禪寺를 건립했고, 1622년에 조계로 돌아와 다음 해에 입적했다.

옮긴이 대성 (大晟)스님은 1989년 순천 송광사로 출가했다.
『참선요지』와 『방편개시』(여시아문)를 우리말로 옮겼으며 최근에는 라마나 마하르쉬관련서적들을 '아루나찰라 총서'(탐구사)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다.

사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도(道)를 말할 수 없다. 대저 만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소유하지 않으면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사물을 소유하는 자는 반드시 사물을 추구한다. 사물을 추구하는 자는 사람을 잊기 쉽다. 사람이 없는데 누구와 더불어 도를 말하겠는가? 사물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02-732-1521 / Fax 02-737-0696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취임 100일을 맞아 3일 총무원에서 종단 핵심 종책사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4대 종책 기조	31대 핵심 종책 사업
수행종풍 진작으로 거듭나는 종단	간화선 중심의 수행종풍 진작
	종단 근 · 현대 사상사 재조명
	상설행자교육원 건립
	중앙연수원 건립
	승가교육기관 및 교육내용 재정비
	신도조직 정비 및 포교인력 활용체계 구축
	신도 신행체계 확립
	승려복지방안 수립 및 시행
참여 속에 함께 하는 원융종단	종도 의견수렴 제도 마련 및 종단운영 개선
	비구니스님 참여 확대 및 수행도량 지정
종도와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종단	불교 생명윤리의 사회적 확대
	수행환경 수호 및 자연환경 보존 활동 강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완공
	성보문화재 정밀조사 및 관리체계 확립
	불교 관련 전통 문화 · 문화재 복원 및 계승
	전통불교문화센터 건립
	불교사회복지기금 조성
	불교종합사회복지센터 설립
	대정부 종책자문기구 구성
미래를 지향하는 효율적인 종단	종단 발전 중 · 장기 종합계획 수립
	중앙종무기관 조직 및 종무 시스템 개선
	종단 재정운영 및 자산관리 개선
	직할교구 활성화
	계층포교 활성화
	종립학교 육성책 마련 및 시행
	기능과 분야별 전문 인력 육성
	종단 기관지 위상 제고 및 운영 개선
	인터넷을 통한 한국불교 세계화
	한국불교의 국제적 위상 강화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의 세계문화축제화
	해외 및 외국인 포교 활성화

화합 · 신뢰의 종단 만들기에 '초점'

법장 총무원장 제시 31대 종책과제에 담긴 뜻

승려 노후복지기금 조성 실현 가능
시대 흐름 부합 사회 · 불교문화에 치중

법장스님이 취임 100일을 맞아 제시한 4대 종책 기조 및 31대 중점 종책 과제는 사부대중의 참여 속에 화합하는 종단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계종으로 거듭나겠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31대 종책 가운데 '종단 화합 및 발전 프로그램'에는 △간화선 중심의 수행종풍 진작 △상설행자교육원 및 중앙연수원 건립 △승가교육기관 및 교육 내용 정비 △승려복지방안 수립 △비구니 스님 참여 확대 및 수행도량 지정 등 굵직굵직한 종단 숙원사업이 망라돼 있다.

이 가운데 간화선 중심의 수행종풍 진작은 지난해부터 교육원이 수행체계 정립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다. 다만 '간화선 중심'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행해지고 있는 다른 수행법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상설행자교육원 및 중앙연수원 건립은 접근 방법 및 추진 일정까지 제시돼 있어 올해 말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며, 승려 노후복지기금 조성 등의 승려복지종합대책은 법장스님이 거듭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다.

'종도와 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제시된 종책은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불교문화예술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와 불교문화 분야에 많은 종책 과제가 제시된 것은 불교가 시대흐름에 부합하고 생활화 · 대중화되기 위해 불교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불교문화 진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 가운데 불교사회복지기금 조성, 불교종합사회복지센터 설립은 법장스님이 총무원장 선거 당시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종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승려복지 및 불교사회복지 구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세부내용 가운데 2004년까지 각 교구별로 환경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과, 불교 생명 · 윤리 연구회 구성, 불교중앙박물관 건립 및 박물관 대학 운영 등의 계획은 최근 그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기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운영 활발 신도회 35% 불과

조계종 중신회, 스님 · 종무원 · 임원 등 조사

조계종 불자의 90% 이상이 사찰신도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신도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찰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도회가 없거나(12.5%) 유명무실하다(19.6%)는 응답이 32%에 달했고, '활동이 그저 그렇다'는 응답도 33.1%나 돼 신도회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주관으로 2월부터 2개월간 1,922개 사찰의 주지, 소임자, 종무원, 신도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찰신도회 현황조사에서 회신을 보내온 658명의 응답을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신도 임원 선출방식에 있어서는 주지스님이 일방적으로 임명하거나 주지스님이 지정해 신도들의 동의를 얻는다는 응답이 48.5%로, 자율적으로 선출한다는 응답(47.2%) 보다 많아 자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도회 예산의 경우, 목적사업비(11.6%)나 포교활동비(7%), 사회복지 후원금(13.3%) 등 신도회 및 포교 활성화를 위한 지출은 31.9%에 불과해 신도회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도들의 신도회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도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도의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은 28.7%에 불과한 반면, '소수 임원들만 또는 마지못해 참여한다'는 응답은 63.2%에 달했다.

사찰신도회 활동이 미약한 이유에 대해서는 42.2%(218명)가 신도들의 관심 부족이라고 응답했고, 빈약한 재정 때문이라는 응답도 28.2%(146명)에 달했다. 바람직한 신도회 운영을 위한 방법으로는 66.7%에 달하는 435명이 신도회에 자율성이 주어져야 한다고 답했으며, 89.5%가 신도회 재정운영을 독립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계파정치 인정하지 않겠다"

취임 100일 맞은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종단 현안에 대한 견해와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특히 98년 징계자의 사면 문제와 이날 밝힌 종책 과제 가운데 핵심인 간화선 중심의 수행풍토 조성 등에 대해 비교적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다양한 수행법이 행해지고 있다. 간화선 중심의 수행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은 자칫 다른 수행법에 대해 폐쇄적일 수 있고, 다양성을 해칠 수도 있다고 보는데….

— 간화선 중심의 수행체계 확립은 바로 우리의 전통 선사상으로 종풍을 진작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간화선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선이라는 것은 배타성 없이 일체를 수용하고 융합하는 것이다. 불교를 생활화하고 현대화하며 세계화하는 것을 간화선을 통해 하겠다는 뜻이다.

요청하는 것이다.

▲종책 과제를 보면 재가자의 종단 참여에 대한 폭이 제한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다. 재가자를 포교와 교육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 재가자의 부분적 참여는 지금도 보장되고 있다. 사찰운영위원회가 그것이다. 중앙의결기구에 (재가자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앞으로 시대흐름상 재론될 것이다. 사찰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면 예 · 결산 보고서 등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재가자 참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종단의 열린 기능, 즉 국민과 함께 할 것을 계속 강조해왔다. 현재 건립 중인 역사문화기념관에도 이런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 역사문화기념관이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 시민문화공간으로서, 불교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고려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전통문화센터와 복지센터 건립은 임기 내에 할 것이다.

'98 징계자' 해종행위 특별법으로 처리
전통문화센터 · 복지센터 임기내 건립

▲98년 징계자 문제를 놓고 원로회의와 종회가 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종헌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특별법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데 종단화합과 발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같은 목소리다. 얼마 전 원로회의에서 징계자들에 대해 사면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특별법에 계류 중인 사람들은 어떤 징계를 받을지를 호계원에서 판단할 것이다. 이것은 사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해 해종행위특별법 계류자는 아직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사면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뜻이다. 이들이 특별법에 따라 징계가 확정된 후에야 사면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총무원에서는 호계원에서 내린 결정을 토대로 사면이나 경감 등을 종회에

▲지난 100일 동안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 하루 3~4시간의 수면이나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밖(대중의)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다는 점이다. 안(총무원)에 있으면 모두가 다 잘한다고만 하는데 여러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 안타깝다.

▲총무원장 선거 때부터 '정치승'보다는 '행정승' '수행승'이 되겠다고 말해왔는데 지금은 어떤가?

— 계파정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모든 것을 용해시킬 수 있는 곳이 총무원이다. 종회와의 관계 모색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한명우 기자

2003년 법보종찰 해인사 여름 수련회 안내

가야산 해인사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제20회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가야산 해인사는 고려팔만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법보종찰로서 불교문화와 수행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현재는 총림(叢林/종합수도원)으로서 조계종 종정 법전 대종사를 중심으로 250여명의 스님들이 정진하고 있는 한국불교 최대의 수행도량입니다.

해인사의 수련회 일정은 참선과 묵언 등 엄격하고 신심 있는 내용으로 스님들과 똑 같은 수행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으며, 이러한 4박5일의 기간을 통해 단기 출가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과 의미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해인사의 새벽 예불은 타성에 젖은 수련생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잔잔한 감동이 될 것입니다.

법보종찰 해인사 여름 수련회 수련생을 아래의 일정과 절차로 모집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수련주제 : "아름다운 인연은 가장 가까이 있다"

'2003 여름수련법회 일정'

기 간	연 령	대 상 자	인 원
1차 7월 1일(화)~7월 5일(토)	20 ~ 60세 이하	일 반 인	130명
2차 7월 8일(화)~7월12일(토)	〃	〃	130명
3차 7월15일(화)~7월19일(토)	〃	〃	130명
4차 7월22일(화)~7월26일(토)	〃	〃	130명
5차 7월29일(화)~7월31일(목)	14 ~ 19세이하	중 · 고등부	150명
6차 8월 5일(화)~8월 9일(토)	20 ~ 60세이하	일 반 인	130명
7차 8월12일(화)~8월16일(토)	〃	〃	130명

■ **접수기간 :** 2003년 6월10일부터 선착순 마감

■ **신 청 서 :** 신청서 양식은 해인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인터넷 및 팩스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팩스로 신청하실 때는 전송 후 전화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련회 참가비 :** 일반부 8만원, 중 · 고등부 6만원(교재, 기념사진, 기념품, T셔츠포함)

■ **접수방법 및 통보 :** 선착순 접수에 의해 마감하며, 참가비 입금이 확인되면 수련생으로 정식 등록이 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차수 변경은 3일전까지만 가능하며, 불참하더라도 입금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계좌번호 :** 수련회 참가비는 아래 통장으로 입금하면 됩니다. ☞ **농 협 : 843174-51-006770 (예금주 : 해인사)**

※ 입금하실 때는 자신이 원하는 차수를 이름 뒤에 기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준 비 물 :** 필기구, 세면도구, 우산, 하얀 고무신, 하얀 양말, 쌀 1되와 상 · 하 법복이 있는 분은 가져올 것

■ **접수안내 : 055-932-7430(포교국), 팩스 055-931-6448**

※ 자세한 것은 해인사 홈페이지(www.haein-sa.org)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법보종찰 해 인 사 주지 세 민 합장



대광사 신축대법당 기공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은 12일 오전 11시 분당 대광사에서 종정 도용스님을 초청, 신축대법당 기공식을 봉행한다.

일주문



후원이사 41명과 성지순례

지장 이리불교대학장은 8일 졸업생으로 후배양성에 힘쓰는 후원이사 41명과 함께 순창 강천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

현해 평창 월정사 주지는 본말사 주지 22명과 16일까지 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북유럽 5개국을 홍보순례한다.



통도사서 철야참선법회

현문 양산 통도사 주지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경내 설법전에서 철야참선법회를 봉행한다.(055)382-7182



포교책자 군불교위 전달

선일 인천 부루나포교원 법명사 주지는 5일 군법당에 전달할 포교책자 2천부를 조계종 군불교위원회에 전달했다.



호국영령위령재 봉행

정락 화성 용주사 주지는 13일 오전 11시 경내 효행교육관에서 호국영령위령재를 봉행한다.(031)234-0040



동화사 지성스님 초청법회

법혜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은 11일 오후 4시 법당에서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 초청해 법회를 봉행한다.(054)770-2016



제18회 월례발표회 개최

장충식 동악미술사학회장(동국대 박물관장)은 14일 오후 2시 동국대 문화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18회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신흥사 사부대중 체육대회

마근 속초 신흥사 주지는 15일 오전 10시 서신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신흥사 사부대중 체육대회를 연다.(033)636-7393



노광욱 교수 초청 시민강좌

장적 평불협 경북대구본부 공동대표는 5일 노광욱 교수를 초청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동향과 추이'를 주제로 시민강좌를 열었다.



추사 김정희 선생 헌다식

이귀례 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은 27~29일 '추사 김정희 선생 · 마라도 지신께 드리는 헌다식' 봉행을 위해 제주도 답사를 떠난다.

올 연등축제 최우수상 능인선원

봉축위, 9일 시상식 거행

올해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를 빛낸 최우수 단체에 능인선원이 선정됐다.

봉축위원회는 연등축제 시상식 최우수상(봉축상)에 능인선원, 우수상(연등상)에 조계사와 천태종을 각각 선정, 5일 발표했다. 능인선원은 104위 신장등을 선보여 불자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었다.

이밖에 봉은사와 진각종 등 5개 단체가 장려상(정진상), 진관사 어린이회와 대불련 연희단 등 8개 단체가 원력상, 한마음선원이 특별공로상 수상단체로 각각 선정됐으며, 금년에 최초로 참가한 태국 대사관과 대만 불광산사에게는 감사패가 주어진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수상단체 및 개인 명단

▷최우수상(봉축상)최우수상: 능인선원
▷우수상(연등상): 조계사, 천태종
▷장려상(정진상): 봉은사, 진각종, 사자암, 유니텔 부처님나라, 청룡사
▷원력상: 진관사 어린이회, 대불련 연희단, 조계사 외국인 안내센터, 봉화회, 선재마을,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동대부고 불교반, 불교자원봉사연합회
▷특별공로상: 한마음선원
▷표창패: 한마음선원 혜묵 스님, 능인선원 최진명행, 천태종 박시현, 봉은사 무용단 조용숙, 조계사 김경석, 청원산업 김인택, 종로서 교통지도계 김욱, 미래엘에스 이성희
▷감사패: 태국 대사 솜분, 대만불광산사 의은스님

탄성 스님 3주기 추모 다례 봉행

300여명 참석, 공림사서 엄수



탄성스님 3주기 추모다례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비롯,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림사 대법당에서 엄수됐다. 법장스님은 "종단이 분열과 시비를 겪는 어려운 시기마다 중책을 맡으며 보였던 스님의 모습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한다"고 추모했다. 한편 공림사 주지 상덕스님은 "5주기에 맞춰 탄성스님 부도탑을 제막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음고요 선방 서울시민의 안식처"

홍법대상 수상한 정목 스님



'비구니 스님 DJ'이자 서울 신사동 '마음고요선방'을 이끌고 있는 정목 스님(사진)이 재단법인 불심홍법원(이사장 하도명화)이 선정하는 홍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목 스님은 지금까지 7년 동안 마음고요선방 신도 400여 명과 서울대학병원의 재활어린이를 후원하고 있다.

홍법대상 선정 이유에는 이러한 '봉사활동'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생활 속 참선'을 추구하는 마음고요선방은 일상에 지친 서울 시민들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고 있다. 매주 일요일마다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는 명상 프로그램과 초파일이나 연말이면 선방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에는 종교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발 디딜 틈 없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명상프로그램 개발을 고민 중이다"는 스님은 "상금 1천만원을 명상센터 건립 기금으로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불기협,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과 면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3일 한국불교기자협회 임원단과 면담을 갖고 "화합 종단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교계언론의 협조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조계종 기획실장 현고스님과 불교기자협회 김원우 회장, 김형규 부회장, 안명환 편집장 등이 참석했다.



법종사 불교대학 개교 · 현판식

월정사 서울포교원인 법종사(주지 무주)가 불교대학을 개교했다. 5월 31일 열린 개교식은 불교대학 현판식과 월정사 주지 현해스님의 법문으로 진행됐다. 개교식에서 주지 무주 스님은 "다른 불교대학과는 차별화된 교육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홍포…전통요가학교 개원

경기도 화성에 요가를 통해 불법을 홍포하는 전통요가학교(원장 이희성)가 개원됐다. 5월 30일 열린 개원식에서 前 선학원 중앙선원 원장인 성해스님은 "요가 수련을 통해 본성을 볼 수 있는 심안을 넓혀가자"고 법문했다. 개원식에 이어 '신비의 요가' 출판 기념회가 열렸다.



이라크 돕기 성금 적십자사 전달



조계종 총무원은 5일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해 '이라크 이재민 돕기 성금' 1차분 5천만원을 전달했다. 사회부장 미산스님은 서영훈 총재에게 성금은 전달하면서 "불자들의 자비심이 담긴 성금을 이라크 이재민들의 구호사업에 써줄 것"을 당부했다.

천천마한클럽 장학금 수여



익산 천천마한클럽(회장 지장)은 1일 관음사 큰법당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지장 스님은 익산시로부터 추천받은 소년소녀 가장 등 중고등학생 12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6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익산시에 쌀 80가마도 기탁했다. (063)854-1578

대한불교신문 사진공모전 시상



대한불교신문(사장 조연)은 5월 31일 제 11회 불교 및 전통문화 사진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한국사진대전 박하원 초대작가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공모전에는 총 1천6백12점이 출품돼, 금상에 오상관 씨의 '산사의 하루'가 선정됐다.

육임래정비법

찾아(전화)온 시간만 보면 그사람의 모든 것을 미리알고 먼저 말할 수 있는 활인천역자 (스님 · 오행가 · 신명제자 · 기수련자 · 한의) 의 필수 비기서!

묻는 것은 항목별로 답이 써져 있고, 매일 매일 한장씩 꺼내 보고 넣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수정보완본 2,500,000
■ 일어판 2,720,000
■ 육임강의록 上, 下 410,000
■ 육임휴대용 310,000
■ 육임신수비결 300,000
■ 육임비디오(28개) 900,000
■ 육임속성강의 1,500,000
(교재드림. 매주금요일 오후 5시 3시간)
■ 육임래정비법 CD 2,000,000

문의 02)993-8680

국내 자생 오가피 '간기능보호효능' 탁월 입증

수신물산(수신오가피)에 기술 이전돼....

국내자생오가피가 탁월한 간기능보호약리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내자생오가피의 품종별 성분 및 효능 비교에 의한 식품의약개발과제를 수행중인 생명공학연구원 이정준 박사팀은 급성간염을 모델로 한 실험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연구팀은 국내자생오가피가 간기능의 지표효소인 GOT, GPT의 혈중농도를 정상수준으로 유지하게 하는 활성이 가시오가피보다 우수한 것을 확인했으며 급성간염모델에서 오가피를 투여하지 않은 쥐는 24시간이내에 90%이상 사망한 반면 오가피를 투여 받은 쥐는 90% 생존율을 보였으며 조직학적 검사에서도 간독성을 유발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이어 간세포의 괴사나 사멸을 유도하는 단백질의 발현이나 활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우수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국내자생오가피가 간염치료제뿐만 아니라 간보호제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 박사팀은 국내특허 3건 국제특허 1건을 각각 출원했으며 이 연구결과는 최근 연구참여기업인 수신물산(수신오가피)에 기술 이전돼 간보호용 식품 및 의약품으로의 상품화가 진행중이다.

(연합뉴스, 매일경제, incws24 보도내용)

신비하게 소원을 이루는 기도처

米岩寺 '쌀바위'



- 지방문화재 제371호 -

백제 침류왕 때 부여 **쌀바위**와 자연암반수인 **神泉水**의 영험이 자자하여,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을 얻었고, 병자가 쾌차하게 되고, 수험생은 시험에 합격을 하고, 사업가는 사업이 번창하는 등 갖가지 소원을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인근 주민들은 지금도 소원을 이루게 해준 **미암사 쌀바위**를 부처바위, 미륵바위 혹은 촛대 바위, 남근석 바위 라고하며, 신비한 영험이 널리 알려져서 생로병사의 운명을 바꾸고자 전국에서 **성지순례**자가 많이 참배하여 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운명을 상담해 드립니다.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전화 041)832-1188~9
쌀바위 미암사 주지 석만청 합장

기술이전기념 고객사은행사!

축 【기술이전】

저희 수신오가피에서는 이번에 한국산 토종오가피에 대한 연구결과를 생명공학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이전 받게 되었습니다.
국내 토종오가피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이번 연구를 통해 고객여러분께 더 좋은 품질, 더 우수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종오가피를 사랑하시는 고객여러분의 성원에 보답을 하고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사은행사를 마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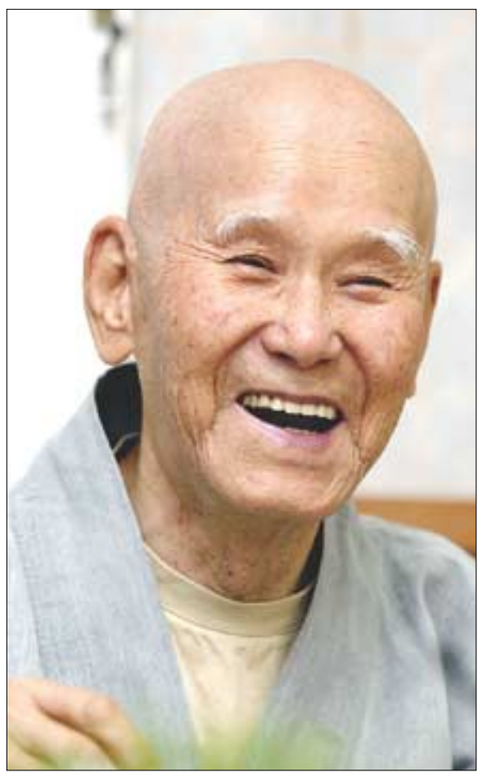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氏

15만원상당의 생씨앗베개나
어린이용 수신천사토종오가피를 드립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지금 수신토종오가피 3개월분을 신청하시면 생씨앗과 토종오가피로 만든 성광수 생씨앗베개나 어린이를 위한 수신천사토종오가피 중 하나를 선택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446-4422



89세 호명 스님, 마지막원력 '인재불사'

운흥사에 선방 '경심회' 열고 후학들 지도
10명 선발 입방…동·하안거 없이 3년 정진
불교신행방법론·선수행 실수등 가르쳐

"수행을 하려면 선(禪)의 길잡이가 되는 이론적 체계와 철학이 확고히 서야 물러섬이 없는 선공부가 시작됩니다. 선로(禪路)에 오르는 방법론부터 직접적인 선수행 지도와 점검으로 바른 선승을 배출하는 도량이 될 것입니다."

평소 선 수행에서 선이론 정립의 중요성을 역설해온 세수 89세의 통도사 호명 노스님(사진)이 신라고찰 울산 운흥사(주지 야은)에 '경심회(經心會)'라는 선방을 열고 직접 선 지도에 나선다. 선원장이나 조실을 마다하고 지도법사를 맡은 이유도 노스님의 마지막 원력이자 60여년 수행의 열매를 후학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다.

동안거, 하안거 없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부에 임할 스님들을 모집중인 경심회 선방은 어디서든지 선수행을 할 수 있는 기본을 정립시키기 위해 '종교로써 불교신행의 방법론' '불교 공(空)사상의 선철학' '선수행 실수(實修)' 등의 과목이 개설된다.

경심회 선방은 향후 2개월 동안 수시로 입방 신청을 받고, 호명 노스님이 직접 점검 후 선별한 스님 10명만 우선 입방을 허용하고 공부를 시작할 계획이다.

금강산 마하연, 상원사 등 제방선원에서의 정진과 천성산 조계암에서 22년간 선농일치의 수행을 했던 호명 노스님은 선방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법문비를 모으고,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선승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심회 회원을 모집해왔다.

호명 노스님의 원력과 열정에 탄복해 운흥사에 선방을 열게 된 선원장 야은 스님은 "호명 노스님의 원력은 젊은 우리들도 흉내조차 낼 수 없다"며 "다양한 수행법이 혼재하는 현실에서 올바른 선수행의 길잡이가 되는 어른 스님을 모시고 수행하고 탁마할 수 있는 값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 양성을 부처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여기는 호명 노스님은 "우리 불교의 뿌리를 튼튼히 하려면 모든 이의 모범이 되는 스님의 자세가 올곧아야 하고 선의 향기가 풍겨나는 참된 수행자가 많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입방 문의 055) 382-3225

부산=천미희 기자

6월5일 '환경의 날' 이모저모

노 대통령 새만금 강행의사

○…환경의 날인 5일 노무현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 강행 의사를 밝혀 환경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장 · 군수 · 구청장 초청 특강과 오찬간담회에서 "지금 큰 쟁점은 사업을 하는데 농지냐 관광지냐 산업단지냐 아니면 전북도민이 더 좋아할 또 다른 용도로 쓰게 하느냐"라고 말해 사실상 사업 강행 의사를 밝혔다.

새만금 특위 인선 가닥

○…새만금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28명의 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은 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수석 · 보좌관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새만금사업 특위는 노 대통령이 5월 20일 '신구상기획단' 구성을 지시함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2004년 까지 여론수렴 작업 등을 거쳐 효율적인 토지이용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새만금 간척 중단 촉구

○…5일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노무현 정부의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삼보일배에 참여했던 문규현 신부의 형인 문정현 신부가 새만금 간척 사업 중단과 전북공무원의 집단행동에 항의하며 5일부터 전북도청앞에서 침묵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환경운동연합, 백지논평

○…환경운동연합은 5일 백지논평을 냈다. 논평문에서 "세계 환경의 날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백지논평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의 묵언은 노무현 정부를 가장 환경파괴적 정부로 역사에 고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만금 살리기 전세계 확산

○…삼보일배가 인터넷으로 세계에 알려지자 미국, 일본, 호주 등 전 세계에서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다.

5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구의 벗 국제본부, 시에라 클럽, 일본 습지보전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들이 청와대로 항의 메일을 1500여통을 이미 보냈고 지금도 항의메일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산사 여름휴가 어떠세요?

통도사·해인사등 수련회 참가자 모집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백양사 등 주요 사찰들이 7월부터 열리는 여름수련회 참가자 접수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여름수련회를 개최하는 해인사는 '아름다운 인연은 가장 가까이 있다'를 주제로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7회에 걸쳐 930명을 모집한다.

화엄사는 '참 나를 찾아서'를 주제로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매주 화~금요일 선 수련회를 개최한다. 서울 길상사와 공주 마곡사, 장성 백양사도 참선수련회를 통해 참가자들의 정신세계를 일깨운다.

한문학당으로 유명한 해남 미황사는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초등학생과 중학생 과정으로 각각 2회씩 문을 연다. 나주 불회사는 '순간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오롯이 집중하라'라는 주제로 7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5회에 걸쳐 관음대참회 수련회를 개최한다.

이밖에 영천 은해사, 해남 대흥사, 평창 월정사 등에서도 여름수련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골굴사	초 · 중 · 고생	7.1~8.31	(054)745-0246	www.sunmudo.com
길상사	초교생	8.12~14	(02)3672-5945~6	
	중고생	7.24~27		www.kilsangsa.or.kr
	일반	7.31~8.10(2회)		
마곡사	어린이	8. 1~4	(041)841-6221	
	일반	7.10~8.9(4회)		
	상담교사	8. 11~16		
미황사	초교생	7.27~8.14(2회)	(061)533-3521	
	중학생	7.27~8.14(2회)		www.mihwangsa.com
백양사	일반	7.21~8.15(4회)	(061)392-0434	www.baekyangsa.org
불회사	일반	7.19~8.20(5회)	(061)337-3440	www.bulhoesa.org
서원사	일반	7.16~8.22(6회)	(055)291-6405	www.seowonsa.org
송광사	일반	7.13~8.7(4회)	(061)755-0107~9	
	중 · 고생	8.10~13		www.songgwangsa.org
통도사	일반	7.13~31(4회)	(055)384-8380	
	중고생	8.2~5		www.tongdosa.or.kr
	초교생	8.7~9		
해인사	일반	7.1~8.16(6회)	(055)931-1390	
	중고생	7.29~31		www.haein-sa.org
화엄사	일반	7.22~8.15(4회)	(061)782-7600	www.hwaeomsa.org

"석탑현물시주 뇌물아니다"

오 국방차관보, 불기협과 간담회

"석탑 현물 시주는 뇌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치운 국방부 차관보는 3일 국방부에서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원우, 이하 불기협) 소속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사견임을 전제하고 김태복 장군 건과 관련 "석탑 현물 시주는 뇌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자 "그 말이 맞다면 상식적인 차원에서 나도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뒤 재조사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창해 법무관리관도 "작년 3월 최 모 소령(사건 당시 건축물 심의 담당 장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으나 보름 정도 있다가 국방부로 올라와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찰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오준수 검찰단장도 박 모 대령(사건 당시 군사법원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것을 밝혔다.

남동우 기자



◇오치운 국방부 차관보(사진 우측 첫번째)가 기자들에게 김태복장군 사건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내년 6월 세계여성불자대회

교육과 수행 주제, 서울·경주서 10일간

2004년 6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8회 세계여성불자대회(이하 사키야디타)의 주제와 일정이 확정됐다.

5일 서울 하림각에서 발족식을 가진 '사키야디타 추진위원회'는 대회 주제를 '여성불자의 교육과 수행:현재와 과거'로 정하고 내년 6월 27일부터 10일간 진행될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대회는 6일간의 본행사와 3박4일간의 성지순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모임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명예총재에 위촉하고 공동대회장에는 전국비구니회장 광우 스님과 사키야디타 회장 혜공(티베트 법명 Karma Lecshe Tsomo) 스님을, 추진위원장에 본각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연구위원장에 해주 스님(동국대 교수)을 각각 임명했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우 스님은 "8회 대회는 승재가가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세계대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여수령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 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 택시
1588-5532

목탁소리

산으로 가는 '동국대'호

김원우 (취재1부 차장)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들은 5일 모임을 갖고 "학교 주요보직자중 건학이념에 상반되는 인사가 다수 있다"며 "학교당국의 단호하고 현명한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불교대학 교수들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학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국대 주요보직자중 누가 왜 건학이념과 상반되고, 그러한 인사는 몇 명이나 되는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입장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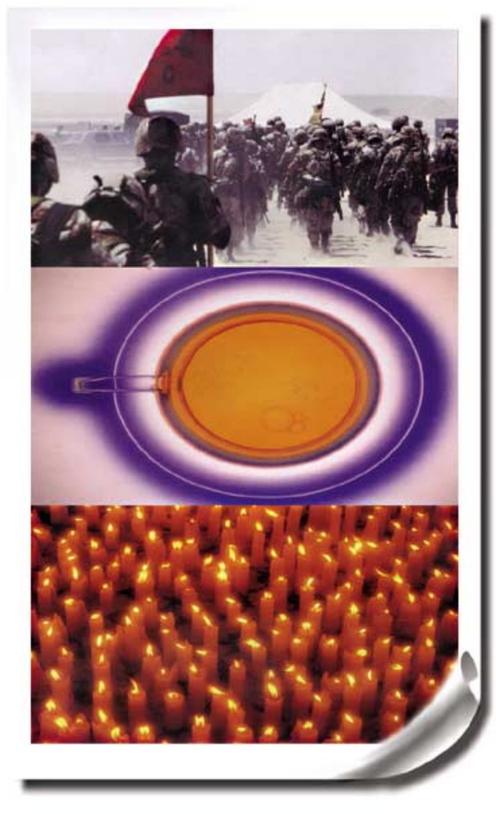
동국대 제출자료와 5월 20일 정각원 수계자까지 합하면 총 38명의 주요보직자중 불교는 36명 무교는 2명이다. 무교라고 밝힌 2명의 교수가 학교의 근간을 흔들 만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앞서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회의도 5월 29일 "건학이념과 상반되는 보직교수 인사로 인한 시비와 우려가 일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뒷말이 무성하다. 구체적으로 불교병원 이권과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스님이사 5인의 자리와 모종의 관련이 있는 전초전으로 동국대를 흔들고 있다는 추측들도 난무하고 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다. 정대 이사장과 홍기삼 총장이 임기를 시작해 100일을 막 지낸 시점에서 재단과 학교가 자칫 내홍에 휩싸일까 염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2006년 개교 100주년, 일산 불교병원 개원을 앞두고 종단과 학교 학내구성원 불자들이 합심해도 어려운 상황에 사공 많은 동국대호가 바다로 가지 못하고 산으로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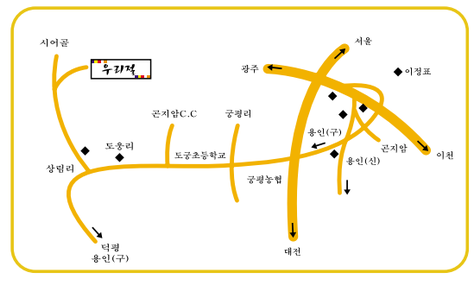
부처님 가피가 충만한 우리절



이라크 전쟁과 사스 · 알제리 지진 희생 영가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위로를.....

- 지난 이라크 전쟁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 지금도 SARS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알제리 지진참사로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부처님의 대자대비심의 의거 불우한 영가를 천도합니다.
- 모두 오셔서 유명을 달리하신 국제영가님들에게 차 한잔씩 올립시다.
- 행사안내
  - 일 시 : 2003년 6월22일 일요일 오전10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곤지암 우리절 큰법당
  - 법공양 : <일원곡> 제5권 (동봉스님의 40번째 책)
  - 후 원 : 동선회,겨운행복,목련사랑,신도회
  - 곁들임 : 동봉스님 출판기념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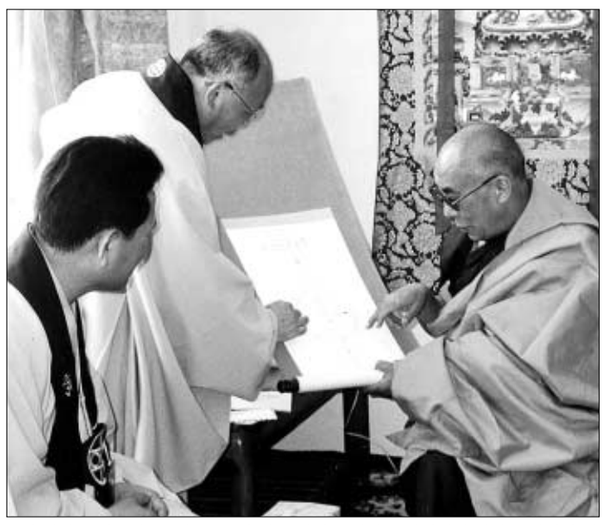
※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동봉스님의 <일원곡> 제5권과 목련사랑에서 보시한 배건을 나누어 드립니다.



장소: 곤지암 우리절
www.urijeol.com
우리절.net
Tel: (031)763-4674~5

진각종-티베트 밀교 발전 위해 손잡았다

대표단 티베트 스님들 만나 교학체계등 의견교환



◇진각종 대표단은 5월19~31일 인도 티베트 사원을 시찰했다.사진은 달라이 라마와 간담하는 모습.

교육·인재불사·저술·출판 등 공동협력
달라이라마 예방, 인도 따보승원 시찰

진각종이 밀교 보급과 대중화를 위해 티베트 불교와 교류에 나선다.

진각종은 5월 19~31일 인도 따보승원(주지 게쉐왕디)의 초청으로 달라이 라마가 주재한 금강계 만다라 관정법회와 티베트 사원을 시찰했다. 효암 통리원장과 혜정 교육원장, 회성 문화사회부장, 법정 건설부장, 지정 교법부장 등 종단 주요간부들로 구성된 대표단은 5월 22일 따보승원 주지 게쉐왕디 스님과 방장 세르콩 촉툴 린포체 스님을 차례로 만나 양국의 밀교 교류와 교학체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진각종 대표단은 밀교 성지인 따보승원의 역사와 문화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저술의 기획과 출판불사에 대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티베트불교와 진각종의 교학, 교법체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밀교 학술 교류, 티베트 승려의 위탁교육, 티베트 어린이 학교 지원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진각종 대표단은 인도 북부 레주 알치승원, 숨다승원과 히마찰 프라데시주 당카르승원 등 티베트 사원도 방문했다. 티베트 수행도량의 건축 양식과 법당 구조, 본존불 봉안 등을 시찰한 대표단은 진각종과 달리 금강계 37존을 형상화해 봉안한 법당 형태를 확인했다.

5월 25일에는 금강계 만다라 관정법회에 참석해 달라이 라마를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효암 통리원장은 "금강계 37존을 모시고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 신행에 주력하고 있는 따보승원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달라이 라마는 "종교에도 여러 종교가 있고, 불교에도 여러 종파가 있지만 모든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의 함양"이라고 강조했다.

진각종 관계자는 "티베트 사원을 돌아보면서 의궤와 의식이 진각종과 거의 유사하거나 같아 동질감을 느꼈다"며 "교류가 활성화 된다면 향후 한국 밀교도 융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인도 방문 성과를 설명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호국영령 수륙천도 방생법회

태고종 광주 · 전남교구 종무원은 5일 무안 회산 연꽃 방죽에서 호국영령 수륙천도방생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은 "한국불교는 연꽃과 같이 생활불교로서 피어날 때 불국정토를 이룰 수 있다"며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운산스님을 비롯해 세심정사 주지 지암, 담양 용화사 주지 수진, 무안사암연합회 회장 정평 스님 등 3천여명이 동참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홍천 연화사서 보살계 수계법회

총화종(총무원장 남정)은 5월 29일 홍천 연화사 금강계단에서 전국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수계법회는 전국 소속 사찰 주지 및 신도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 및 헌향, 발원문 낭독, 수계의식 등으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남정스님은 "계는 발심하여 수행하는 이에게 길을 비추는 등불이요 법을 바로 보게 하는 거울"이라며 "불자들은 계를 근본으로 삼아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총무원 동방대학사로 임시 이전

태고종, 봉원 · 법륜사 불사완료때까지

태고종 총무원이 청사 부지를 확정하지 못해 6월 중순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소재한 옛 동방대학교 학사(學舍)로 청사를 이전하게 됐다.

태고종은 당초 신촌 봉원사와 종로 법륜사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양 사찰이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청사 부지는 봉원사나 법륜사로 하되, 불사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동방대 학사에 입주하기로 했다.

법륜사는 일부 대중이 입주를 완곡히 반대하고 있고, 봉원사는 총무원이 입주할 경우 잡무가 늘어나고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이에 대해 종단내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한 집단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태고종 총무원은 종도들에게 청사 이전과 관련된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진화에 나서고 있다.

총무원 관계자는 "청사 이전 문제를 종단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여론 수렴을 거쳐 여법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영산재 시현…문화재청 기량 평가단 동참



태고종 영산재보존회(회장 인공)는 단오날을 맞아 4일 서울 봉원사 특설도량에서 전통불교의식인 영산재를 시현했다. 영산재의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축하해 14회째 열린 이번 행사는 준보유자 구해스님을 비롯해 전수교육보조자 일운 기봉 송강스님 등의 집전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문화재청의 기량평가단이 동참했다.

종단소식

충담스님 열반5돌 추모

태고종 충담문도회(회장 도성)는 전 승정 충담스님의 열반 5주년을 맞아 3일 가평 감로사에서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충담스님 육성녹음 근청을 시작으로 열린 이날 법회는 행장보고, 발원문 낭독, 조사 영반, 호마(護摩) 작법 등으로 진행됐다. 충담스님은 98년 감로사에서 소신(燒身) 공양으로 열반했었다.

어린이 지도교사 연수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14~16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 인광당에서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하계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교무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연수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전국 사찰에서 실시되는 불교학교를 대비해 찬불가 지도, 구연동화, 민속놀이, 만들기 등 효율적인 어린이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종정 대행에 덕산스님

원효종 중앙종회는 지난 3월 입적한 전 종정 법홍스님의 49재가 지남에 따라 5월 29일 부산 금수사에서 제49회 임시중앙종회를 개최했다.

이날 종회에서는 총무원장 덕산스님(양산 송정사)을 종정 권한대행으로 추대하는 한편, 전 총무원 사무총장 우치스님(강화 해운사)을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또 사임 의사를 밝힌 종회의장 상조스님의 사표를 반려했다.

게 시 판

모집 ▲서울 마포노인주간보호센터는 민요교실 프로그램 진행, 배식 보조 및 설거지, 청소 등에 활동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02)365-3677

▲부산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정신지체아동 통합지원프로그램 '맑은소리터' 이용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정신지체 또는 청각언어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프로그램은 개별치료와 그룹언어치료, 사회적 응훈련 등으로 진행된다. 구비서류는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수첩. (051)264-9033

행사 ▲강원도 속초 신흥사는 15일 오전 10시 속초 서신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신흥사 사부대중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033)636-7393

▲조계종 문화부는 창작 찬불가의 저변 확대와 유능한 불교 음악인을 발굴하기 위해 '제4회 창작 찬불가'를 공모한다. 접수는 9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응모요령은 1인이 각 부분별로 1곡에서 3곡까지 출품 가능하며 모든 응모 작품은 피아노반주를 원칙으로 한다. 심사발표는 10월 15일. (02)739-1830

▲경남 합천 해인사는 28~29일 이틀간 주말수련회를 연다. 프로그램은 다도, 운력, 참선, 발우공양 등으로 진행된다. (055)932-7430

▲경북 의성노인복지관은 11일 의성군문화체육회관에서 개관 1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054)833-6006

구인 ▲서울 능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행정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활동 분야는 복지관 자원봉사활동 코디네이터, 사회교육 관련 업무, 유아센터 보조, 저소득가정아동학습 지도 등. 근무는 주5일근무로 1일 6시간. 일당 3만원 (02)571-2988

▲경기도 파주시 진인선원에서는 물리치료사와 영양사를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경력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준비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1통. 접수방법은 전자우편 접수. 마감은 15일까지. jininsw@hanmail.net (031)958-3043

이전 ▲사찰생태연구소, 두레문화기행, 두레생태기행, 두레생명문화연구소, 보리방송모니터회 등의 주소가 서울 종로구 가회동 15번지(1층)로 변경됐다. (02)712-5812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행복한 가정 만들기"
제4기 가정폭력 전문상담가 교육생 모집

가정폭력의 증가로 인한 가정해체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교계에서도 가정폭력 전문상담원을 양성
『불교가정폭력상담소』를 곳곳에 설치하여 불행한 사람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불국토를 만듭시다

본 프로그램은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가정폭력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질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담윤리 7시간, 여성학 15시간, 가정복지 6시간, 상담학 23시간, 심리검사 6시간, 법 9시간, 가정폭력상담 15시간, 성폭력상담 13시간, 상담실습 7시간)등 다양한 접근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대 상 : ①자원봉사 희망자
②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가정폭력 상담원 및 1366 상담요원 희망자
④가정폭력 상담소 설치 희망자
2.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수강신청서
3. 연수기간 : 2003년 6월 25일~ 8월 13일까지(오전 10시~12시, 오후1시~3시까지)
(강의따라 요일 변경)
4. 장 소 : 연꽃 교육장 (인사동 4거리 상 갤러리 4층 401호)
5. 수 강 료 : 15만원(당일 등록시 16만원)
6. 모집인원 : 50명(선착순)
7. 신청방법 : 입금후 전화신청(입금처 : 우리은행 098-088769-01-501)
예금주 :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
8. 신청기간 : 2003년 5월 26일~6월 25일까지
9. 문 의 처 :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 TEL 02)738-5586, FAX 02)738-7576
10. 본 프로그램의 수료증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정합니다.

1. 본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인정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자격을 수여함.
2. 본 행복한가정상담소에서 필요시 상담활동(봉사 · 유급)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진법약사여래 가피로 그린 태일 달마도는 모든 소원을 성취한다

천지개벽과 지구의 종말은 있는가! 대도진인 대우주의식
근본 혈단법 원방각 해인도법 弓弓乙乙진광도통대법회

◎ 선천법도는 말로만하는것을 세상을 사는것을 후천법도에는 말이나 글자나 형상에 있는것이 아니라 덕으로써 마음속에 숨어있는 弓弓乙乙 혈단법을 알아야 도통하여 천하도, 지구도, 재난도, 인류도 구하는 것이 도인들의 책임인 것이며 弓弓乙乙이란 부처님 마음자리인 것이다.

◎ **천지개벽과 지구의 종말은 있는 것 인가 없는 것 인가?** 그 베일에 감춰진 해법을 6월 15일 16일 (음 5월 16일 17일) 일요일 자시와 월요일 오시에 대우주의 진광 초능력으로 정신의 세계, 육신의 세계, 신령의 세계, 혼백의 세계, 인연의 윤회로 태란습화의 모든 생명들에 의한 빙이된 유명 무명 모태유산, 조상일체 영가들과 생명 연장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성스러운 날이 경신일이고 이기도에 동참하시어 입문하시어 하늘나라로 해원상생 해탈시키는 기도이며 종교에 종사하는 지도자, 사회복지, 심리상담자, 건강상담자, 한방양방종사자, 인생상담자 모든이들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각기능에 최고의 보수가 되는 기도임을 명심할지여라.

◎ **천지개벽과 지구의 종말이란 있는것인가? 당신은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지축의 변동으로 수백년마다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지구촌 700환구에 떠도는 별들이 지축의 변동으로 일어나는 대홍수와 태양의 직광으로 윤해질병 으로 수많은 생명의 실존과 해변의 주변도시에 자연피해 등 현상의 이변으로 대지진과 홍수와 괴질과 화산폭발 등의 대변난을 격는 것을 말에 장난으로 자기네 종교만이 살아남는 다는 어리석은 말에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이용당하는 것을 도를 통하면 그들을 제도 하는것을 도통과 견성은 아무나 합니까! 오직 마음을 보고 자신을 이기는 자만이 도를 통하는 것이다.

◎ **증상대운 천기 누설과 인류의 종말이란? 당신은 무엇으로 도를 통하였기에 종말론에 대해 함부로 말하십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르기에 종교, 문화, 경제, 사회, 교육, 정치, 예술 이기주의 무지로 상대방의 저항 때문에 남을 무시한 댓가를 받는 것이며 참지 못하여 일어나는 것이 인류의 종말임을 명심할지여라. 자기를 알아야 지구론 대우주의식 진광으로 인류를 구하고 자기도 구하는 천기누설이란 사람이 태어날 때 이미 하늘의 도법으로 이 세상에서 살다오라고 하는 것이 운명이며 이법은 귀신도 모르는 법도를 점술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어떠한 법도 변하지 않고 재앙을 받고 나고 죽고 하는 하늘과 땅과 인간 대우주의 비밀장인 것을 천지신명에 죄를 참회되는 기도가 바로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용서받아 가, 갑, 승, 제 Y2K의 해결 법이 괴멸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 **사람이 태어난 윤리도덕관 전생, 금생, 내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수명장수로 잘 살려면 경신지도로 탄생날을 질러야 하는 것이다.**
○ 상풍상생의 인간은 부모미생전 10개월 10즉 306일 이상 ○ 중품상생의 탄생 부모미생전 10개월, 296일
○ 하품상생의 탄생 부모미생전 9개월, 286일 이상 ○ 저품상생의 탄생 부모미생전 8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질품상생의 탄생 부모미생전 7개월 이하미만 탄생품 이렇게 탄생되어 왔다가는데 어리석게 살며 아무종교나 믿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도통하여 성현군자 신선, 도인, 달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법법회에 그대를 초대하오니 만법을 얻어 초능력자 대우주의식 스승되소서.

● **혈단법 弓弓乙乙 진법이란** 당신은 무엇으로 도를 통하려 하십니까!
1. 백사천서,천부경 2. 하도천서,지부경 3. 락서천서,인부경
4. 무자천서,예단 태골경을 당일 자시와 오시와 강령합니다.
도는 말이나 글이나 문자나 형상에 있지 않고 오직 진법을 알아야 도를 통하며 인류를 구하는 도통사명자 성현 신선 진인 도인이 되는 것이며, 보이는 데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마음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도통하는 날이 바로 6月 15,16日 (음 5월 16일 17일)모든 영가와 생명을 하늘에 통하여 해탈되는 날이 바로 경신일 자시와 오시인 것이다.

卍 명당비법과 신비의 동양철학 최단기 특강(일요일 오후 5시) 心
한방 · 양방건강상담, 특별지도자, 철학상담지도자 특별오운육기 특별개인지도
● 입제 : 6월15일 일요일(해시) ● 해제 : 16일월요일(해시)
02)821-6622/821-7767~8/016)239-3110
1호선노량진역 하차, 2호선 신림역 7번출구,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2번출구
(버스 85, 25, 94, 72-1, 105, 26, 303, 142, 26-3, 102번) 모자원고개하차.

◆당일 동참금 : 5만원(1박 2일), 침식제공
◆온라인 접수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한영)

웅조달마 진인 도통 회장 天龍眞人
세계 불교 달마종 총 본산 泰日합장

인도돕기
부처님나라에 다시 불교가 싹트고 있습니다.
인도불교돕기추진위원회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 (예금주 : 인도돕기)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4 일 국립현충원 내 호국지장사 불자 보훈가족들이 12번 장병묘역에서 <금강경>을 독송하며,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원안은 묘지앞에 나란히 선 독송행렬이 눈물을 훔치고 있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가슴속 눈물 독경으로 달래고...

국군묘지 창설 이후 48년간 현충일 독송법회
사연도 구구절절 ··· 아픈 마음에 감로수 역할

국립현충원 호국지장사의 6월

묘역을 돈다. 서울 동작동 국립 현충원 묘역을 돈다. 불자 보훈가족들이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아들과 남편, 그리고 아버지가 안치된 이곳 '눈물의 묘역'을 돌고 있다. 가슴 속으로, 가슴 속으로 경구를 외워 본다. 힘겹게 한발 한발을 내딛는다. 하지만 북받쳐 오르는 슬픔은 가는 걸음을 멈쳐 세운다. 아니 주저앉힌다. 너무도 사무쳤을까? 이들의 간절함은 목탁소리를 타고 현충원 공작봉을 넘고 있었다.

4일, '호국영령 금강경 독송법회'가 열리던 날. 국립 현충원 호국지장사(주지 혜성)가 조국을 위해 산화한 선열의 뜻을 기리는 법회를 마련했다. 이렇게 법회를 연 지도 48년 째. 현충원의 전신인 국군묘지가 창설된 55년부터 독송법회를 매년 꾸준히 봉행해왔다.

1시간 남짓, 법회가 끝나자 주지 혜성 스님과 보훈가족들은 묘비를 찾아 앉았다. 지장사에서 떠온 약수 물을 묘비 앞에 올려놓고, 다들 조용히 절을 올리거나 독경을 해주고 있었다. 그리고는 잠시 후.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왔다. 울음은 걷잡을 수 없게 묘역에 옮겨 퍼졌다.

66년 12월 10일, 베트남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김순녀 할머니(법명 여래장 · 79세)가 아들 장익상(해병2사단 · 당시 22세) 병장의 묘를 붙잡고 눈자위를 적셨다.

"가지 말라고 했어. 근데 아들놈이 몰래 얘기도 하지 않고 베트남으로 가버렸지. 그게 마지막이었어. 야속했지. 죽기 전에 남은 거라곤 편지 2통 밖에 없었는데…. 내가 익상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해방 후에 38선이 그어질 때 갓난아이였던 녀석을 포대기에 싸서 남한으로 왔었어. 그런 아들이었는데 말이야. 다시 살아올 거라고 생각했어, 적어도 익상이 유해를 받기 전까지는."

아들을 가슴에 묻었다는 김 할머니. 67년 2월, 아들의 묘역 안치일에 맞춰 강원도 묵호(현재 동해시)에서 현충원 근처 흑석동으로 이사를 왔다. 먼 타국에서 떠나보내야만 했던 아들을 좀더 가까이에 두고 싶어서였다.

"내 업이라고 생각해. 자식 먼저 앞세워 보낸 죄를 참회하려고 지장보살님께 매달리고 있어. 아들과 남편이 다음 생에는 반드시 오래 오래 살게 해달라고…."

절절한 사연은 또 있었다. 마지막으로 눈감는 남편에게 <지장경>을 읽어줬다는 박연순 할머니(법명 대련화 · 72세). 벌써 31년이 지났건만, 박 할머니는 마음의 응어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 가는 길을 마냥 지켜 볼 수밖에 없었던 힘없는 아내였던 것이 여태껏 사무친 마음을 편히 놓아둘 수 없게 했다.

박 할머니의 남편 김종문(당시 40세) 육군상사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학도병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애국심이 투철한 직업군인이었다. 그 후 강원도 하천군 육군 15사단에서 근무하다가 73년 갑자기 심장마비로 순직했다.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도 컸다. 6남매의 가장으로 산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행상이며, 파출부까지 안 해본 일 없이 닥치는 대로 일해야만 했다.

"고생한 것 어떻게 말로다 다 하겠어. 6남매를 온전히 키울 수 있도록, 항상 부처님께 건강하게 해달고 빌었어. 또 바깥양반 묘비를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찾아 왔어. '여보 저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끊임없이 물었어. 아마도 지하에 있는 양반이 많이 도와 준 것 같아."

지금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박 할머니. 지장사와 인연은 특별했다. 74년 남편 유해를 현충원에 안장하는 날, 목탁소리가 귀전을 때렸다. 안장이 끝나자마자 곧장 지장사를 찾아갔다.

"현충원 안에 절이 있으리라곤 생각도 못했어. 슬픔에 허덕이고 있는 나한텐 그야말로 감로수였어. 요즘 들어 남편의 묘비에서 입버릇처럼 '당신! 참 쓸쓸하지. 곧 갈게. 우리 죽어서 자유로운 영가가 돼서 손 붙잡고 명산대찰로 노닐자고'라는 말을 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부부, 이렇게 될 수 있겠지?"

6월, 국립 현충원 지장사에서 만난 불자 보훈가족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던져 주었다. 한국 역사의 고비마다 조국의 이름으로 자신의 생명을 던졌고, 우리는 이들의 희생을 딛고 서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현충원 내 유일한 종교시설
천도재등 포교 활동에 진력

호국지장사는 지금부터 1,200여 년 전 신라 경문왕 때 도선 국사가 창건했다. 이후 670여 년 전 고려 말 공민왕 때 보인대사가 중창하고 화장사(華藏寺)로 개명했다. 조선 중기 선조 때 국가기원 사찰로 지정해 중수됐다. 당시 오성과 한음 두 대감이 이곳에서 공부해 장원급제했으며, 이 후 기도 성지로 유명해졌다.

호국지장사는 국립 현충원 내 유일한 종교시설로,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찰이다. 55년 정부가 국군묘지 창설 계획에 따라 철거 위기에도 몰렸으나, 당시 조계종 종정과 총무원장을 역임한 청담스님이 문제를 해결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현재 혜성 스님이 주지로 있으며, 지난 84년에는 지금의 호국지장사로 다시 이름을 바꿨다. 또 대웅전 좌측에 지장석불을 최근 조성했으며, 1,200지장보살상을 봉안하는 등 호국 기원 지장도량으로 일신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군인과 군무원만 안장하다 65년 국립묘지로 승격되고, 96년에는 국립묘지관리소에서 국립 현충원으로 개명됨에 따라 호국영령 천도법회 등 불자 보훈가족 포교에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 (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국민적 화두 새만금 끝 아닌 시작

‘삼보일배’ 가 남긴 것

비폭력적 … 시위문화 한단계 성숙

바다도시 · 해양관광특구 등 무수한 ‘代案’ 등장

“사업계속” 전북도민 정서 넘어야 할 산

► 삼보일배가 남긴 것

새만금 갯벌과 온 세상의 생명 평화를 염원하는 삼보일배가 65일째인 5월 31일 회향했다. 삼보일배는 시작부터 4대 종교인들이 함께 했다는 점에서 종교인 및 비종교인들에게 큰 울림을 줬다. 형식상이든 내용상이든 삼보일배는 불교적이지만 가톨릭 신부나 개신교 목사, 원불교 교무까지 동참한 것은, 종교가 그 어떤 정치적 맹세보다 효과적으로 한국사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사실 한국 종교의 특색 중 하나는 ‘배타성’이었다. 하지만 삼보일배에서 보여줬던 종교간 협력 가능성은 한국종교가 나아갈 방향의 시금석이 됐다.

삼보일배가 지속될 때 화물연대의 파업과 NEIS에 대한 교육부와 전교조의 대립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집단 갈등을 일으켰다. 독재와 민주화라는 이분법적 시대를 지나 다양한 집단의 욕구가 분출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 부분에서 삼보일배는 상대에 대해서는 가장 비폭력적이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한,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것에서부터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가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위문화’를 만들었다.

삼보일배라는 ‘형식’은 끝났지만 새만금이라는 ‘내용’은 이제 시작이다.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세영스님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이라는 화두를 국민들 뇌리에 깊숙이 새겨 넣은 것이 삼보일배의 진정한 힘”이라고 말한다. 덧붙여 “이 화두를 일상 생활 속에서 어떻게 녹여나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고민이 중요하다”고 밝힌다.

► ‘새만금’ 화두풀기 무성한 대안들

삼보일배로 인해 새만금은 이제 ‘국민적 화두’가 됐다. 이 화두를 풀기 위해 각 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환경단체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안은 국외에서 혜안을 빌리자는 것이다. 유럽 최대의 국립공원이자 세계 최초의 갯벌국립공원인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바텐메어는 원래 무서운 북해의 해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이 손으로 만든 방어용이었다. 갯벌의 개발과 보전을 둘러싸고 15년에 걸친 격렬한 논쟁 끝에 국립공원 지정 이후 관광객이 크게 늘어 소득이 높아지면서 개발론자들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또 소위 말하는 ‘김석철 안’이 있다. 김석철 교수(명지대 건축대학원장)는 2002년 <창작과 비평> 겨울호에서 ‘기존의 방조제를 그대로 살려 방조제 안을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라구나(안바다)처럼 만들고 그 주위에 해상도시를 건설해 기존 도시와 연계한 서해안도시공동체를 이뤄 결국은 황해도시공동체의 거점도시로 만들자’는 ‘바다도시안’을 주장했다.

오창환 교수(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등 전남 · 북 지역의 토목 · 건축 · 환경 관련 학과 교수 7명을 중심으로 한 ‘산업도시 안’도 대두됐다. 산업도시 안은 ‘방조제 공사를 중단한 뒤 방조제가 유실되지 않도록 끝 부분을 마무리 해 방조제와 방조제 사이를 교량(현수교)으로 연결하고 축소된 복합단지(1천200만평)를 10년 이내 완성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에 ‘새만금 국제해양관광특구안’도 가세했다. 전국 22개 지역 시민 · 환경 · 노동 · 주민단체로 구성된 산단개혁연대는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예정돼 있는 투자비 3~4조원을 새만금과 인근지역에 투자하면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새만금 국제해양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에 ‘풍력발전소’를 만들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필렬 교수(방송대 과학사)는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되, 지금까지 건설된 방조제에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를 만들자’며 대안을 내놓았다.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총장은 “위 안들에 대해 이런저런 반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방조제 공사 중단”이라며 “이것이 선행되면 신구상기획단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눈길 어디로

삼보일배가 회향한 가운데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2일 새만금간척사업중단을 촉구하며 조계사 앞 천막농성장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단체들은 △6월 국회에서 특별결의를 채택할 수 있도록 대국회 촉구활동 전개 △시민 및 종교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삼보일배 계승 프로그램 마련 등을 향후 활동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런 가운데 환경운동연합 산하 시민환경연구소는 3일 전국 20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조사 결과 국민 66.3%가 간척사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안 모색 방향으로는 방조제는 현 상태로 두고 갯벌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63.1%)하는 것에 가장 많은 표를 던졌다.

문제는 전북도민들의 정서다. 3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새만금사업 논쟁종식 전북도민 총궐기 대회’에 도민 1만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현욱 도지사를 비롯해 41명이 삭발했다. 또 전북공무원 노조 산하 11개 지자체 공무원 450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키로 하는 등 집단행동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쌀이 남아도는 현실에서 애초 추진 목적인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한 농지확보 당위성이 상실됐고, 앞으로 갯벌의 가치가 간척지보다 100배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환경운동연합 장지영 갯벌보전팀장은 “전북도민의 정서를 돌리는 것이 새만금 문제 해결의 시초”라며 “새만금을 중단하면 지역이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하면 발전한다는 이분법적 논리의 타파가 급선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새만금 갯벌’은 환경문제로 풀고 전북 소외감은 정부차원 해결을”

삼보일배 회향후 실상사서 몸 추스리는 수경 스님

관절염 · 녹내장 치료…“좀 쉬고 싶습니다”

‘삼보일배’ 내부평가 거쳐 향후 계획 논의

65일간의 대장정을 끝낸 수경스님의 몸은 종합병원이었다. 평소 앓아왔던 무릎 관절염과 녹내장이 심해져 의사로부터 실명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듣기도 했다. 또한 격렬한 고행으로 몸에서 근육세포가 죽어 빠져나가고 있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도 들었다. 스님은 5월 31일 삼보일배 회향 후 동국대 강남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5일 퇴원했다. 스님은 이야기 내내 힘들어하는 목소리로 ‘피곤하다’ ‘쉬고싶다’는 말을 반복했다.



▲삼보일배는 끝났지만 새만금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만금과 관련해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 일단 남원 실상사로 돌아가 몸을 추스릴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 관절염과 녹내장 등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도 받은 예정입니다. 또 조만간 삼보일배 참가자들과 내부평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최근 강현욱 전북도지사가 삭발 농성을 하고 전북공무원 450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키로 하는 등 새만금 간척 사업과 관련해 전라북도 차원에서 집단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새만금 간척사업이 도민들이 기대하듯 전북을 발전시키는 안이 아닌데도 그러는 것은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외감 때문일 겁니다. 새만금은 환경문제로 풀고 소외감은 정부차원에서 풀어야 할 겁니다.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의 날인 5일 삼보일배에 참석했던 문규현 신부님의 형인 문정현 신부님께서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과 최근 일고 있는 전북공무원들의 집단행동에 항의해 도청 앞에서 침묵단식 농성에 들어갔는데 이 소식을 알고 계십니까?

— 몰랐습니다. 새만금 문제는 삼보일배 회향 후 환경단체에서 역할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당분간이라도 쉬고 싶습니다.

▲삼보일배는 불교계뿐 아니라 전 국민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먼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불교적인 방식의 ‘시위문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삼보일배 이후 우리 불교계가 환경문제를 보는 시각이나 나가야할 방향이라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 삼보일배에 직접 참여한 제 자신으로써는 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라도 불교계 내부에서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몸짓을 보였으니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남동우 기자

혜거 스님과 함께 하는 참선수련회

금강선원 참선수련원(선문장)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불자님들을 위해
'참선수행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기초참선에서부터 화두 드는 법까지를 정리하여
생활 속에서 참선이 이어지도록 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련생을 모집합니다.

1. 대 상 : 대학생이상 남 녀 일반인, 30명 선착순
2. 일 정 (3박 4일)
   - ▶ 1차 : 7월 13일(일) ~ 7월 16일(수)
   - ▶ 2차 : 7월 28일(월) ~ 7월 31일(목)
   - ▶ 3차 : 8월 4일(월) ~ 8월 7일(목)
3. 장 소 : 금강선원 참선 수련원(강원도 홍천 선문장)
4. 참가비 : 오만원(수련교재 및 T-셔츠 제공)
5. 문의처 (신청접수, 준비물 및 교통편 문의)

금강선원(서울 개포동) ☎ 02)445-8484
선문장(강원도 홍천) ☎ 033)433-5845~6

혜거스님 강의안내 화요일(원각경) 수요일(기초교리), 금요일(금강경) 토요일(기초참선)

대한불교조계종 金 剛 禪 院

HAMBAKJAE

함박재 가시오가피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 입니다.



국내 최대 가시오가피 재배자
강 훈 구 대표

함박재 농장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재배한
100% 국내산 입니다.

20년동안 국내산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함박재농장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산56)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다릅니다!

■ 환경부지정 보호야생식물 가시오가피
러시아,중국에서도 국가에서 적극 보호하는 국가보호수입니다.

■ 진품을 구하기 힘든 가시오가피
미국 대체의학의 제1인자인 안드류 와일 박사는 가시오가피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짜가 많다고 경고합니다.

■ 최고의 유효성분을 함유한 국내산 가시오가피
독일 뮌헨대학의 천연물연구소 소장인 바그너박사는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유효성분이 러시아, 중국산보다 4~6배 많음을 발표했습니다.

자매품 함박재 토종오가피
함박재농장에서 재배한 100% 국내산입니다.
1박스 100㎖ x 60포, 132,000원

2년 연속 으뜸상품 선정
한국표준협회,으뜸상품 제3066호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02) 2274-2191

판·검·변호사 등 다르마법우회 동문들

불자 법조인연합회 만든다

이달중 발기인 모임… 7월초 창립법회

동문찾기, 기존단체들도 긍정적 검토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법연수원 다르마법우회 출신 동문들이 불자법조인연합회 결성을 추진한다.

사법연수원 31기 다르마법우회(회장 이홍주, 법률사무소 '사람과 법' 대표)는 이달 중순 다르마법우회 동문을 중심으로 한 '(가칭)불자법조인연합회' 창립 발기인 모임을 갖고, 7월초에 연합회 창립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31기 법우회는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동문 찾기 운동'을 펼쳐 회원 확보에 나서는 한편, 기존의 서초반야회(회장 김동건 서울지방법원장)·불교법조인회(회장 전창열) 등의 참여를 유도해 향후 합동법회 및 성지순례도 진행할 방침이다.

불자법조인연합회 추진은 그간 개별적인 신행활동을 벌여온 이들 단체의 상호 교류활성화는 물론, 불자법조인의 힘을 결집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조계종 포교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 불자회 창립에도 고무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초반야회·불교법조인회 등도 이와 관련,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이들 단체가 회원 노령화라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불자법조인 수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점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법조인회의 경우, 다르마법우회가 벌이고 있는 무료법률상담 활동에 동참하는 것을 비롯해 선후배 법조인과의 만남 장도 마련키로 했다.

불자법조인연합회는 첫 사업으로, 태국·미얀마·몽골·스리랑카 등의 불교권 국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인권·법률 상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매월 한 차례씩 서울 조계사와 안산공단을 현장 방문해 이들의 고충 해결에 나선다. 또 통역과 서류 작성을 위한 실무자원봉사자 모집 활동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이와 함께 '동문 찾기 창구'를 사이버상에 커뮤니티도 개설하고, 서초반야회·수원불자법조인회 등에 협조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창립을 주도하고 있는 이홍주 변호사는 "그간 서초동 법조단지에 함께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불자법조인들이 한 자리에 모일 기회가 없었던 만큼 연합회 추진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연합회를 호법신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신행단체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사법연수원 다르마법우회원들이 서울 조계사에서 벌이고 있는 무료법률상담 모습.

전·의경 찬불가 합창단이 결성된다.

인천공항 경찰불교회(회장 전인배, 이하 경불회)가 지난 5월 23일 공항 내 경승실에서 '전·의경 찬불가 합창단' 결성 준비모임을 가진데 이어 6월 중순에 창립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5월 23일 경불회

전·의경 찬불가 합창단 생긴다

인천공항경불회, 중순께 창립식 거행

는 음경대 경사를 초대 합창단장으로 선임하고 인천 영종도 정도사 합창단을 지도 단체로 위촉했다.

경불회 전인배 회장은 "앞으로 인천·경기 지역의 사찰 법회에서 공연을 벌이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우리 모임에선

불기협, 14일 경기 유마정사서 정기 연수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원우)는 14~15일 이틀간 경기도 광주 유마정사 한국불교수련원에서 정기 연수회를 갖는다. 불교언론사 15개 120여 회원이 참가하는 이번 연수회에서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법장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의 초청 특강, 레크리에이션 강의 등이 진행된다.

은평구청 불심회, 호국기원법회

서울 은평구청 불심회(회장 이길영, 재무국장)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와 함께 3일 서울 진관사에서 제15회 은평구 호국 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운불련, 경기 시흥시 지역회 창립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시흥시 지역회(회장 이동우)가 5월 25일 시흥시 법웅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시흥 지역 개인택시운전기사 20여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이동우 회장은 "뒤늦게 창립된 만큼 이 지역에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는데 최선의 다하자"고 말했다.

화합차원 연합회 규약 재정비

운불련, 연합회장·선출직 대의원제 개선

운전기사불자연합회가 내부 갈등을 초래한 중앙 임원 선출방식과 관련, 현행 총회를 통해 선출하도록 규정한 연합회 규약을 지역별회·부회장단 운영위원회가 선출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또 논란이 돼온 선출직 대의원 수도 지역회별 3인으로 균등하게 할당된다.

운전기사불자연합회(회장 이길풍, 대전지역회장)는 5월 25일 대전 지역회 사무실에서 전체 운영위원회를 갖고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 이번 달 19일 열리는 임시총회에 상정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불련은 현재 지역회원 20명당 1명을 뽑는 선출직 대의원제도가 지역회간 갈등을 조장한다고 판단, 이를 회원 수와 상관없이 전국 23개 지역회별로 3명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간 군소 지역회가 회원 수에 따른 대의원 선출 방식으로, 줄곧 연합회장 선출에서 소외돼 왔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연합회장 및 수석부회장 등은 불필요한 내부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회장과 부회장단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운불련이 이처럼 규약 개정에 나선 이유는 연합회장 선출을 놓고 보인 운불련의 양분 위기 사태를 제도적으로 풀기 위해서다. 이는 대의원 수가 많은 일부 지역회가 연합회장직을 도맡는 폐단을 막고, 군소 지역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된다.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이길풍 회장은 "이번 규약 개정안은 연합회 산하 지역회의 균등한 참여에 중점을 둬 입안이 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불련의 화합을 위해서 회장직을 사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단체장



26일 조계사서 정기법회

조윤제 청와대 불자회장은 오는 26일 서울 조계사에서 정기법회를 열고,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으로부터 법문을 듣는다.



제4차 합동수계법회

노옥섭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은 8일 경주 황룡사지에서 서울 대성사 조실 도문 스님을 계사로 제4차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했다.



28일 호국영령 추모법회

조진규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 의장은 28일 서울 강남 봉은사 법왕루에서 6월 호국의 달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추모법회'를 봉행한다.



국세청 보리회 신임 회장에

이준성 서울 성북세무서장은 5월 16일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신임 국세청 보리회 장으로 선출됐다.

우리불자회는요

마산시청 공무원불자회

'공무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권위'와 '딱딱한 인상'이라고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왜 그럴까요? 아마도 공무원은 남을 잘 믿고 법대로 처신한다고 여기셨겠죠. 맞습니다. 우리 불자 공무원들은 남을 믿고 정해진 순리대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부처님 법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봉사'와 '공익우선'도 우리 불자 공무원이 갖추고 있는 큰 덕목이지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국민의 복리를 위한 것이기에 한시도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창립법회는 지난 2001년 10월 17일 마산 정법사에서 봉행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부처님 법문을 올바로 배워서 시정에 실천하고자 뭉쳤던 거였습니다. 자기발전을 위한 공부의 차원을 넘어 내 자신이 주춧돌이 되고자 했습니다. 또 시정 발전에 큰 힘이 되고자 50여 불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불자회의 자랑거리는 단연 사찰 현장학습입니다. 연중 2회이상 실시되는 사찰 현장학습은 삼사순례를 통해 이뤄집니다. 회원 및 가족, 비회원에게도 부처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병아리 불자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불자회원들은 '초심불제자' 특유의 뜨거운 불심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벌여 왔습니다. 창립1주년 기념법회 때, 마산시청 시장님 등 많은 축하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전회원의 뜻을 모아 우리불자회의 신행원찰인 마산 정법사에 중창 불사금 100만원을 보시했습니다. 올 6월에는 1박 2일로 도내 전통사찰인 통도사에서 가족과 함께 '산사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 만물이 생동하는 초여름 산사의 정적 속에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새벽 예불 후 신선한 아침 공기속에 학인스님들의 목탁소리에 맞춘 삼보일배 정진은 배움의 서원을 다지는데 충분했습니다. 이뿐인가요? 관내 자비정사에서 운영하는 중리복지관에 불우이웃돕기성금 50만원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불심도 피웠습니다.

또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자체 홈페이지(www.mb108.or.kr)를 제작해 회원간의 친목을 다지는 사이버공간을 확보하고, 부처님 법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올 부처님 오신 날에는 기쁨을 같이 나누고자 '부처님 떡'을 청 내 모든 사무실, 전사업소, 읍·면·동 100여 개소에 보시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총무·섭외·교무 3개부에서 개별 소년소녀가장세대와 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에도 삼사순례, 부처님 오신 날 행사준비, 창립법회, 순회법문, 송년의 밤, 불우이웃돕기등 각종 행사의 내실을 기하고 전회원이 수계식을 통하여 법명을 받아 오계를 지키며 부처님법을 배우고, 또 배우고자 합니다.

■권미옥 총무

"부처님법 바로 배워 市政에 힘 모으자"

년 2회 3寺 순례, '소년가장'과 결연 추진



◇마산시청 공무원불자회원들이 지난해 12월 열린 '송년의 밤'에서 불자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修行에만 專念할 修道僧을 모십니다

諸方의 큰 스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참된 修道僧으로 模範된 修道僧이 될 승려들을 推薦해 주십시요.
禪 修行에 專念하려는 굳은 意志로 一貫하는 禪僧을 모십니다.

- 3年을 授業年限으로하고
  어디에서든지 禪修行을 할 수 있는 基本 敎育 指導
- 宗敎로써 佛敎 信仰의 方法論
- 佛敎 空思想의 禪哲學 指導
- 禪修行의 實修法 指導
- 資格 審査 選別로 合格者만 入房 시킴, 于先 10名 정도 募集하고,
  앞으로의 動向은 紙面을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諸方의 禪客들은 서로의 禪 탁마를 위해서 많은 來訪을 주십시요.

耕心會는
禪體驗에서 自由自在한 禪生活을 할 수 있는 禪僧 輩出의 目的을 두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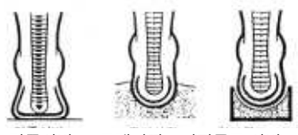
耕心會 禪修行 指導法師 通度寺 侍塔殿 住錫 皓溟 老스님
(직통) ☎ 055-382-3225 (연락처) 017-565-0052
雲興寺 住持 兼 耕心會 禪院長 野 隱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고련리 1699-1 ☎ 052-260-2317

수행자를 위한 건강 코르크 수제화신발 "권行"

스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스님전용신발 "만행"

길없는 길위에 서 있는 수행자들만을 위한
전용신발 - 권 行 만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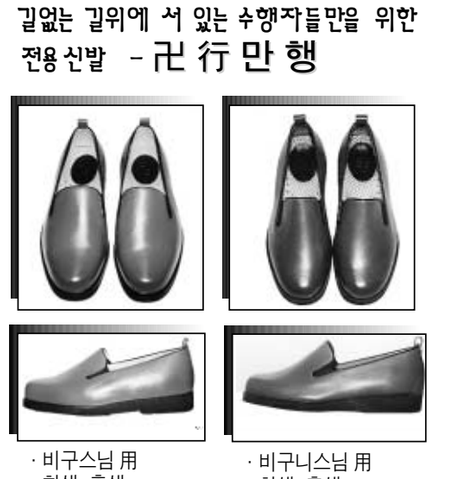


◆구 조 : 反射原理(반사원리)로 만들어 졌습니다.

사람의 발바닥과 발에는 63곳의 반사점(경혈)이 (피츠제너럴드:반사이론)(약식건강법) 있습니다. 이 반사구에 적당한 마찰이 가하여 질때 집중된 말초신경의 에너지 순환작용을 활성화 시켜 질병은 현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가장 탁월한 예방의학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신발 만행은 발의 반사구를 골고루 밀착 자극하여 주는 인체 공학의 설계와 천연 코르크의 뛰어난 특성과 최고급 피혁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신고 걷는 사람의 체중과 적합한 조화가 이루어 지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기능 : 循環原理(순환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체에는 혈관의 종횡 무진으로 뻗어 있고 이 혈관을 크게 나누면 동맥·정맥·모세혈관의3가지로 구분합니다. 동맥은 영양과 산소를 나르고 정맥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나르고 모세혈관은 동맥이 운반해 온 것을 신체 구석구석의 세포로 건너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정맥으로 나릅니다. 어느 기관의 부위가 불건강하면 그



· 비구스님 用
· 회색, 흑색

· 비구니스님 用
· 회색, 흑색

순환기능이 반드시 불량 현상을 일으켜 말초신경 및 지구인력의 작용에 의하여 노폐물(요산화합물)이 무릎 위 10cm까지 고이게 됩니다. 그때 발의 반사구를 적절히 비벼주거나 자극을 가하면 신장등의 배설기관에 의하여 쌓여있던 노폐물이 체외로 배출되어 집니다.

건강신발 권行의 특 징
1. 구두안쪽의 특수 안창은 천연코르크로 만들어졌습니다.
2. 건강신발은 바닥안창이 발바닥 굴곡 그대로 설계하였습니다.
3. 운동부족으로 인한 평발예방, 관절과 디스크 보호,
4. 신장기능개선

구입문의 031)742-0296.742-0297
권 行 합 장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 1동 661번지

중·고등학교 역사 교육의 기초가 되는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역사 영역의 불교사 관련 서술에도 적잖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불교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안지원(서울대 강사)씨는 5월 31일 열린 제46회 전국역사학대회에서 '초등학교 교과서의 역사 영역 서술과 문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씨는 2001년부터 쓰이고 있는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교과서의 역사 영역을 검토대상으로 삼았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조상들의 종교생활'을 서술한 5학년 2학기 '사회과 탐구' 교과서. 우리 민족에게 영향을 끼친 종교로 불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크리스트교 등을 들면서 다른 종교에 비해 불교의 기본 교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인도의 조그마한 마을에서 태어난 석가모니가 창시한 종교'라는 것이 전부다.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불교사 서술 오류 많다

안지원 씨 주장

역사적 사실의 왜곡도 심각하다. 같은 교과서 '불교의 발전'이란 소주제 밑에 소개된 '이차돈의 순교'를 보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나오지 않는 '어린 시절 고구려에 가 승려 생활을 했다'는 내용이 버젓이 실려 있다. 춘원 이광수가 1935년 조선일보에 연재했던 순수 창작소설 <이차돈의 사(死)>의 내용을 역사적 검증도 없이 정사(正史)인양 그대로 실었다는 것이 안씨의 설명이다.

또, 6학년 1학기 '사화와 탐구' 교과서의 '삼국의 불교 수용'은 5학년 때 배운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으면서 암기해야 할 인명만 잔뜩 늘어놓아 '불교는 지겨운 것'이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씨는 "역사적 지식이 깊지 않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과서 집필시 우선 참고하는 것은 초등학생들을 위해 발간된 불교 관련 책자들"이라며 "<초등학생들을 위한 불교 교리서> 등 초등학생들이 볼만한 참고자료 제작에 불교계가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한국비구니스님 주제 첫 국제학술대회 연다

내년 5월 20~22일 안양 한마음선원서

한국 비구니 스님들의 삶과 수행전통에 세계 불교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한국 비구니의 삶과 수행에 대한 역사적 조명'을 주제로 한 최초의 국제 학술대회가 내년 5월 20~22일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한국 비구니 승단의 수행 전통을 조명하는 본격적인 계기가 될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지난해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아시아학회 연례회의(AAS)에 '한국 비구니에 대한 연구' 분과가 처음 열린 데서 출발했다. 이 대회에 참석했던 로버트 버스웰 교수(미 UCLA)와 바바라 루쉬 콜롬비아대학 중세일본연구소장, 미국 조지아 대학 이향순 교수 등이 의기투합해 국제학술대회를 제안했고, 최근 한마음선원이 주최를 맡아 대회 일정을 확정했다.

한·미·영 등 국내외 학자 20~25명 참가

비구니 승단 역사·조직·수행전통 등 조명

김영태(동국대 명예교수) 심재룡(서울대) 최병헌(서울대) 교수 등 국내 학자 10여명과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 등에서 한국 불교를 연구하는 해외 학자 12명 등 20~25명의 참석을 주최 측은 계획하고 있다. 한국 비구니 승단을 독립된 주제로 삼아 대규모 국제학술대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이처럼 한국 비구니 승단에 세계 불교학계의 관심이 모이는 것은 양성평등의 세계적 흐름 속에서 매 안거 때마다 800여 명의 비구니 스님이 안거에 들 정도로 한국 비구니 승단이 수행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7월 초순까지 발표자와 논문 주제가 확정돼야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한국 비구니 승단의 역사와 조직, 수행전통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연구,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가르침과 수행에 대한 연구 등 3~4개의 그룹별 주제 발표가 있을 전망이다.

대회 준비를 돕고 있는 동국대 교수 혜원 스님(선학과)은 "한국 비구니에 대한 구미 학자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연구 성과와 자료 축적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한국 비구니의 역사와 수행전통에 대한 자료를 정리함으로써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도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조선불교통사'는 불교백과사전

한·중·일 방대한 자료 인용… 내년 7월 완역

碑銘 번역할땐 너무 어려워 저절로 '悲鳴' 나와

불교문화연구원 '조선불교통사' 연구팀

<조선불교통사>가 완역된다. 1918년 이능화(1868~1943)가 펴낸 <조선불교통사>는 2천302면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에 우리나라 불교사 관련 자료를 총정리한 역작. 3권2책으로 된 이 책은 자료적 가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역이 없었다.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곳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서윤길)이다. 법산 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을 연구 책임자로 효탄스님(고려불교), 김진무(중국불교), 한상길(조선불교), 김치온(유식학), 류화송(문자성운학) 등 5명의 박사와 4명의 박사급 연구보조원이 지난해 8월부터 원문 번역과 역주 작업을 해오고 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내년 7월까지 진행될 계획. 중권까지의 번역과 상권 일부의 역주를 마치고 5월 29일에는 중간보고를 겸한 학술대회를 가지기도 했다.

번역팀장을 맡고 있는 김진무 박사는 "<조선불교통사>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역사서는 물론 고승전(高僧傳)과 전등록(傳燈錄), 문집, 각종 금석문, 사찰의 사적기 등 방대한 자료를 인용하고 있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번역과 역주를 할 수 없는 책"이라며 "한국불교와 관련된 종합백과사전이라 할만하다"고 말했다.

단순 번역이 아니라 인용문의 출처를 조목조목 찾아 밝히다 보니 2년도 긴 시간이 아니다. 특히 금석문 중에서도 한시 형태로 된 비명(碑銘)은 생략과 함축이 많아 "비명(碑銘)을 만나면 진짜 비명 나온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이 덕분에 얻은 성과는 만만치 않다. 종합자료집으로 불릴 만큼 방대한 자료가 인용되다 보니 이 목록을 정리하는 것만도 한국 불교 연구의 기초 자료 확보라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한상길 연구원은 "상권과 중권에서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서술 분량이 32%를 차지하고 인용된 전거만 8종 130건에 이른다"며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미진했던 조선시대 불교 연구에도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법산 스님은 "<조선불교통사>는 중국, 일본에서도 한국 불교 연구의 필수 지침서로 평가하는 자료"라며 "불교사를 넘어 한국 불교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절(9)

석굴사원에 대한 열망

인도의 기후는 매우 더운데다 습기까지 많이 머금고 있다. 이러한 기후 조건을 견디려면 산중턱에 석굴을 뚫어야 시원한 예배장소가 된다. 인도의 석굴사원은 인도만의 독특한 자연환경에서 비롯된 산물이다. 그러나 석굴사원은 인도에만 머물지 않고 실크로드를 따라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으로 퍼져나갔다. 석굴사원은 더 이상 기후의 산물이 아니라 문화의 산물이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다. 우리는 인도처럼 암반이 넓게 발달하지도 않고 또 인도처럼 부드러운 사암도 아닌, 좀처럼 정이 들어가지 않는 견고한 화강암이어서 깊은 굴을 뚫는다는 것은 엄두를 낼 형편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석굴사원을 만들었다. 인도나 중국처럼 광대한 규모가 아니고 온전한 석굴도 아니지만 석굴사원의 형식과 분위기를 내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네모난 돌기둥에 각 면마다 불상을 새긴 사방불이다.


◇예산화전리사면석불(보물 제794호). 석굴사원의 변형으로 탑주 부분만 돌로 되어 있고 그 주위는 목조건물로 씌웠다.

석주에 불상-목조건물 덮어 석굴모습 갖춰

기하학 원용 산중턱에 돌 쌓아 석굴암 조성

원래 인도에서는 챠이티야(caitiya)라 하여 말발굽 모양의 길쭉한 석굴 끝에 반구형의 스투파를 설치하였다. 시대가 내려오면서 석굴 안의 스투파는 바깥에 불상이 새겨졌고 급기야 엘로라 석굴(Ellora Cave)에서는 네모난 돌기둥이 출현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의 석굴사원에서는 바로 엘로라식으로 석굴 가운데 탑주(塔柱)라 하여 천장까지 닫는 네모난 기둥을 세우고 동서남북의 면에 불상을 안치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탑주 형식은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중국처럼 석굴을 뚫는 일이 여의치 못하자 네모난 돌기둥에 불상을 새기되 그 위는 목조건물을 씌워 석굴사원의 모습을 갖추었다. 예산 사방불, 경주 굴불사지 사방불상, 경주남산 칠불암 등이 그러한 예이다. 석굴사원의 형식을 따랐지만, 반은 석굴사원이고 반은 목조건축인 것이다.

석굴암도 마찬가지이다. 석굴을 뚫을만한 자연조건이 되지 않자 굴을 뚫는 대신 산중턱에 돌로 굴을 쌓아 올려 석굴사원을 조성하는 지혜를 발휘하였다. 더군다나 석굴암은 인공적으로 쌓은 석굴이기에 신라의 정밀한 기하학으로 구성하여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창출할 수 있었다. 이미 일제강점기 때 요네다미요지(米田美代治)가 그 기하학적 원리를 발견하였고, 강우방 교수와 문명대 교수가 그 기하학적 원리를 불교 교리와 연계시켜 해석하려는 시도를 행한 바 있다. 그리하여 인도에서 시작된 석굴사원의 형식은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거쳐 한반도의 끝자락인 신라에서 마감하는 석굴사원의 벨트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석굴사원에 대한 열망은 인도와 다른 자연환경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꿩 대신 닭이라고 석굴이 불가능하자 석조와 목조를 혼합하여 사방불 중심의 금당을 만들었고, 치밀한 기하학적인 원리로 석굴암을 세계에서 가장 조화롭고 아름다운 석굴사원으로 만들었다. 사방불과 석굴암. 이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석굴사원에 대한 열망이 강한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 광고문의
TEL 02)732-1522 ,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0×4.2)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계, 탱화 업계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법회 기도

지장사 안내
영혐이 대단하여 속 성취 됩니다.
전반적인 **인생상담, 운세, 운명, 천도재** 받습니다.
잘 사십시요.
02)981-8418
02)907-1643
018-325-8802

영가천도후 확인을 한다면 시원하시겠지요
천도중 거의 확인시켜드립니다.
▷포천군 관인면 냉정1리
031)532-6661
해 원 사



구인 구직

산세수려한 사찰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지낼
보살님이나처사님들은
연락바랍니다
(운전면허 1급 소지자 환영)
052)254-5125

처사님과 보살님
절일 도우며 평생을
수행정진하실분을
모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보광선원
051)973-7158

비구니 스님과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천일을 기도하실 스님)
▷52세 이하
▷용천사
016)521-0003
054)975-0003

심야전기 온돌
▸전기온돌은 우리전통의 온돌방식을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현대화한 바닥 난방방식으로 따끈하게 데운 방바닥의 열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난방비는 기름값의 30%
● 축열식 전기 온수기
● 축열식 전기 보일러
● 축열식 전기 온풍기
● 원적외선 전기 온풍기
● 온수식 온돌 판넬
한전승인업체 설계시공 A/S 상담
남강기전 02) 338-0400

공부하며 기도하실
비구니 부전 스님을 모십니다
▷북한산 용암사
02)387-3216
011-9782-321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고양시 덕양구
(숙식가능하신분)
019-211-8533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61)782-9870

창건도량에서 함께 기도하실 스님 찾습니다
011-259-5989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576-273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031)584-1541
011-9723-096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경북 영주시
시내중심에서 5분거리
054)636-3996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육효, 대정작괘법 관상, 풍수지리
■ 기간 : 수시모집
■ 강사 : 30년간 청운역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청운 엄운문선생이 직접 강의합니다.
※ 교재는 이석영선생저서 사주첩경으로 강의합니다.
저서 명학비해격국용신론을 위시로 30여권을 저술 하였음
안국동 한국일보옆
청운역학원 02)723-7449/011)9638-8229

철학에 자신있는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서울포교원
02)2201-0796
011)204-2522

산사에서 함께 지낼
공양주보살(2人),
처사님(1人)모십니다
▷강원도
011-361-5055

무보시로 간병을
해드립니다
▷남자
02)923-6783

노후만 보장되면
부처님 시봉하면서
스님과 함께 암자를
운영하실 보살님
찾습니다
031)532-6661

주지소임을 원합니다
스님필요하신
사찰은연락주십시오
054)751-1058
011-883-0054

조계종 기도 스님 모십니다
▷ 경남 진해
055)552-5111

천도재 구병시식
수자령 영가천도
● 수시 접수 中
● 수자령 영가천도재는 9月예정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易 수강생 모집
무료 공개 강좌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듣기만 해도 암기됨, 감명비법공개
★사주프로그램 공급 ☞ 신살 암기 안해도 됨
◆ 초보, 전문, 속성반 ◆ 명리, 육효, 성명, 택일...
◆ 사주로 영가찾는 법, 개운법 (흉을 길하게)등
※ 창업,취업,전화상담 가능, 자격증 발급
효천역리학당 ☎(02)2236-2284

곰보배추
(오래된 천식,폐병,부인병)
초오부자탕
(디스크,요통,관절염,신경통)
부자탕
(손방냉증, 하체냉증)
※필요하신분 자료보내드립니다.
011-748-7604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연 화 사 · 법명 : 원 경(박영숙)
·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1동 348-2
상기 승려는 귀 종단의 종풍이 맞지않아 대한불교 화엄종에서 탈종을 공고 함
불기 2547년 6월 2일
대한불교 화엄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금 화 사 · 법명 : 혜법
· 주 소 : 경남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43-1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풍이 맞지않아 대한불교 법왕종에서 탈종을 공고 함
불기 2547년 5월 282일
대한불교 법왕종 총무원장 법하

氣 수강생 모집 功
中國秘傳十八代傳人 직접 지도
▶ 개 강 : 6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 수련시간 : 오후 5시~7시 (2시간) 시간조정가능
▶ 치료병행 : 각종 남어 난치병 (중풍, 당뇨, 신경통 등)
▶ 초능력 개발
▶ 고급 기공 비법을 선별하여 전수합니다.
접수문의 : 02)935-2728 / 017-208-2866
위치 : 상계역에서 마을버스 484번 종점 하차

운세..통화 즉시 잘 맞추면 보세요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02-826-5067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되는일이 없습니다. 명리학으로 찾아드립니다. 굿, 부적 등 부담되는 일은 일체 안합니다
• http://www.speedunse.com 에서 핸드폰 / 신용카드결제 가능합니다.

생활불자정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천하 명당 별장지 안내
서해안 고속도로 충남 당진 IC에서 15분 거리.
상류층 별장 선호지역
예로부터 천하 명당으로 알려져 삽교천이 멀리 앞을 휘감고 백두대간 정기 받은 호서지방 명산 가야산에서 두둥실 내려와 이곳 봉암산에 뭉쳐 머무는 곳.
▶ 평수 : 총 860평 중 건평 280평 허가 받아 법당 40평 요사 35평, 창고 15평, 차고 8평, 용왕전 10평으로 총 108평
▶ 주차 : 주차장 1, 주차장 2, 총 100대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5억5천만원
주소 : 충남 당진군 면천면 문봉리 1구 (정문식)
연락처 : 016-289-1187 / 041-356-1187

사람을 찾습니다

· 성함 : 범옥균 · 성별 : 남
· 나이 : 56세 키 : 165cm
· 특징 : 언어 청각 장애가 있음
· 전남 옥과 성륜사에 계셨는데 어떤스님이 모시고 가셨음.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었음. 가족이 애타게 찾고있습니다
※ 후사 : 200만원 사례하겠음
017-653-1077
011-9723-1043

동양학 수강생 모집
고금의 역학자료를 구비 동도들의 학문연구를 지원하고 있는 본원에서 다음의 강좌를 개설합니다.
◆ 개강일자 : 7월 1일(주1~2회 강의)
◆ 강의실관계상 각 과목당 12명만접수
☉ 태을 : 무료 강의 – 엄태문선생 (교재구입시 1년 강의)
☉ 풍수 : 월 10만원– 허정수 선생 (6개월과정)
☉ 명리 : 무료강의– 엄태문 선생 (3개월과정)
☉ 육효 : 월 10만원 – 소명호 선생 (3개월과정)
역학도서관 www.edoseo.com
02)3673-3403 / 011-229-2801

道法(易) 전수
인간사 모든 문제들을 묻는 즉시 답할 수 있고 배우는 즉시 활용할 수 있으며 질병 치유는 물론 運을 좋게 할 수 있는 道法(易法)을 전수합니다.
易. 氣功 교육원
02)3446-4118

사주명리학 수강생모집
☉ 사주 · 신수 · 궁합 · 택일 · 작명 · 방위 · 적성 · 기타
☉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출장강의도 가능함)
☉ 주 2회(1회 2시간씩) 4개월 완성
☉ 수료후 부업, 개업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 제공
(배우실 분 수시모집, 결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한국 명리 교육원
02)336-8484. 335-4847

이화 기와 공장
청기와. 한식기와
세멘기와. 칼라함석
041)554-0112 / 011-9820-0112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옆

2002년도 『현대불교 합본집』 발간!
02)737-0090, 02)737-8881 / 팩스 02)737-0697
※ 2002년 이전 합본집은 50,000원(발송비무료) 한정 특가 판매

중풍(뇌졸증)고혈압 해결책 보인다
100% 한방생약제제 **안티 하이퍼** Anti-hyper
한국인의 사망율 1위
: 고혈압 및 상관된 질환인 뇌졸증 · 심장마비 · 협심증 · 심근경색
안티하이퍼(Anti-Hyper) 복용이 꼭 필요한 사람
· 고혈압환자
· 협심증, 뇌졸증(중풍), 동맹경화증, 심근경색환자 및 동 질병 예방
· 약물(신약)의 각종 부작용이 염려되는 사람
·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
·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다리(下肢)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한 사람



- 개발약사 약력 -
▶1941년 2월 5일 경북 상주 출생
▶1965년 효성카톨릭대학교 약학과 졸업
▶1997년 홍채학 연구소 설립
▶현재 대체의학, 분자 교정의학, 체질영양학 연구 겸 새한빛약국 (반석 당뇨 연구실) 경영중
▶저서 : 21세기 만성 난치성 피부병

2달분 258,000원
구입신청 033-255-5669 오리엔탈제약(주)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반야심경 8폭 병풍 후면 달마그림 특별 할인 보급



100% 경면주서로 쓴 반야심경 | 달마도
2000년 대통령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붓자 용자)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 (달마대사) 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홍대미술대학원 졸업 서울미술문화상 수상
전통반야심경 · 전통사경 전수 무료 직접지도(매주 금요일)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FAX (033)766-0058
www.ungangsa.co.kr E-mail unjang21@kornet 21. net
※오방의 기가 강하게 흐르는 덕회산 운장사 원만성취 영험기도도량
● 주문신청방법 우체국 201509-01-002545 운장사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영험기도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韓國佛敎藝術文化院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德雲스님의 하계 大 특강
사암도인의 活人法!!
태고종 '덕운스님'의 열정적인 강의!!
'덕운' 스님은 활인의 도를 닦기 위하여 30여년동안 '사암도인 活人法'을 연구하셨으며, 현재 '덕운선원'과 '동양의학방송국'을 통하여 '사암도인 活人法'을 알리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에 오랫동안 연구, 발전해온 '사암도인 活人法'을 공개강좌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펼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사암도인 活人法'을 통하여 불도를 전파하고자 하시는 스님과 불자님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강좌안내	(각 과목 2개월 완성)
** 개 강 ** 2003년 7월 2일부터 (2개월 과정)	* 매주 월요일 6시간 : 방제학 * 매주 수요일 6시간 : 진단학 * (오전10시-12시, 오후2시-4시, 오후7시-9시)

덕운선원 / 동양의학방송국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67-3호 / 사당역 11번 출구에서 5분거리
동양의학방송국 : (02) 3487-2311 / 홈페이지 : www.dytv.co.kr

명가의 명향 - 석씨향방
울향, 침향, 단향, 유향, 감송향, 사향, 육계, 안식향, 용뇌, 목향, 뢰향 외 기타 등등의 최고급 순수 향약재만을 사용합니다.
석씨향방은 최고의 제품만을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오분향 - 각종 기도와 제사용)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 · 지신 · 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세균번식 억제)
– 공포를 느낄 때(사기 · 요마 · 귀신 · 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 의식용 목욕향도 있습니다 ◆



生氣香(생기향 - 건강용)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눈이 맵거나 목이 아프지 않으며
– 마음을 편한하게 해준다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고
– 건강에 도움을 주며
– 불쾌한 냄새, 흡연실 담배냄새 제거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당뇨 · 중풍 · 폐 · 간 · 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였으며, 화공약품은 0.1%도 안넣은 천연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 석씨향방의 캠페인 ●
건강을 위해 천연향을 애용합시다.
☎02) 538-7161
http// : www.hyangga.com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 법당 : 36평 / 요사 : 150평 / 부지 : 755평 / 가액 : 25억
- 위치 : 충남천안 / 법당 : 25평 / 요사 : 95평 / 부지 : 300평 / 가액 : 3억 7천
- 위치 : 경기가평 / 법당 : 15평 / 요사 : 40평 / 부지 : 1890평 / 가액 : 10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천도재, 불공등 임시로 스님 필요한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387-0361
016)428-6665

참을 수 없는 통증

어떠한 병증세에도 골반용명 압찰법과 함께하는 기공치료로 치유될 수 있읍니다

02)924-9904
011)254-0784
태극기공치료원
거사 해암 합장

상 담 환 영
개 인 지 도
스님할인혜택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성북구 / 대지 : 2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25평 / 가액 : 11억
- 위치 : 용인 / 부지 : 25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100평 / 가액 : 10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大육임 수강생 모집

오행운명가(五行運命家)활인역자(活仁役者)로서 참 진인(眞人)이 되기 위한 필수학. 인사만단의 오천년(五阡年) 비전 육임학

참고교재 六六六六六六 壬壬壬壬壬壬 大探類秘精神 全原聚妥解課

본 학회는 정통 육임학 이수자에 대한 수강인 선별을 통한 강의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정통이론과 실제임상의 완벽한 조화를 통한 실사구시의 강의. 초급반, 지도자반을 별도 구성하여 강의 합니다.

문의처 : 02)393-2471 난강학회(欄江學會) 登明 서 정길(徐 正吉)
강의처 : 지하철 2호선 이화여대역 3번 출구앞. 난강학회
www.nankang.co.kr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강남 / 부지 : 1000평 / 법당 : 80평 / 요사 : 200평 / 양도가 : 40억 / 주차시설 및 산세좋음
- 위치 : 강원도 문막 / 부지 : 5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70평 / 양도가 : 4억 / 계곡 및 산세좋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08-5037/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노원구 수락산 부근 전철역에서 3분거리
- 부지 : 약 320평
-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주차 10대
- 가액 : 2억 5천만원

011)9024-4843
02)3391-4845

포교원 안내

- 위치 : 일산신도시. 앞뒤로 아파트단지, 주엽전철역150m
- 3층 건물중 3층, 25평, 방 1개
- 시설 A급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2천 3백만원
- 철학관으로 적합

031)919-0306
011)9701-0603

토굴 안내

- 위치 : 강원 원주시 흥업면
- 건물 : 30평
- 임법당 1개, 큰방 2개, 거실, 욕실
- 가액 : 건물만 1천 5백만원

033)762-5220

수련원 안내

- 경남 함양군 백운산
- 토굴, 수련원 적합
- 터 1만5백평, 대지 200평, 가 32평 포함
- 차량진입, 연못, 전기 · 전화 유
- 산세수려, 전망수려함
- 평당 2만원

055)943-7879

민속불교백화점 (체인점도 모집합니다)

금불상, 목불상, 옥불상, 금탱화, 서적
승복, 신복, 유기, 도자기, 농악복일절
북, 장구, 재징, 매구, 민속국악기일절

전국 어디든 체인점 개설을 지원합니다.
노후 생활에 최고의 사업을 원하십니까.
년 1조원시장에 달하는 불교 / 무속용품 체인점 사업본부에 문의바랍니다.
전 화 : 031)480-4848, 031)417-4848
팩 스 : 031)480-8549

사찰 안내

- 위 치 : 창원 동읍 / 대 지 : 205평 / 법 당 : 15평 / 요사채 : 20평 / 가 액 : 1억3천 ※마을 상단, 차 진입
- 위 치 : 포항근교 / 대 지 : 2200평 / 법 당 : 30평 / 요사채 : 75평 / 가 액 : 10억 ※ 세계유명불상사찰
- 위 치 : 부산근교 / 대 지 : 200평 / 법 당 : 20평 / 요 사 : 30평 / 가 액 : 3억 ※ 범어사에서 20분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08-7570 / 018-563-9575
홈페이지 www.boolguk.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 제일 요지 포교당
- 신축 빌라 24평
- 방 3개, 법당
- 가액 : 융자안고 2400만원
- 내집마련 겸 포교당 적합
- 권리금 없음

032)541-9428
011)9642-1202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여수시 돌산읍내 105번종점(바닷가 옆)
- 대지 : 507평 법당 (2층), 28평(1층) , 방 2개
- 요사채 36평, 공양간 및 방
- 가액 : 2억 3천만원(조정가능)

011)609-1106
011)9611-2717
야간 : 062)529-2717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 경기도 승마공원 입구
- 부지 : 1,293평
- 건물 : 53평, 25평, 17평 3동
- 서울에서 50분거리
- 특징 : 산세수려, 전망좋음
- 가액 : 3억 8천만원

※ 부지 1만평, 평당 7만원 사찰터도 있음
031)533-2420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이천시 대포동 서울서 45분거리 이천시내서 5분거리
- 2010년 전철 완공
- 대지 : 188평, 법당 23평, 요사 37평
- 가액 : 1억 7천만원

011)9142-3737
031)634-2136

스님 · 불자님 고민 삼환이 해결해 드립니다

임법당, 요사채, 신축 및 보수, 조립식 부속건물 신축, 동기와, 토기와, 비새고, 허물어진 토굴, 칼라성형강판으로 교체, 70년 보장. A/S 확실
전국 어느 곳이나 무료견적 시공 상담.

삼환 주택 개량 공사
경북 사무소 : 054-292-7613
울산 사무소 : 052-262-0601
휴 대 폰 : 011-9307-0609

사찰 (토 굴) 안 내

- 위치 : 신림동 / 부지 : 6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2평 / 가액 : 5억5천
- 위치 : 서울 / 부지 : 18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60평 / 가액 : 6억5천
- 위치 : 경북고령 / 부지 : 200평 / 법당 : 36평 / 요사 : 170평 / 가액 : 4억2천

※ 사찰(토굴)양도 · 양수 상담 환영
서방불사 011)9851-5952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시내 위치
- 종교용지 : 436평
- 법당 : 10평
- 산신각, 칠성각
- 요사채 : 30평
- 가액 : 2억 7천만원
- 조계종 승려에 한함

011)9581-6044

사찰 안내

- 대구시내 위치좋음
- 2층건물중 2층. 현대식건물
- 법당(2층), 산신각 총 28평
- 요사채(1층) 총 45평
- 대지 105평. 뒤는 야산
- 특징 : 잘 지은 절
- 가액 : 3억 3천만원

011)226-2880

사찰 안내

- 경남 밀양시
- 대지 : 50평
- 임법당, 법당,부엌,광, 방1, 샤워실, 화장실
- 정원공사가 잘 되어있음
- 불자 동네임
- 가액 : 2천 5백만원

055)391-0043

사찰 양도 안내

- 위치 : 경기 이천 장호원 소재 5분거리
- 대지 : 527평
- 건평 : 113평, 법당 (27평)
- 사무실, 요사, 주방, 고시원, 방 18개 운영
- 가액 : 답사후 결정
- 교통좋은 산을 낀 취락지정 시가지의 요충지

031)643-9051
019)375-9051

신축사찰 안내

- 대구 팔공산 파계사 西 3km. 동대구 20분 2차선 포장도, 주차장.
- 대지 210평, 재소밭 110평 합 320평
- 건물 : 목조형 기와집, 철근 콘크리트조. 2002년 11월 준공
- 1층 : 객실방 3간, 큰거실, 중앙계단실, 욕실, 응접실, 내실, 주방, 보일러실(심야전기, 기름전용)
  2층 : 법당, 중앙통로, 주지실 방 2간, 거실, 욕실
- 특징 : 요산요수, 수려한 자연환경, 앞은시냇물. 북편은 竹林병풍. 확트인남향. 한쪽의 동양화. 그림같은곳
- 가액 : 현지답사후 결정

053)983-9933

秘傳 大六壬 역학 전수반 모집

인간사 길흉 적중률에서 神의 경지인 역학위의 최고 역학!
미국 하버드대학 동양학 연구소에서도 연구중임 六壬學
집중 책임지도(기초에서 고급활용까지)

고 려 육 임 학 회

· 서울지회 : 02)826-0179
· 대구지회 : 053)641-2334
· 대전지회 : 042)525-3880 (011-588-5496)
· 인천(부천)지회 : 032)655-7853
· 부 산 지 회 : 051)783-6049
· 각 지역은 가까운지회에 연락요망

포교당 안내

- 청주시내 위치 좋음
- 3층 건물 중 2층, 실평 50평
- 법당, 큰방3, 거실, 주방, 샤워실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 1천7백만원(시설완벽)

043)272-0147

사찰터 안내

- 위치 :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 부지 : 10, 500평
- 절부지 3천평, 건평 74평
- 가액 : 8억 5천만원

011)202-7253

포교원 안내

- 위치 : 성남 남한산성 전철역부근 3층 건물중 2층
- 법당 20평, 방1, 도시가스
- 삼존불, 부처님 3분, 후불, 신중
- 보증금 5백만원 , 월 50만원
- 시설비 : 7백만원

031)732-0471
016)265-2762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충주시
- 법당, 지장전
- 대지 : 330평
- 가액 : 1억 5천만원

011)9829-7807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민락동 광안리 해수욕장 옆
- 평수 : 55평, 법당 1, 주방 1, 방 4, 화장실 2
- 주차장완비, 포교당위치 최고A급,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5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상담후 결정
- 스님 사찰 불사관계로 이사감

011)595-1522/051)759-9058

소승은 연명관계상 장래사찰운영이 걱정되어 사심없고 진실된 비구니 스님에게 사찰을 인계코저 하오니 연락바랍니다.

▷ 자격 : 40대 비구니로서 동양철학에 관심있는분
※ 참고 : 재정이 건실하고 재산은 약 10억정도

041)337-6348

사찰 안내

- 위치 : 산청군 황매산 서편
- 부지 : 약 2000평 밤산 군유지 2만평
- 건물 : 단청한 법당 30평 요사채 2동, 그외
- 특징 : 지리산 천왕봉 안대 동양화같은 최고명당 비구니선원 적합
- 가액 : 2억 7천만원

011)531-1334

사찰 안내

- 통영시 (경남)근처 섬
- 대지 : 100평(사용면적 300평)
- 법당 : 한옥(기와) 30평
- 요사채 : 17평
- 특징 : 기도 영험도량 신도많고 운영잘됨
- 가액 : 2억 2천만원

011)9677-2724

포교당 안내

- 부산 금정구 장전2동 588-19(식물원 앞)
- 평수 : 40평
- 법당, 방2, 주방, 욕실, 화장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 2700만원

051)516-3374
011)598-8673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주군 상북면 언양터미널에서 7분거리
- 대지 181평, 농지 200평, 총 400평
- 임법당30평, 요사채 20평 1동
- 건물 완공 2년
- 특징 : 수려한 야산에 정남향 8m도로접, 교통 편리함
- 가액 : 2억 6천만원 불교집기및 생활집기 포함

011)9544-0997

사찰 최적 토지 안내

- 익산시 함라산 동남향 웅덩이 모양
- 면적 : 약 2만 8천평
- 지목 : 임야
- 번지내까지 차량 진입가능 자연경관 최상
- 사찰, 실버타운, 종교, 납골묘원등등 가능 지역임
- 평당 : 2만~3만원

건물 대지 안내

- 사찰, 암자, 종교단체 휴양시설 적합한 건물및 토지매매
- 고개정상의민가와 떨어진 수행장소 최상
- 통나무집 4채 대지 1,129평 건평 110평
- 연락처 : 익산시 함라면 신목리

063)855-2005
016)605-0074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진구 5거리 코너
- 평수 : 75평. 3층
- 보증금 2천5백만원, 월 120만원 보증금 +시설비 : 6천5백만원
- ※ 삼존불+약사여래+지장보살 100년이상 포교지
- 법당 요사채 분리형

02)444-3957

계곡암자터안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가조면 → 중감마을 → 약1km
- 계곡 암자터
- 논 496평
- 가액 : 1천만원

011)9393-4965

사찰터 안내

- 충주시 동양면
- 호수를 내려다보는 가든 100평
- 조금위에 별장 두채 350평
- 뒷동산에 절이나 모텔 지을 자리 임야와 전 1700평
- 기타 대지 550평
- 총 가액 : 25억

043)857-6996
018)222-7939

토굴 안내

- 위치 : 강원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84
- 대지 : 282평, 전 66평
- 임법당50평 (대웅전 터 따로 있음)
- 원덕읍내에서 자동차로 3분 도보로 30분
- 가액 : 7천만원

033)574-9970

사찰터 안내

- 충북 보은군 탄부면 덕동리 탄부저수지
- 전 1170평(준농림지)
- 용도 : 사찰터나 묘지터 납골당
- 도로 농로 나왔음 보은읍에서 7~8분 거리
- 평당 3만 5천만원(절충가능)

011)9122-0793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대로변 4층 건물중 3층
- 평수 : 3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2천 5백만원
- 시설 : 법당,부엌,방2,욕실

011)9239-1369

사찰 (급) 안 내

- 현풍⇔창녕 국도 경계지점
- 평수 : 약 1,100평(종교부지 전환)
- 요사채 55평(실내화장실3개, 스님방 별도 화장실) 방 5개, 거실, 주방 ● 법당 30평(석가모니 대불)
- 마당(지장보살님, 팔각정 차방)
- 집기등 일체 다 드립니다
- 가액 : 2억 5천만원(5천~6.7천만)대출대체 가능

017)535-8833/011)543-1515

토굴별장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각북면 대구에서 30분거리
- 대지 : 130 여평(텃밭 있음)
- 한옥 2채(방6칸) 40평
- 식당채 보일러 시설 정진방 나무때는 부엌
- 비구니 스님이나 노부부 모실 분 적당함
- 가액 : 4200만원

011)415-5558

암자 토굴 안내

- 경남 밀양 : 4500만원
- 대전 보문산 : 4500만원, 6000만원
- 공주 신원사 : 2500만원
- 굿당, 기도도량 : 2500만원
- 칠갑산 토굴 (보증금 500, 3년세 300만원)

※ 토굴 암자 수시 보유
017)409-9599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 보건소 앞 롯데백화점에서 200m 떨어져 있음
- 2층 건물에 2층
- 크기 : 54평
- 가액 : 2천만원, 월 65만원

051)552-7828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390
- 대지 : 400평, 밭 700평
- 임야 : 약 200평, 총 9900평
- 법당 1개(기와), 아랫채 2동
- 가액 : 1억(가격 절충)

055)366-1619
054)833-4789(안내)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
- 법당 : 18평
- 삼성각 5평, 용왕각, 요사채 20~25평
- 스님방 별도
- 100년된 고찰. 신도많음
- 가액 : 5천5백만원

011)9394-1215

사찰터 안내

- 농작용으로 적합함 전기시설 완비 상주에서 4Km 정도에 위치해 있음
- 임야 : 10,000평
- 가액 : 5천만원

031)413-1336
016)611-1328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 온천장 (금강 식물원 밑) 주차시설 완벽
- 법당 : 2층 47평 (종무소, 주지실, 화장실)
- 호불 500불, 연등1000개, 인등단, 영가단, 최고급 닷집(단청필)
- 공양간 : 1층 25평(화장실, 방1) ● 입주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답사후 절충

051)517-1860/016)444-5758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 대지 : 500평. 실평수 약 천평
- 임법당 30평, 목조황토기와. 2002년 11월 완공
- 계곡과 산세가 수려함. 온양 15분거리.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IC 5km 지점 2006년 완공예정
- 가액 : 2억 8천만원(절충가능) 집기일체포함

017)479-7879
041)857-9056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걸어서 10분거리)
- 대지 : 200평
- 법당 30평(콘크리트, 슬라브지붕. 기와) ● 요사채 : 30평
- 산신각 : 7평 2층(1층은 스님방)
- 공양간 : 15평(현대식 입식)
- ※ 주방 별도로 있습
- 가액 : 1억 3천만원

052)294-7025
052)293-7025
019)292-7025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진구 5거리 코너
- 평수 : 75평, 3층
- 보증금 2천5백만원, 월 120만원 보증금 +시설비 : 6천5백만원
- ※ 삼존불+약사여래+지장보살 100년이상 포교지
- 법당 요사채 분리형

02)444-3957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양산시청에서 3분거리 터미널에서 5분거리. 시장인접
- 크기 : 2층 60평
- 삼존불, 신중탱화, 지장탱화, 산신후불탱화
- 방3개, 부엌, 거실, 화장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권리금 3200만원

019)447-7771
055)385-0868

사찰(급)안내

- 매입자 및 사찰운영자 구함
- 행정수도예정지 인접
- 서울서 1시간 거리
- 경부 IC에서 5분거리
- 전통사찰 건축 양식
- 주변경관수려(관광지 인접)
- 가액 : 8억원
- 사찰운영자는 절충하여 결정

011)9134-6723

토굴 안내

- 위치 : 경기 동두천시
- 조건 : 종중땅 (400여평 사용. 1년도지 60만원. 인법당겸 요사채 45평, 산신각 3.5평, 건물등기평수는 12평임. 삼존불, 심야전기, 심야온수, 약수및 수도설치)
- 가액 : 9500만원
- 관심있는 분만 전화주십시오

011)9770-6598

사찰기도터(급)안내

- 위치 : 충북 괴산
- 지방도 지정 문화재 미륵마애불이 옆자리에 위치한 기도터입니다. 현재(종교부지) 건축허가 나있습니다. 소납이 사정상 정리하려고 하오니 뜻이 있으신 분께서는 연락주시고 왕림하셔서 불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011)742-5925 / 043)422-1666

목어

참회에서 존경으로



윤제학
본지 논설위원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상생(相生)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다. '서로를 살린다는 것', 얼마나 좋은 말인가. 그러나 이 말은 '상극(相剋)'이라는 말과 이란성 쌍생아의 관계다.

인간 사회에서 상생의 관계는 '호혜의 관계'를 말한다. 주고받기의 관계다. 타협과 양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관계다.

수경 스님, 문규현 신부, 김경일 교무, 이희운 목사의 '새만금 살리기 삼보일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생을 말했다. 65일 간, 세 걸음에 한 번 절로 800리 길을 이어온 그 거룩한 참회의 몸짓에 상생이라는 말이 과연 온당한 걸까.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상생은 성립할 수 없다.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 끝없이 빚지는 관계다. 기생까지는 아니어도 편리공생(便利共生)의 관계인 것이다. 자연이 인간으로부터 덕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무조건 미안해하고 감사해야 할 관계일 뿐이다.

새만금을 앞에 둔 상생 운운에는 '자연'이 빠져 있다. 그렇다면 누구와 누구의 상생인가. 새만금을 찬성하는 국민과 반대하는 국민 · 삼보일배단과 정부 혹은 대통령 · 마침내 대통령이 백지화를 선언하면 그것이 상생의 선언인가? 결코 아니다. 대통령에게는 애당초 백지화를 선언할 자격이 없다. 갯벌을 마음대로 없앨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합법적 절차라는 것? 어디까지나 그건 인간 사이에서나 통하는 것이다.

새만금 살리기 삼보일배는 인간의 끝 모를 탐욕에 대한 최소한의 참회였다. 여기서 그치고 만다면, 그것마저 참회를 위한 참회로 만들고 만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자연에 대한 존경을 보이는 일이다.

몸은 떠났지만, 복지관 사랑은 여전

5년 재임기간 동안, 서울 송파구 삼전종합복지관을 서울시 최우수복지관으로 이끌었던 각우스님. 지난 3월 퇴직금 전액을 복지관 후원금으로 내놓는 등 '아름다운 퇴임식'을 한 스님이 이번에는 병마와 싸우는 젊은 불자를 위해 병원비를 쾌척했다. 스님은 현재 아산병원에서 자궁 종양과 신장투석 중인 홍 모씨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끝까지 희망의 불씨를 놓지 말라며 복지관으로 후원금을 보내왔다는 것.

장군죽비

주지스님 입김에 신도회 임원선출 OK?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사찰신도회운영 현황조사를 분석한 결과, 신도회 임원 선출과정에서 주지스님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48.5%에 달했다. 신도회와 주지스님과의 원만한 관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지스님이 신도회 임원선출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율적인 신도회 운영을 통해 사찰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이 사부대중의 진정한 모습이다.



불자 세상보기

이병인
밀양대 환경공학과 교수

불교계 첫번째 공약은 어디로?

우리 인류는 46억년 지구역사 중 수 만년의 짧은 시간을 살아오면서 생태자원을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개발해 지구전체의 환경을 파괴해 왔다.

지구환경 파괴에 대한 인류의 첫 번째 노력으로는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인간환경회의'가 있다. 82개국 대표들과 유엔기구들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6월 5일을 환경의 날로 지정했다.

이후 1992년 '리우환경회의'가 브라질에서 개최됐고, 작년 남아공화국에서 '지구정상회의'가 열리는 등 지속가능한 환경개발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은 계속돼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 규모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동참은 고사하고 환경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로 환경을 파괴시켜 '녹색문맹' '환경소외국'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여기에는 현 정부의 환경에 대한 무지와 무시현상이 크게 한 몫 한다.

유신시대나 군사독재시대의 암울했던 시절도 아닌데 국가시책이란 명분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행정상의 제재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행정을 담당하는 환경부가 환경을 보호하는 전담부서로서의 소임보다는 개발의 면죄부를 주는 건교부의 들러리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과 북한산 관통도로, 그리고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터널문제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부서가 변명 삼는 이유는 항상 동일하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동안 집행된 비용이 아까워서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잘못된 계획임을 뻔히 알면서도 정책을 고수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며 역사를 악행으로 도배하는 일인지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불교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적 규모의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고 있어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불교환경연대 대표 수경스님은 삼보일배를 통하여 새만금사업의 위험성과 환경생태계의 중요성을 온국민들에게 알렸고, 조계종은 노무현 정부가 선거운동 당시 공약한 북한산관통도로와 천성산 · 금정산 관통터널 사업의 재고와 수정방안의 실천을 거듭 요구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는 공약을 실행하기는커녕 불교계에 양해를 구하며 공약불이행 명분 찾기에만 급급해 하고 있으며, 정책은 그대로 유지한 체 몇 몇 실무자들만 바꿔 눈가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재검토위원회를 만들어 사업계획조정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최소 1년 이상의 조사와 결과 예측을 통해 결정해야 할 중대사안 결정에 두 달이라는 시간적 제약을 줌으로서 형식적으로 조사하고 마무리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환경파괴 문제를 의식부족과 정책부재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 해결이 불교계가 이 시대에 갖는 사회적 책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불교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힘을 모아 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의 의미를 되새겨 보며 불교계의 노력과 활동을 기대해 본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멸빈제 폐지' 찬성과 반대

'질서' '자비' 다 충족하는 길 모색

조계종의 멸빈자 사면 논란 속에, '멸빈' 징계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최근 들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같은 견해가 나온 것은 그만큼 멸빈 징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종단 유지를 위해 멸빈 징계를 없앨 수는 없다는 반론도 거세다. 엇갈리고 있는 양쪽의 견해를 들어본다. <편집자>



현각스님
조계종 법규위원



법타스님
은해사 주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멸빈 징계는 필요하다. 어느 집단이든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일정한 규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질서유지가 힘들어진다. 멸빈 징계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멸빈 징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교단을 어지럽히고 다수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법의 준엄함이 어떤 것인지를 일깨워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멸빈 징계가 자비문중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는데, 자비문중과 징계는 별개의 문제다. 법이란 모두가 자율적으로 책임

비정치적 논리에 입각한 징계 필요

과 의무를 다 할 때 불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회도 법으로 여러 가지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집단을 운영하기 위한 법질서와 불교의 이념은 전혀 다른 측면이다.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물론 멸빈 징계와 관련해 보완해야 할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98년 징계자의 경우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측면도 있고, 또 징계를 해놓고 자꾸 사면을 거론함으로써 종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멸빈 징계를 신중히 하면서도 비정치적 논리에 입각해 실행해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징계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사형제가 폐지되고 있는 마당에 종교집단에서 사형이나 마찬가지인 멸빈 징계를 두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멸빈 징계 자체를 폐지해야 마땅하다. 대신 제적이나 공권정지 징계를 강화하면 된다. 삼보정재를 탕진했거나 파렴치범 등 승단의 권위를 추락시킨 사람들은 제적을 하면 되고, 제적 기간이 끝나도 공직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면 교단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소기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종단은 하나의 집단이고, 따라서 무엇보다 화합이 중요하다. 종책이나 종단의 대소사에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

화합중요, 제적강화 등 불교이념 맞춰야

들을 정치적인 보복 차원에서 징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멸빈 징계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 이해에 따라 사면 얘기가 나오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면 얘기가 계속해 나오는 것은 자칫 종헌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징계를 하고 필요에 의해 사면을 할 바에는 아예 멸빈 징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낫다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현재의 종헌 · 종법은 지나치게 사회법 흉내를 내고 있다. 원론적으로는 모든 징계가 계율에 입각해 이뤄져야 한다. 계율에 멸빈이라는 징계는 없다.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인 이상 나도, 남도 깨우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멸빈제도문제 '종특위'에서 다룰듯
종헌 명문화는 62년 통합종단 이후

'멸빈 징계'가 조계종 종헌에 명문화된 것은 1962년 통합종단 출범과 함께 종헌이 제정되면서부터다. 그러나 당시에는 '멸빈'이 아닌 '체탈도첩'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그러다가 94년 종단 개혁때 종헌이 개정되면서 '체탈도첩'을 '멸빈'이라는 용어로 바꾸었다.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승려증을 박탈하고 승적을 말소한다'는 의미는 같다.

멸빈 징계의 유래는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시대 국가가 승려에게 허가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 즉 '도첩제'가 시행됐고, 체탈도첩(도첩을 박탈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유래된 말이다. '멸빈'은 최소한 고려시대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유지돼 오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최근 멸빈 징계자 사면이 조계종의 최고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멸빈제' 자체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논란의 중심에는 '멸빈'이 불교의 자비사상과 맞지 않다는 점, 그리고 멸빈 징계 후 사면 필요성이 계속해 대두됨으로써 종헌 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4월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구성된 종헌종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중원스님은 "멸빈제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의견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당신에게 행운을... 발명특허 출원제품



소원성취 행운의 부적양말

본제품은 氣를 발산하고 액운을 막아주는 경명주사 부적이 자수된 제품입니다.
※ 경명주사 부적은 옛날부터 악귀가 침범하지 못하고 재앙을 막아주며 왕성한 기(氣)가 형출되어 심신을 안정케 하며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였습니다.

취급품목
행운의 양말, 방석, 속옷, 손수건, 넥타이, 지갑
차량안전운행 방석, 부부화합의 이불, 가정화목의 카페트, 맑은정신의 베게

학업자에게 지혜의 선물로...
사업자에게 성취의 선물을...
수험생에게 합격의 선물로...
부모님에게 효도의 선물로...
어려운이에게 희망의 선물로...
모든이에게 행운의 선물로...

전국지사 대리점 모집

▶ 수입금 중 일부는 사회복지기금으로 출현함 ◀

천룡정사 복지원 문의 : 053)986-1355, 017-533-1356 Fax 053)986-1356 대구 불로동 매장 053)986-1354

납골추모함 안내

납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주문가능)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금 색) |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동 색) |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칠 보) | 내호함 (도자기) | 연꽃문양 기본사이즈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납골추모함에 봉안하여 보관

영혼은 평안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납골추모함은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것은 물론 참배까지 쾌적하게 해주는 현재와 미래의 장례문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골함을 같은 장소에 많이 모셨을 경우 납골함 자체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붕괴의 우려가 있으며, 오래된 유골에서는 강한 악취가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화사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소재 **납골추모함은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 되었으며 도자기에 비해 월등히 가볍고 외형 또한 아름답습니다.

납골추모함은 납골당과 납골탑이 붕괴되더라도 유골이 소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납골추모함이 해결함으로서 쾌적하고 편안한 참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이나 납골탑에 안치할 경우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봉안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램입니다.

새로운 납골추모함이 이러한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랜 연구 끝에 제작 출시 되었습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안전성과 청결성을 갖춘 납골추모함으로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히 모실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이 화 사 ☎ 02)392-0925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5-2 GS빌딩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한국불교 홍보관 운영

8월 10일~9월 3일

법당 · 선방 · 문화체험관 등으로 나눠
자매결연 · 응원 등 서포터즈 활동도
종단별로 기간 정해 운영 책임지기로

대구 종단협 · 3개종단 합의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동안 각국의 참가선수단 및 외국 관광객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리기 위한 불교관이 개관한다.

대구종단협의회(회장 지성)는 5월 30일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운영회의를 갖고 8월 10일부터 9월 3일까지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내 중학교의 4개 교실에 불교관을 운영하기로 결의했다.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불교관은 외국인 불자선수들의 신행생활을 위한 법당, 참선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선방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불교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문화체험관으로 나눠 운영된다. 법당은 대회기간동안 24시간 무휴로 운영되며 태국, 일본, 베트남 등 불교 문화권 국가의 선수들을 위한 법회가 하루 2차례 봉행된다. 또 문화체험관에서는 한국불교 영상자료 상영, 다도 시연과 전통차 시음, 선 체험교실, 연꽃 · 연등 만들기, 선서화 전시회 등의 프로그램이 상설 운영된다.



◇대구 종단협의회는 5월 30일 운영회의를 갖고 유니버시아드 대회 불교관 운영방법을 논의했다.

불교관은 조계, 태고, 진각종 등 종단별로 기간을 정해 책임운영하며, 매일 스님 2명을 포함 모두 23명의 안내 및 운영요원과 통역관들이 상주하면서 이곳을 찾는 외국인들에 한국불교를 알리는 각종 불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어와 일어, 중국어 등 세계 8개국어로 쓰여진 홍보물 배포로 한국불교문화 이해를 돕고, 염주 · 열쇠고리 등의 기념품 증정을 통해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불교관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구종단협의회는 서포터즈 활동 등을 통해 불교권 국가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경기장에서의 응원은 물론 선수들을 사찰로 초청하는 등 외국 불교 단체와의 지속적인 후원과 교류를 가질 수 있도록 소속 사찰들에 지도 ·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동화사는 대회기간 중 템플스테이를 상설 운영해 이 지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한편 연등 만들기, 서각시연, 참선, 사경 등을 통해 한국불교의 참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태고종 관암사도 종단차원의 대규모 영산대재를 대구 유니버시아드 주 경기장 인근에서 봉행할 예정이어서 한국의 전통 법음범패 등 우수한 불교문화를 알리는데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경산 제석사는 3일 원효성사 다례재를 개최했다.

원효성사 조사전 낙성

제석사, 진영 · 유물전시

원효성사 진영 및 관련 저술, 유물 유적이 전시될 조사전이 건립됐다.

경산 제석사(주지 적연)는 3일 은해사 주지 법타스님, 윤영조 경산시장, 변태영 경신시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효성사 탄생1386주기 추모 다례재 및 조사전 낙성식을 개최했다. 원효성사 조사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이다.

원효성사 진영에 여섯가지 공양물을 올리는 청백다례원의 육법공양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1부 법요식과 민요한마당, 사물놀이 등이 어우러지는 2부 문화행사로 진행됐다.

법타스님은 다례재 법어에서 "원효성사의 원융회통한 화쟁사상의 실천을 통해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분단이라는 민족의 고통이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구 기자

영남불교대, 전방 3부대에 도서관

불자들 수집한 도서 7천여권 기증

전방 부대에도 군 불자들을 위한 도서관이 만들어진다.

영남불교대학이 전방부대인 1사단 휘하 11연대 1대대, 59포병대대, 정비대대 등 3개 부대에 도서관을 만들고 있다고 5월 26일 밝혔다. 3개 부대 도서관에는 영남불교대 2천여 신도가 4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 2개월간 모은 7천여권의 도서가 기증된다.

이번에 영남불교대학 전방부대 도서관 개설은 56기 총무 박소현 불자의 아들인 조정해 소위(1사단 사령실 근무)가 "군 장병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서관이 부대 내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해와 성사된 것이다.

박원구 기자

통영 사암련, 연안어족 번식 · 보존 위한

수륙대재 · 방생법회 봉행

통영시사암연합회(회장 선곡)는 3일 양식어류 소비 촉진과 연안 어족자원의 번식보호, 적체된 양식 어류 매입 방류를 위해 대대적인 수륙대제 및 방생법회를 실시했다.

통영시와 공동 주최한 통영 방생법회는 이날 관내 도남관광단지에서 쌍계사 조실 고산스님, 김동욱 국회의원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장, 김동진 통영시장, 정동배 통영시의회의장 등 3000여명이 동참했다.

통영 8경에 포함된 2.5km 거리의 연화도 용머리 인근 연안에 도착한 통영 사암연합회 회장 선곡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들은 관내 양식장 등에서 구입한 감성돔 4만미와 볼락 치어 33만1000미 등 모두 8000여만원상당의 양식어류를 용머리 해안 일대에 방류해 자원 조성에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천미희 기자



◇새만금 순례단의 정신을 잇는 부산 대법회가 5월 31일 부산 시청앞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대법회 후 진행된 삼보일배 장면.

천성산 · 낙동강하구 살리기

새만금 삼보일배 정신 잇는다

부산녹색연합 · 부산정토회 등 300명 동참

65일 동안 진행된 '생명평화 기원 새만금 삼보일배 순례단'의 회향과 때를 같이해 부산에서도 대법회와 삼보일배가 진행됐다.

5월 31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열린 대법회는 천성산 환경보존대책위와 낙동강하구살리기 시민연대 주최로 늘푸른시민모임, 부산녹색연합, 부산정토회, (사)대불청 부산지부 등 3백여 종교인과 시민이 동참했다.

대법회는 새만금에서 서울까지 삼보일배의 고행을 한 삼보일배 순례단의 정신을 부산에서도 이어가겠다는 다짐의 자리로 마련된 삼보일배에는 지율스님, 윤희동 신부를 비롯한 원불교 정녀, 수녀를 비롯 50여명이 동참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파라미타 부산청소년協

포교후원자 모집

청소년 포교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파라미타 부산청소년협회가 후원자 모집에 나섰다.

60여 학교분회 2천여명의 회원과 사찰분회 1천여명의 회원이 활동중인 파라미타 부산청소년협회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포교 침체의 악순환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300 여개에 달하는 부산의 중 · 고등학교 중 60여 학교에만 학교 분회가 있을 정도.

매월 1천원 이상 정기후원 방식이다. (051)513-4306 천미희 기자

유 · 무형문화재 한눈에

'경남문화재' 발간

경남은행이 창사 33주년을 기념해 <경남문화재>를 발간했다.

총 250여 페이지 분량의 <경남문화재>를 펼치면 경남도내의 20개 시 · 군과 울산광역시 소재의 유형, 무형문화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통도사, 표충사를 비롯한 지역의 사찰과 사지, 마애불, 석탑을 비롯한 유형문화재와 놀이 공예 등의 무형문화재가 나눠 수록돼 있다.

또 지역 사찰 외에도 가섭사지 마애삼존불상, 표충비 등 권역별 유형문화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천미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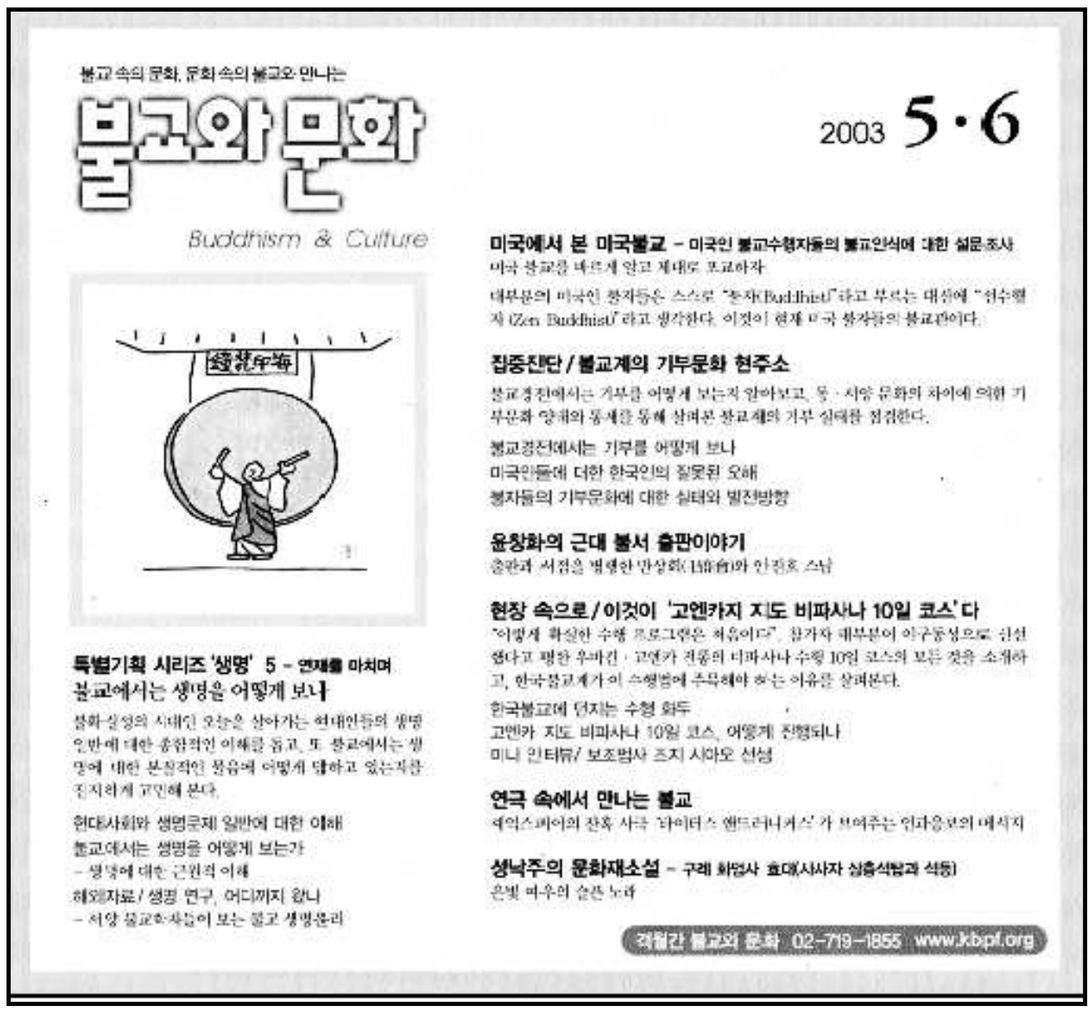
자연해설프로그램 운영

가야산공원, 11월까지

국립공원 가야산을 탐방하면서 공원내 자연환경과 문화재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곁들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가야산 국리공원관리공단은 가야산과 백운동 일대를 탐방하는 자연해설 프로그램 두가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가야산 자연해설 프로그램'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며 해인사 일주문부터 팔만대장경을 지나 학사대까지 탐방하면서 해인사의 역사 및 문화, 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해설이 이어진다.

'백운동 자연해설 프로그램'은 매주 넷째 토요일 오후 2시 백운동 집단시설지구 일원에서 진행된다. 문의 (055)932-7810 박원구 기자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 동 지 역	지사장명	주 소 및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종렬	051)632-0064 / 011-219-5066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문철	053)768-8008 / 016-813-8008
광주지사	광주일원	주용직	062)375-9986 / 016-602-7544
강릉지사	강릉일원	전유진	033)643-5599 / 018-236-5589
전북지사	전북일원	조기식	063)255-2274 / 011-9644-4579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영애	054)634-3429 / 011-9373-3778
충북지사	청주일원	일봉스님	043)258-3282 / 011-459-3282
대전지사	대전일원	류재희	042)489-9390 / 017-433-6523
경남 서부지사	마산 / 창원 / 김해	보성스님	055)547-3469 / 011-9557-4566
동해지사	동해 / 삼척	해동스님	033)521-6293 / 019-9767-6297
제천지국	제천 / 단양	청산스님	043)644-4366 / 011-485-4080

불교정보화협의회·현대불교
'스님들 위한 무료 컴퓨터 교육'

구리·춘천·강릉지역

이렇게 좋은기회…

꼭 컴맹 탈출 해야지!

경기도 구리와 강원도 춘천, 강릉 지역 스님들이 컴퓨터 배우는 재미에 푹 빠졌다.

불교정보화협의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 주관하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후원하는 제2차 '스님들을 위한 무료 컴퓨터 교육'이 2일 춘천 우체국 4층 정보화교육실에서 개강됐다. 이 지역 스님 12명이 등록한 첫날 교육에서 스님들은 "그간 컴퓨터를 배우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막상 기회가 없었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컴맹에서 탈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무엇보다 사암연합회 등 지역불교활성화를 위해 함께 일해 온 스님들이어서 컴퓨터 교육장에서의 만남도 각별하다. 무문암의 승보스님은 개강 첫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게 되니 강원으로 돌아간 느낌"이라며 "이번 교육을 받고 난 후 사용할 컴퓨터를 이미 장만해 뒀다"는 자랑도 빼놓지 않았다.

교육에 참가한 스님들은 27일까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 두 시간씩 윈도우 98과 한글97, 인터넷 기초 과정을 배우게 된다. 이날 개강에 앞서 손승현 춘천우체국장은 교육에 참가한 스님들과 다담 시간을 갖고 "사찰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포교를 해야 하는 시대이니만큼 이번 교육이 스님들의 포교와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9일부터 개강하는 강릉지역의 무료교육에도 6일 현재 10여명이 등록 신청을 했다. 또 5월 19일 구리우체국 정보화교육실에서 개강한 제1차 '스님들을 위한 컴퓨터 무료교육'에 참가한 구리 남양주 지역 스님들도 매우 높은 출석률과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의 스님들이 한 달간의 초급과정을 마치고 중급과정을 배우겠다고 예약을 해 뒀다. 구리우체국 정보화 교육 강사 신희덕씨는 "적극적으로 배우는 스님들을 대하면 힘이 절로 나고 맘이 편해 하나라도 더 가르쳐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불교정보화협의회는 '스님들을 위한 무료 컴퓨터 교육'의 세 번째 문을 7월 충북 단양에서 열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춘천 우체국 정보화교육실에서 컴퓨터를 배우는 스님들.

"강원에 온 느낌…사용할 컴퓨터 이미 장만"
높은 출석률, 벌써 중급과정까지 예약도

법륜스님 아프간 미군기지에서 법문

미군측 요청에 기지법회로 확대 진행
강연후 명상지도, 국군방문 병사 격려

5월 23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시 바그람 미공군기지에서 정토회 지도법사인 법륜스님의 법회가 있었다.

처음에는 바그람 기지내의 한국파견군의 초청으로 법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미군측의 요청에 의해 바그람 기지 전체의 행사로 확대됐다. 70 여명의 한국군, 30여명의 미군을 비롯한 동맹국 장병들, 20여명의 인도와 아프가니스탄 JTS의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륜스님은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법'을 주제로 법문했다. 법회 후에는 병사들에 대한 명상지도도 이루어졌다. 법륜스님 일행은 한국군 장교들의 안내로 바그람 기지 내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 제 100건설공병대의 주둔지도 방문하여 병사들을 격려했다.

바그람 기지 내 공병대인 다산부대에는 불자장교들이 많아 JTS의 선주, 법운법사가 이미 부대 법당 개원식을 연 바 있다.

법륜스님 일행은 이틀날 탈레반 정권에 의하여 파괴된 것. 바미얀 대석불을 답사한뒤 바미얀에 주둔한 미군 기지를 방문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현황을 주둔군 장교로부터 브리핑 받았다. 아프가니스탄 JTS는 카불의 툽다라 지역 이외에 칸다하르나 바미얀지역에서의 구호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JTS는 6명의 한국인 자원봉사자를 현지에 파견하여 개발구호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프간=김동훈 통신원



◇법륜스님이 바그람 미공군기지에서 법문하고 있다.

충남종교인연합회 발족
상호존중 바탕으로 활동

충남 지역 종교인연합체가 발족된다.

천안지역종교지도자협의회는 5월 29일 임시총회를 열고, 기존 조직을 충남지역으로 확대 · 개편하하여 충남종교인 연합회를 창립키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표회장에 법혜스님(금정사 주지)을 선출하고, 공동회장에 나도현 목사(기독교), 연구스님(만수사 주지), 권희연 신부(성공회), 고진여 교무(원불교) 등을 선임했다.

충남종교인연합회는 발족과 함께 산하에 인권위원회, 환경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천안시, 아산시, 서산군 등 도내 다른 시군 종교지도자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다.

대표회장 법혜스님은 "종교인들의 화해와 교류를 위해 결성된 만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강릉 굴산사지 사적 승격

강원도 기념물 11호인 강릉 굴산사지가 국가 사적으로 승격됐다.

문화재청은 2일 강릉 굴산사지(448호)와 영월 정양산성(446호), 원주 영월산성(447호)을 국가 사적으로 지정했다.

굴산사(지)는 범일국사(810~889)가 신라 문성왕 13년(851) 창건한 사찰로 구산선문 중에서도 가장 번창했던 사굴산문의 본산. 조선 초기 폐사된 이후 농경지로 경작돼 사역조차 모르다가 지난해 태풍 피해로 인한 긴급 발굴조사에서 법당지와 승방지, 회랑지, 탑지 등이 드러나면서 동서 140m, 남북 250m에 달하는 거찰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존하는 국내 최대 크기의 당간지주(보물 86호)와 범일국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부도(보물 85호), 석불좌상(문화재자료 38호) 등이 남아 있다.

권형진 기자

우리절 우리신도



◇"우리가 만들었어요!" 법만사 신도회장 이희삼(가운데) · 부회장 오상옥(왼쪽) · 총무 김석화 보살이 손수 제작한 옷들을 들어 내보이며 자랑을 하고 있다.

보이지 않게, 묵묵히, 열심히…

서울 법만사 신도 3총사

"부처님 일이라면 잘하면서 나한테만 잘못해. 섭섭하단 말씀이야."

"에~이, 스님! 바쁘셨잖아요. 법복을 놓고 가셨어야죠."

2일 서울 중랑구 법만사 종무실. 주지 법만스님과 신도 3총사가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전개된다. 발단은 스님이 해어진 법복을 기워달라는 부탁만 해놓고, 정작 법복을 주지 않았던 데에서 비롯됐다. 이에 질세라, 신도회장 이희삼 보살(법명 선법심 · 66)이 포문을 연다. 기다렸다는 듯이 부회장 오상옥 보살(법명 묘심화 · 51)과 총무 김석화 보살(법명 선정심 · 50)의 지원 사격이 쏟아진다. 이러다 보니 늘 지는 쪽은 법만 스님. 그래도 돌아서면 웃음꽃이 피어난다.

신도화합, 상담, 의복공양 등 척척
'부처님 좋아요' 인사하기 운동 전개

법만사 신도회의 힘은 왕성한 신행활동에서 시작된다. 지난 81년 법만사 창건 시절부터 온갖 궂은일을 도맡아온 이희삼 회장은 절집 살림을 훤히 들여다볼 만큼, '법만사 터줏대감'이다. 이 보살은 전신도들의 화합을 이끄는 것은 물론, 행사 때마다 기획에서부터 진행까지 진두지휘를 하기 때문이다.

"바깥양반이 준장으로 전역할 때까지, 군법당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불자 사병 점심공양 준비에서부터 위문품 준비, 법당 건립까지 군 포교를 위해서라면 다른일은 제쳐두고 뛰어 다녔죠. 그 때 활동이 지금까지 큰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알뜰 '살림꾼'인 오상옥 부회장은 신도들의 점심 공양과 법당 청소 등의 일들을 소리없이 척척해낸다. 또 신도의 고민을 다 들어주는 상담활동은 신입회원들의 사찰 적응을 돕고 있다.

김석화 총무는 옷 만드는 솜씨가 장난이 아니다. 젊어서 배운 재봉틀 기술로, 그간 손수 만든 생활한복, 기도복만 300여 벌이 넘는다. 김 총무가 10년 전부터 '의복공양'에 나선 이유는 간단하다. 신도들이 좀더 편안 복장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서였다.

이들 3총사는 이번 달부터 '부처님이 좋아요!'라는 인사하기 운동을 벌인다. 주지 스님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항상 상대방을 부처님처럼 공양하자는 취지에서이다.

김철우 기자



추천의 말

법만스님 서울 법만사 주지

우리절 주춧돌 같은 존재

보이지 않게 거룩한 일들을 묵묵히 해온 보살님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손색없을 정도로 후원, 공양간, 법당을 오가며 오늘의 법만사를 이끌어온 분들입니다. 이희삼 회장님은 모든 행사 기획을, 오상옥 부회장님은 공양주를, 김석화 총무님은 자원봉사활동을 맡아왔습니다. 그야말로 법만사에서 없어선 안 될 '기둥'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2547 Buddha's Birthday

아이를 부처님처럼!
가족과 함께 읽는 뜻 깊은 책!



함께 사는 기쁨을 전하는 그림책

꼬마 돌부처

돌덩이 하나가 굴러와 길섶에 섰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던 이름 모를 돌장이가
쪼고; 다듬어서 꼬마 돌부처로 만들었습니다.
꼬마 돌부처는 생각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노는 것도 무척 좋아하는데…….

쉿! 책장을 넘기면, 꼬마 부처님이 전하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가 솔솔 피어납니다.



4세 이상 | 36쪽 | 올컬러 | 값8,000원
글 | 하오 광차이 그림 | 줄리아노 페리

어린이 꿈과 함께 30년 (주)예림당
www.yearim.co.kr



만화로 보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

석가모니

인도 카필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으나
부와 명예를 버리고, 고통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제도하신 인류의 위대한 스승,
실천으로 진리를 보여 주신 부처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삶 그 자체가 가르침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쉽고 재미있는 만화로 만나세요!

초등생 | 320쪽 | 올컬러 | 값9,600원
글 · 그림 | 이범기

능인
www.nibook.co.kr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3 TEL:566-1004 FAX567-9660

풀꽃향기 은은한

'나비의 절'



◇예천 용문사 전경.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13) 예천 용문사

산이 깊지 않아 갈수기에 이끼 마를정도
잔디에만 의존한 조경, 경관가치 떨어져
경내 일사량, 초본류 많아 다양한 나비 서식

예천 읍내에서 용문사까지는 시내버스로 20여분 거리다. 그냥 앉아있으면 버스가 용문사 코앞까지 데려다 주지만, 굳이 삼거리에서 내리는 까닭은 새소리와 물소리를 들으며 옛 스님들의 만행길을 밟아보고 싶어서다. 삼거리에서 용문사까지는 10리길. 비록 포장된 길이지만, 개울과 논을 끼고 한갓진 길이다. 모내기를 끝낸 논들은 파스텔처럼 은은하고, 감자밭엔 감자꽃이 하얗다. 뻐꾹, 뻐꾹, 뻐뻐꾹……. 어디선가 뻐꾸기 소리 들린다.

주차장에 이르면 멀리 매봉이 늠름하게 다가온다. 해발 865미터의 매봉은 소백산 줄기가 죽령으로 내려와 두솔봉(1314)을 거쳐 저수령에서 월악산으로 가다가 한 줄기가 남으로 내려와 맺힌 소백의 지봉이다. 매봉 너머는 문경 땅이다. 용문사는 바로 그 매봉의 남쪽 줄기에 앉아있다.

용문사 창건설화의 주인공은 희방사를 세운 신라 경문왕 때의 인물 두운(杜雲)선사다. 후삼국을 아우르던 고려 태조가 군사를 이끌고 초암(草庵)에 살던 두운선사를 찾아왔을 때 홀연히 용이 나타났다고 해서 용문사로 이름 지었다고 한다.

용문사 들머리 숲은 갈참, 느티, 현사시 등등의 노거수들이 입승을 서고 있다. 산문 옆으로는 개울이 내려온다. 용문사는 산이 깊지 않아 물이 많지 않은 절이다. 갈수기에는 개울의 이끼들도 목이 마를 정도다.

일주문을 지나면 부드러운 돌계단이 경내로 안내한다. 어둑한 숲터널이 끝나자 갑자기 시야가 훤하게 트인다. 마치 좁고 긴 나팔관을 지나온 자궁 같은 형국이다. 겹겹이 쌓은 높고 낮은 석축 위에 용문사가 전경으로 앉아있다. 노장 같은 극락보전 뒤로 매봉의 막내쯤 보이는 낮은 산이 내려와 있다.

주위의 산이 낮고 나무가 없어서인지 경내는 뭔가 풀어진 느낌을 준다. 그것은 자연이 손을 많이 탔다는 이야기와 같다. 게다가 경내 조경을 잔디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경관생태학(Ecological Landscape Planning)적 가치가 좀 떨어지는 편이다.

자운루는 임진왜란 때 사부대중이 승병들의 짚신을 삼던 곳으로 전해진다. 다듬지 않은 주춧돌 위에 누하주(樓下柱)가 그랭이로 절묘하게 서 있다. 대장전은 보수공사 중이다.

극락보전 주변으로 몇 그루의 잘 자란 잣나무, 일본이깔나무, 전나무가 이웃살이를 하고 있다. 그 옆에 전나무 고사목 한 그루가 톱질을 당해 누워있다. 고사목은 베어 없애는 것보다 그대로 세워두는 것이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다. 각종 새들과 곤충들의 보금자리가 되기 때문이다.

극락보전 뒤 경사진 묵밭엔 풀숲이 제철을 만나 우거져 있다. 씀바귀, 질경이, 애기똥풀, 머위, 지칭개, 작약, 꼭두서니, 칡, 엉겅퀴, 쇠뜨기, 메꽃, 달래, 원추리, 깨꽃, 애기나리, 패랭이…….

사람들은 흔히 이것들을 잡초라고 부르지만 세상에는 잡초라는 게 없다. 다만 그것의 이름을 모르고, 그것들의 쓸모를 모르고, 그것들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잡초라고 불러버리는 것이다.

철따라 꽃 피고 지는 이 풀숲은 곤충들의 도솔천이다. 벌나비에 이어 벌써 메뚜기와 여치와 귀뚜라미들도 여기저기서 톡톡 튀기 시작했다. 또한 곤충이 있기에 새들도 날아든다. 나무만 있다고 해서 새가 날아드는 게 아니다. 절집은 모든 생명들이 함께 살아야 절집이다.

용문사의 초여름 꽃은 엉겅퀴가 여왕이다. 그러나, 용문사 경내 곳곳에 엉겅퀴들이 대거 들어와 있는 것은 본래의 생태계가 많이 훼손되었음을 의미한다.

초여름의 용문사는 '나비의 절'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다양한 나비들이 선을 보인다. 모시나비, 홍점알락나비, 왕세줄나비, 네발나비, 긴꼬리제비나비, 산제비나비, 노랑애기나방, 세줄나비, 뿔나비…….

용문사에 비교적 다양한 나비들이 나타나는 것은 절이 앉은 터가 넓어 일사량이 많고, 경내에 초본류들이 많기 때문이다. 용문사의 꽃들은 사람들이 버린 땅에서 더 다양하게 피고, 벌나비들도 군데군데 버려진 풀숲에서 더 많이 관찰된다. 유감스럽지만, 자연은 사람들이 버린 공간일수록 더 싱싱하게 자리한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용문사 주변은 남방과 북방을 잇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우리 풀꽃들이 많은 편이다. 잔디를 걷어내고 우리 풀꽃을 중심으로 초지를 조성해놓으면 더 많은 종류의 나비들이 모여들 것이다. 생태적으로 이렇다할 특색이 없는 용문사에서는 한번쯤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 교토에 서방사(西芳寺)라는 절이 있는데, 자연생태가 잘 보전돼 1년 내내 푸른 이끼가 장관을 이루고 있어서 아예 절 이름을 이끼절[苔寺]로 바꿨다고 한다. 생태관광객들이 태사의 이끼를 보기 위해 줄을 잇는다고 한다.

경내 오른쪽 개울을 끼고 등산로가 나 있다. 매봉까지는 4킬로미터, 경사가 가파르지 않아서 두 시간 남짓하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숲 속 임상에는 노루발, 으아리, 솔붓꽃, 둥굴레, 애기나리, 김의털, 더덕 등과 같은 초본들이 자라고 있다. 관목층에는 진달래, 철쭉, 쥐똥나무, 국수나무, 조록싸리, 산초나무, 생강나무, 오갈피 등이 자리하고 있다. 키 큰 교목으로는 소나무와 참나무류를 비롯해 서어나무, 물푸레나무, 오리나무, 물박달나무, 때죽나무, 쪽동백나무, 팥배나무, 산뽕나무, 단풍나무, 말채나무, 다래덩굴, 잣나무, 산벚나무, 층층나무, 붉나무 등이 보인다. 그러나, 수령들이 모두 50년 미만인 것으로 미루어 그 사이에 산판이나 산불이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 참나무로는 굴참과 갈참이 가장 많이 눈에 띈다.

숲속 어디선가 등검은뻐꾸기 소리가 들린다. 아래쪽 숲에는 붉은머리오목눈이, 뻐꾸기, 직박구리, 멧비둘기, 어치, 까마귀들이 텃세를 부리고, 위쪽으로 올라오면 등검은뻐꾸기를 비롯해 딱다구리류와 박새류들이 관찰되고 있다.

용문사 뒷숲은 나무의 종류도 다양하고 비교적 층위구조가 고른 편이다. 게다가 조류상도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숲 속 학교라도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자연공부를 시키면 좋을 듯싶다.

http://cafe.daum.net/templeeco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사진 위에서 부터 용문사 숲길, 지느러미 엉겅퀴, 기린초, 초롱꽃, 홍점 알락나비. 사진 왼쪽은 모시나비.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2가지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는 세계 하나 밖에 없는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서산대사의 고향이며 원효대사께서 해골물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걱정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금강염주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투병중인 분, 큰 고민거리를 갖고 계신 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금강의 강력한 氣기 발산되는 금강염주
금강염주는 수천 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력한 氣가 발산되며 정진 발원시 일념무아 되는 세계유일의 염주입니다.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됩니다.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면 사용 하실분이 꼭 개봉해야 하며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가지 소원만 기원하며 3배 하신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3일간은 높은 곳에 올려놓고 3일후부터 사용하면 됩니다.
금강염주는 12단주와 108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 되며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금액 195.000

금강염주사문의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406호

상쾌한 숙면 건강한 하루 신비의 은행석편지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은행석입니다.저는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베게속에 은행석 30알만 넣고 주무시면 스님은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등이 치료 예방 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즐어들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잠잔 것과 같이 숙면을 해 머리가 맑고 상쾌해요. 또한 기침을 심하게 하는 분은 베게속에 은행석 30알을 넣고 2시간 정도면 기침이 멈춥니다. 제 고향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고위층 인사들만 사용하고 있으며 저를 잘 믿고 베게속에 넣고 주무시는데 한국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수험생, 수술을 받으신분, 불면증,두통으로 고생 하시는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노약자,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물론 누구든지 베게속에 넣고 사용하시면 평생 뇌에 관한 병은 없으시고 15년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세요.
가격은35.000원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1143-12-049474 송 명화

건강을 잡아라 장수 호두약돌 생명의氣



부드러운지압용 장수호두약돌(小)



강한 지압용 장수호두약돌(大)

황토생명공학 센타에서 황토와 , 음이온, 원적외선, 氣(기)를 이온 결합시킨 장수 호두약돌을 개발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호두는 오랜 옛날부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아주 절친한 손놀이 지압용으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 손운동, 지압을 많이 하면 대뇌를 활성화시켜 머리를 좋게 하고 치매를 예방하며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하고 손 예술을 창조한다. 장수호두 약돌은 자연산 호두와 모양이 같으며 常溫(상온)에서 강력한 氣를 발산하고 건강증진과 활력 증가에 도움을 주는 음이온은 초당 2100까지 발산되며 원적외선은 0.93% 발산되며 해독성이 강한 황토가 다량 들어있는 신기한 호두석으로 손에서 놀이삼아 돌리면 손이 따뜻해지며 온몸에 생명의氣를 체험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분, 항상 피로감을 느끼는 분, 수술을 받으신 분, 연세가 많으신분 등은 휴대가 간편하므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손 운동을 하면 좋다.

가격:(소) 33.000원 (대) 38.000

문의전화: (02)3210-3179

※목걸이와 팔찌도 판매예정임

만다라 문화원
진품 만다라 친견 · 감상
매일 오전 10시~오후 9시
02)3673-3881

‘나’ 비우면 氣찬 춤사위 저절로…



“인간과 자연의 교감에서 ‘생춤’ 탄생
연습은 무의미 즉흥적 동작 생동감 전해
구분·경계 벗어난 비움만이 진정한 춤”

산문밖의 禪

국립무용단장 김 현 자

모든 생명에는 ‘기(氣)’가 존재한다. 자연에서 비롯된 그 기운에는 자연이 존재하는 가치와 질서가 부여돼 있다. 또 그 속에는 언어를 갖지 않은 생명 에너지가 축적돼 있다. 그래서 ‘생기(生氣)’라고도 한다. 이 생기를 몸짓언어인 춤으로 15년동안 표현해 온 김현자(56·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국립무용단장. 올 1월에 새로 취임한 김 단장의 춤인생에 ‘생춤’과 ‘기춤’이란 수식어가 항상 따라 다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생춤?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춤이 살아 숨쉰다는 것일까? 김 단장이 처음 시도해 브랜드화 시킨 ‘생춤’은 미리 연출된 인위적인 조작에서 벗어나 안무가의 몸속에 흐르는 기의 움직임에 따라 추는 춤이다. 그래서 생춤은 자연의 변화성과 그 생명성이 지니는 창조의 본질을 찾아 춤사위를 흘날린다. 때문에 거기서 내재(內在)하는 인간의 기는 몸이라는 춤의 주체가 지닌 단순한 에너지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환경의 모든 교감위에서만 기가 활용됩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변화와 깨우침을 요구하며, 창작성의 자유를 시도하고 실험하는 것이 필요하지요·바로 이것이 생춤의 기본적인 창작 정신입니다.”

김 단장의 춤인생은 항상 변화와 실험, 도전의 역정이었다. 86년 ‘황금가지’에서 한국무용의 단아한 전통적 형태를 깬 ‘기춤’이라는 과감한 실험으로 충격을 줬다. 95년 ‘하루’에서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얼음위에 앉아 움직임 자체를 포기하는 ‘생춤’으로 논란을 빚었다.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깬 다양한 시도 덕분일까. 그의 춤을 바라보는 관객들은 항상 짜릿했다. 그의 춤은 탐미적이고 실험적이었다. 흐느끼는 사지(四肢)에선 다음 동작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신들림과 몰입의 경지가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생춤 공연을 앞두고 춤연습을 결코 한 적이 없다. 생춤을 추기 위한 기(氣)훈련을 위해 무용수들과 한달여 기간을 합숙훈련하는 게 연습의 전부였다.

“광대무변한 우주도 자연스런 이치에 따라 그냥 흘러가는데 한낱 짧은 순간 허공에 사라져 버리는 춤사위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그 틀에 맞추기 위해 반복한다는 것이 왠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춤동작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명상수련과 단전호흡을 통해 나오는 즉흥적인 춤사위가 오히려 관객들에게 생동감 있게 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김단장의 무대 인생 50주년을 정리하는 생춤 ‘그 물속의 불을 보다’는 좋은 예이다. 7년만의 숨고르기 끝에 선보인 이 공연에서 김씨는 안무만 맡았다. 5년전 발목 부상으로 한동안 무대에 설 수 없었고 이제 치료는 끝났지만, 부산대 교수로 활동하다 지난 97년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로 부임하고부터 제자들 키우기에 바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생춤을 추면서 ‘비움’을 위해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애씀’ 자체가 ‘비움’이 아니라 바로 ‘무심’이 ‘비움’인 것을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열정적인 춤꾼으로 살았던 지난 50년 세월동안 자신도 미처 몰랐던 화두가 ‘비움’이었다. 텅비어 있을때만이 가득 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솟구쳤다. 이때부터 강화 보문사, 부산 선암사, 문경 봉암사 등 여러 사찰을 다니며 ‘비움’을 화두로 삼아 수행 정진을 했다.

“구분과 경계를 떠나 스스로 춤사위에서 해방돼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 내고 싶었습니다. 화려한 테크닉에 집착하기 보다는 기를 내면으로 끌어들여 다독이며 나와 우주, 또 춤사위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줘야겠다는 결심이 서더군요.”

국립무용단장 취임 후 4월 국립극장 무대에 올린 첫 창작춤 ‘바다’는 기춤과 전통춤을 조화롭게 융화시킨 생춤의 결정이었다. 전통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춤언어로 바다를 자연주의적으로 묘사하는 한편 바다의 이면적 깊이에 대한 성찰을 담았다. 춤은 전통춤 고유의 정적인 움직임에서부터 전통 춤사위에서 뽑아낸 활발하고 역동적인 움직임까지 두루 아울렀다. 살풀이로 면바다의 고요를, 택견 동작으로 바다의 격동적인 힘을 형상화했다. 그러나 모든 춤의 기본은 김 단장이 꾸준히 추구해온 기(氣) 호흡이다.

현재 김단장은 독창적인 자신의 춤세계를 가꾸고 단장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무용원 교수직도 3년간 휴직을 했다. 이런 김단장이 다시 무대에 펼쳐보이고 싶은 춤사위는 어떤 것일까. “처음에는 불립문자(不立文字),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춤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위를 하고 싶다는 것 자체가 욕심이라는 것을 알게 됐지요. 이제는 오랜 길을 돌아 거울앞에 앉은 국화꽃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것에도 구애받지 않은 자유롭고 걸림없는 춤을 만들며 춤 인생을 비워내고 싶습니다”고 여운을 남긴다.

글=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사진= 박재완 기자 jypark@buddhapia.com



◇ ‘생춤’을 추고 있는 김현자 단장.

김현자 단장은 1947년 진주에서 태어나 다섯 살 때부터 춤을 시작한 김현자 단장은 70년 이화여대 무용과와 94년 한양대 대학원을 졸업한 뒤 부산시립무용단 상임 안무자, 부산대 교수, 럭키창작무용단 상임 안무자를 거쳐 1997년부터 무용원 교수로 재직해 왔다.

1986년 ‘황금가지’에서 새로운 한국창작무용의 영역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또 동양철학에 기반해 기(氣)의 흐름에 몸을 맡긴다는 ‘생춤’ 등으로 무용계에 충격과 논란거리를 던지며 독자적인 춤 양식을 다듬어왔다. 지난해 12월 신작 ‘그 물 속의 불을 보다’로 ‘2002 춤 비평가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릴레이 수행일기 〈上〉



양성흥

대영E.B.Z상사 대표이사

초등학생 시절 어머니와 함께 영천에 있는 거조암과 묘봉암이라는 자그마한 암자에 자주 들렀다. 여덟 살에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넓은 과수원의 많은 일들을 책임져야 할 어머님의 역할은 너무도 컸던 만큼, 산사를 찾는 그 정성 또한 대단하셨다. 어린 나에게도 기도의 생활은 생소하지 않았다. 그런 어머님의 정성으로 대학생활

선지식 몰라본 나의 우매함 가슴에 맺혀

자만, 아집으로 살아온 인생 삼천배로 참회

을 비교적 순탄하게 보내면서 성북동 녹야원학생회 활동에 참여하여 처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책으로 접하게 되었지만 어렵고 재미없다는 핑계로 쉽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자신만만했던 젊음으로 사업에 도전했지만 실패를 거듭하면서 많은 혼돈과 갈등 속에서 지냈고, 산다는 것에 회의를 느끼며 생활의 의욕을 잃으면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였다. 나에게 주어진 운명만 탓하며 원망하다가, 한 때는 성수동 교회에 나가면서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며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보았다. 그러나 '인간은 원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그것을 사(赐)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종에 불과한 것이 인간이다'라는 도리가 나를 더 불안하고 초조하게 했다. 그러면서도 뭔가 붙잡고 싶어 하는 나의 의지는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가슴을 더듬는 것처럼 본능적이었다.

하루는 얼마를 걸었던가. 길도 알 수 없는 곳을 찾아들어간 곳이 안암동 개운암이었다. 그때 내 나이 서른둘, 절 입구에서 두리번거리다가 댓돌에 신발이 있는 곳에서 멈추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문을 열어보니 스님 한 분이 가부좌를 틀고 계셨다. 무조건 들어가서 "스님, 마음의 고통을 덜어 보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두 번 세 번을 물어도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니 맘대로 해라" 하시었다.

다리에 기운이 없어 꼼짝을 못하고 서있었던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스님은 한참 후에야 돌아앉으시더니 4권으로 엮은 책을 건네주시면서 "이 책을 읽어보고 다시 오너라" 하시고는 또 돌아앉으셨다. 나의 덕이 부족한 탓으로 그날 스님과의 만남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그분은 당대의 선지식이었던 탄허 큰스님 이셨다는 사실을 몇 년 후 일간지에서 열반 소식을 보고서야 알았다.

나중에 불교공부를 체계적으로 하면서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선지식을 몰라보고 다시 오라고 일러 주셔도 가서 뵙지 못한 나의 우매함이 두고두고 가슴에 맺혔다. 그 후에 심한 교통사고로 건강은 더 악화되었고 6개월을 걷지 못했던 병원생활이 갑갑해 우울증마저 생겨 삶은 고뇌의 연속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서 옆 침대의 환자를 문병 온 봉은사 신도에게서 기도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때부터 불편한 다리로 봉은사에 가끔씩 나가 신도회 활동을 하였고 교리공부를 조금씩 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봉은사에서는 미륵대불의 불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하루는 삼천배를 한다는 것이었다. (계속)

지관 체험 통해 깨달음의 길 안내

위빠사나 지도하는 재가법사들

"수행 중에 몸이 부분적으로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어떤 현상이든 알아차릴 대상으로 보십시오. 없으면 없는 대로 알아야 합니다."

"호흡도 없어지고 몸의 감각도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호흡을 포함한 몸의 느낌이 완전히 감지되지 않으면 그때는 아는 마음인 앎을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5시 30분 서울 강남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심념처(心念處)' 수행을 지도하는 묘원 법사와 수련생간의 인터뷰 내용이다.

최근 위파사나 수행법과 상좌부 불교의 국내 유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재가법사들의 수행지도는 더 이상 낯선 광경이 아니다. 위빠사나를 지도하는 재가법사들은 대부분 미얀마의 마하시 수행센터 등 세계적인 수행처에서 비구계를 받고 수행하다, 국내에 귀국하는 동시에 환계(還戒)하고 재가법사로서 수행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국내 재가법사 가운데 깊은 체험을 바탕으로 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는 김열권 법사와 묘원 법사다.

봉인사와 요가명상원, 정신세계원 등에서 위빠사나를 지도해 온 김열권 법사는 아나파나사띠(호흡관)를 중심으로 위빠사나를 지도한다. 정신 통일을 위한 사마타 호흡(무드라, 선정 3식, 진원진기), 자비관, 불성관, 생사관 등 예비 수련과 수행자 특성에 따라 태국의 아짠담마다로의 기공 위빠사나, 아짠문의 만트라 위빠사나, 미얀마 순륜 스님의 감각 관찰 위빠사나, 쉐우민 스님의 마음관찰 위빠사나 중 택일하여 아나파나사띠와 함께 지도한다. 10



◇한국 위빠사나 수행자들의 근본도량이나 다름없는 미얀마의 마하시 수행센터의 정진 장면.

미얀마 등 현지서 배워 국내불자 지도

경전에 근거한 체계적 수행과정 호평

년간 간화선을 닦다가 1990년 미얀마로 출가해 위빠사나를 수행한 김 법사는 〈보면 사라진다〉 〈위빠사나 Ⅰ, Ⅱ〉 〈위빠사나 12선사〉 〈고요한 숲속의 연못〉 〈깨달음으로 가는 오직 한 길〉 등 많은 수행서를 저술해 위빠사나 붐을 조성한 장본인이다.

1988년 국내에 위빠사나를 처음 소개한 거해 스님으로부터 위빠사나를 접한 묘원 법사는 96년부터 마하시 센터와 쉐우민 센터에서 7년여간 집중적인 수행을 했다. 신(身, 몸의 움직임), 수(受, 감각), 심(心, 마음의 움직임), 법(法, 생각의 대상) 등 사념처(四念處) 가운데 마음을 알아차리는 심념처(心念處) 수행으로 깊은 체험을 한 묘원 법사는 서울 강남 여성인력개발센터(매주 목요일 오후 2시~5시 30분)와 대전 둔산 정부종합청사 인근 수행처(매주 금 오전 11시~오후 5시)에서 사념처관을 지도한다.

수행과 학술연구를 병행하며 위빠사나 붐에 한몫한 법사들도 있다. 호두마을 김재성 법사,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임승택 연구교수,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황용식 교수(명상치료 전공)가 대표적이다.

김재성 법사(고려대장경연구소 선임연구원)는 일본 동경대학에 유학, 초기불교 및 상좌불교, 부파불교의 아비달마 등을 연구하고, 1991년 미얀마의 빤디따라마에서 하안거를 지낸 이후 위빠사나 수행과 지도를 겸하고 있다. 〈붓다의 말씀〉(고요한소리) 〈지금 이 순간 그대는 깨어있는가〉(고요한소리) 〈위빠사나 수행의 길〉(호두마을) 등의 역서를 내고 인터넷 사이트(http://vipassana.buddhism.org)를 통해 활발한 사이버 포교를 펼치고 있다. 선상담연구원과 한국요가연수원에서 위빠사나를 지도하고 있는 임승택 교수는 초기불교 수행론을 집대성한 〈빠띠삼비다막가 역주〉(가산불교문화연구원)를 펴내 위빠사나 수행 연구의 토대를 만들었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에서 고엔카 위빠사나를 위주로 지도하는 황용식 교수(명상치료 전공)는 서양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수행을 접목시켜 삶에서 부딪히는 구체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한편 수행법을 배우는 교과과정을 실험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들 재가법사들은 향후 10년 안에 위파사나가 중요한 수행법으로 정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간화선 수행이 확철대오한 스승 밑에서 공부하지 않는 한 수행의 진전을 확인하기 어려운데 비해 위빠사나는 경전에 제시된 수행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수행의 모든 과정을 스승으로부터 점검 받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재가법사들의 수행지도가 가능한 것도 이러한 체계적인 수행과정이 있기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금강대승밀교총설' 펴낸 정태혁 박사



"밀교는 〈대일경〉이나 〈금강정경〉에 설한 바와 같이 현실생활 그대로에서 여래의 무상보리를 얻는 가르침입니다."

최근 〈금강대승밀교총설〉(정우서적)을 펴낸 정태혁(81 · 사진) 동방불교대 학장은 "밀교 수행이 무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임을 망각하고 수행과정의 방편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목적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 학장은 현재 진각종, 총지종, 진언종 등 밀교계통의 종단은 물론 여타 종단에서도 주력수행을 병행하고 있다며 밀교 수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사찰 생활이 모두 진언으로 성화(聖化)되고 각종 위령재를 비롯한 49재, 100일재 등 모든 불사가 밀교적인 의식에 따라 행해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밀교를 잘 모르거나 폄하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는 것.

모든 불사 밀교의식에 따라 행해져

모르거나 폄하하는 건 잘못된 견해

정 학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드러내서 설해진 가르침'인 현교(顯敎)에 달리 '비밀로 설해진 가르침'인 밀교(密敎)는 법신불인 대일여래(大日如來)가 깨달은 내용을 스스로 비추어 보면서 즐기는(自受法樂) 삼밀(三密)의 가르침을 닦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비밀불교는 부처님의 가지력(加持力)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상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아 이 몸 그대로 현세에서 성불하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

"부처님의 가피로 말과 마음과 몸으로 짓는 행위가 불위(佛位)에 있게 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표현하게 되면 그것이 '몸 그대로 성불'(三密成佛)한 것이라 합니다. 입으로는 진언을 송하고 마음으로는 삼매에 머물면서 몸은 인계(印契)를 맺는 것은 이러한 통일된 '불위'를 보이는 것입니다."

정 학장은 "우리 마음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구업(口業)이 주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진언(眞言)을 중시한다"면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세가지 업을 부처님의 힘을 빌어 정화한다는 의미에서 삼밀관행을 닦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 학장은 〈금강대승밀교총설〉에서 밀교가 전파되고 행해진 자취를 살피고 밀교의 근본적인 교리와 이에 따른 몇몇 경전을 소개하는 동시에, 밀교 신앙의 기본이 되는 진언다라미를 모아 해설했다. 김재경 기자

▧ 한국선문화연구원 육조단경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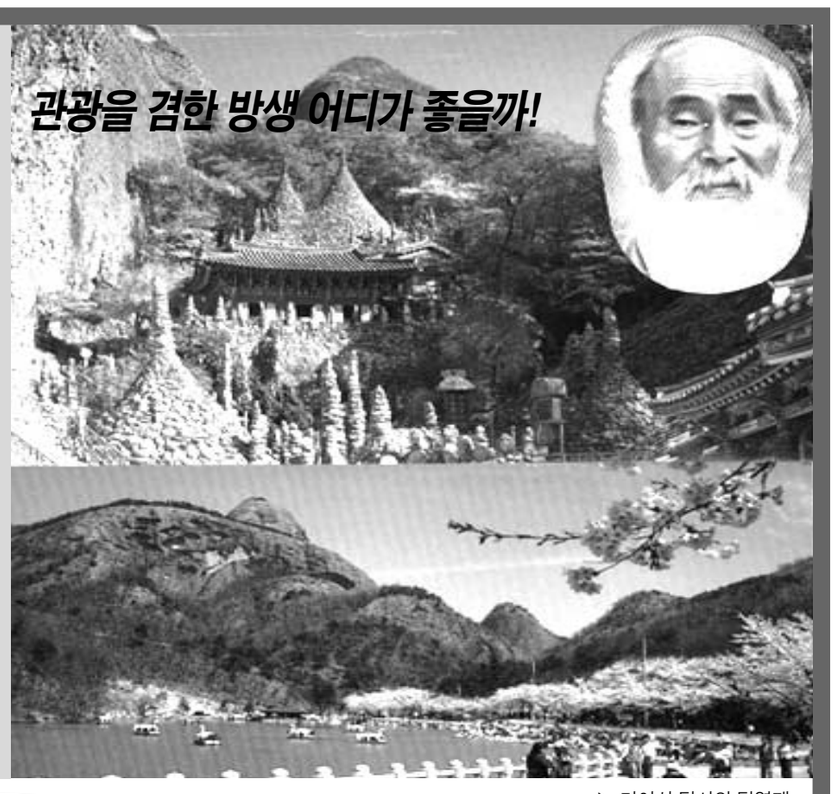


한국선문화연구원(원장 성본스님 · 사진)은 2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5시 육조단경 강의를 개설한다. 최근 성본스님이 펴낸 〈돈황본 육조단경〉(성본 스님 역주, 한국선문화연구원 펴냄)을 교재로 풍부한 해설과 중국 선종사 전반에 대한 강의를 병행한다. (02)765-6539

▧ 봉인사, 예인다까 스님 초청 수련회

경기도 남양주 봉인사(주지 적경)는 미얀마의 신진 수행승으로 존경받는 우 예인다까 스님을 초청, 16~25일 9박 10일간 위빠사나 수련회를 연다. 1956년 태어난 우 예인다까 스님은 10세에 제방스승을 찾아 삼장(三藏)을 섭렵, 33세에 마하시 선원, 아웅담마 선원, 냐웅깡에 선원, 모곡 선원 등에서 용맹정진했다. 아웅담마 선원에서 용맹정진 등지에서 정진했다. 이후 5년간 강원에서 삼장을 가르쳤고 41세에 마하시 선원 '깜마타나 싸리야 (수행지도법사)' 스님으로 추대됐다. 42세부터 수행지도에 전념했으나, 한국에서 위빠사나를 지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031) 574-55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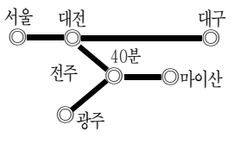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

'이 시대 최고의 명리학 이론인 〈최신팔자명리학비결〉 출간'

이 책 한 권이면 누구나 다 팔자 명리학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고급양장 / A-4용지 / 620 페이지

본서는 팔자 명리학을 〈팔자 심리학〉으로 까지 발전시켜 놓으신 〈대만〉 명리학계의 대가이셨던 〈하 건 충〉선생이 우주에 대한 깊은 통찰과 깨달음을 통해서 발견해 내셨던 고급명리 이론들을 15년간 명리학 연구를 해온 저자(오산 정대균)가 우리말로 쉽게 재구성 편집한 것이라, 일반인들도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본서의 주요 장점 :

- 팔자학의 제반 근본원리 규명(오행,십천간,십이지지 창조원리 등).
- 간단한 〈수학공식〉으로 어떠한 사주이든 쉽게 〈희용신〉을 찾을 수 있는 비결 공개(강약용신, 음양용신 및 구조용신).
- 최고급 사주분석이론인 심리분석론, 궁위론, 변성 및 변궁론, 일간 진입론 등 공개. 그 중 〈일간 진입론〉은 명리학 사상 최고급 수준의 명리이론임.
- 각종인연 (육친, 재물, 지위, 결혼, 등)분석에 관한 고급 추명 비결 공개.
- 십이지지 상호간에는 〈정.반.합〉의 법칙 및 〈사상(四象)운동〉에 의해 〈12종의 상호 작용원리〉가 존재함을 공개.
- 대운 및 유년운 해석비결 공개.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하기 홈페이지 주소로 방문하셔서 본서의 자세한 내용소개 및 구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람. 시중 서점에는 판매를 하지 않음.

www. 8-fortunecode.com

사주공부를 해본 여성으로서, 본 연구소에서 함께 일할 여성직원 한 분을 찾습니다. (30-40세 사이)

www. 8-fortunecode.com

오산팔자심리학연구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 3동 779-15호
전화 : (02) 831-0055 팩스 : (02) 831-0058 H·P : 011-208-0051

노래하고 이웃돕기 이보다 좋을수가!

바라밀현장

대구 '우리 여기에' 거리공연팀

적은 청중이지만 가수들 웃음, 활기 넘쳐

생계 어려운 다섯 아이들에 정기적 후원



◇매주 토요일 대구 지하철 동대구역 광장에서 거리공연을 하며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 '우리 여기에' 공연팀.

"파란하늘 파란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언덕에~ 아기염소 여럿이 풀을 뜯고 놀아요~ 해처럼 밝은 얼굴로."

5월 31일 대구 동대구지하철역 광장에서는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 위한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구경꾼은 불과 50여명 남짓 많지 않은 청중이지만 요즘 아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동요 '아기염소'를 노래하는 가수들의 얼굴엔 웃음과 활기가 넘친다.

이들은 1년이 넘도록 동대구역 공연장에서 거리공연을 펼치고 있는 '우리 여기에' 거리공연팀.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동안 거리공연을 한다. 소년소녀 가장돕기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밝고 맑은 곡들이 대부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에서부터 '우리 여기에' 팀장이자 언더그라운드 가수 박창근씨의 대표곡 '이유'를 비롯해 가수 김광석, 한대수, 김민기씨의 곡 등 누구나 흥겨워하고 좋아할 만한 노래들로 채워졌다.

가끔 공연도중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구경하던 어르신들이 막무가내로 마이크를 빼앗아 노래한다고 떼를 쓰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도 항상 웃으며 어르신들의 한이 담긴 '한오백년'에 장단을 맞추기도 한다. 음악을 사랑하는 거리 문화를 만들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위한 자선 음악회이자, 특별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이들만의 무대이기 때문이다.

박창근(32, 가수), 박성운(34, 가수), 성환우(39, 직장인), 손정호(36, 사회복지사). 4명의 프로급 가수와 아마추어 소리꾼들이 모여 지난해 4월 결성한 '우리 여기에' 회원은 현재 공연을 준비하는 스텝까지 모두 10여명으로 늘어났다. 모두 직장인이어서 매주 시간 내는데 제약도 많지만 웬만한 일이 아니면 토요일은 항상 거리공연을 위해 비워놓는다.

'우리 여기에'는 장애를 가진 형과 관절염을 앓고 있는 엄마와 살고 있는 정호, 병환중인 할머니와 동생을 돌보는 단비,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할머니에게 맡겨진 영수, 국민기초수급대상자로 보조를 받는 할머니와 함께 있는 예솔이, 할머니 이모할머니와 함께 살지만 한 사람분의 국민기초수급대상자 보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미지, 이렇게 다섯 아이들에게 매달 5만원씩을 정기적으로 후원해오고 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살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온다고 말하는 성환우씨는 "불합리한 사회제도로 인해 진정 도움을 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도움의 손길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공동모금회가 생긴 이후 거리모금을 통한 후원이 불법이 돼버려 안타깝다"고 말한다.

여러차례 공연을 하다보면 악기나 앰프, 스피커 등 고쳐야 할 것들이 하나 둘 생기지만 모금된 돈은 절대 쓰지 않는 것이 철칙. 어린이들의 코묻은 백원짜리 동전하나, 어르신들의 꼬깃꼬깃한 쌈지돈 1천원 한 장도 이웃을 돕고자 하는 정성이 깃든 것이기 때문이다.

하루 3시간 공연을 통해 모금함에 들어오는 돈은 5~10 만원선. 그나마도 대구지하철 사고가 생긴 후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부쩍 줄어, 다섯 아이들에게 보내줄 지원금도 빠듯하다. 그전에 적립해 놓은 돈이 있어 아직은 도움을 주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혹 이마저도 부족해지면 모두 자신의 주머니라도 털 기세다.

이들의 공연을 접해보고 싶다면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지하철 동대구역 광장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artmusician.com/withus-intro.htm)에서 만날 수 있다. (053)753-8883, 대구=박원구 기자

자비·사랑 함께, 이웃에게 새 생명을…

제4회 '난치병 어린이 돕기 종교연합바자회'

화계사 인근 1만여 주민 참여 5천만원 수익


◇5월31일 열린 '제4회 종교연합바자회'에서 주민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한데 뭉쳤다. 서울 수유동 화계사(주지 성광)와 송암교회(당회장 목사 박승화), 수유1동 천주교회(주임신부 이종남)가 함께하는 '난치병 어린이 돕기 종교연합 바자회'의 네 번째 마당이 서울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운동장에서 열렸다.

5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바자회장에는 신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기증품과 일반 사업체의 후원을 받은 옷가지들, 생활용품, 건강식품 등 50여 종의 물품이 시중보다 평균 30~50% 정도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었다.

자녀를 위해 운동복을 구입한 김순남(42, 성북구 수유2동) 씨는 "처음에는 한 번 하고 끝나겠거니 했는데 벌써 4년째 열린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물건도 싸고 수익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쓴다고 해서 해마다 꼭 찾게 된다"고 말했다.

종교연합 바자회는 첫 해인 2000년,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2천여 만원으로 난치병에 걸린 동네 아이 7명을 도운 것을 시작으로 2001년에는 4천 8백만원, 지난해에는 5천 4백여 만원을 모아 모두 41명의 난치병 어린이의 치료를 도왔다.

하지만 종교연합 바자회의 더 큰 성과는 행사를 준비하면서 얻게 되는 종교간 화합이다. 다른 종교에 대한 거부감으로 절이나 교회에 가는 것조차 꺼끄러워 했던 신도들도 해를 거듭할수록 함께 행사를 치루면서 정도 쌓이고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도 넓히게 되었다고 한다.

올해 바자회에는 지역주민 1만여 명이 참가해 5천여 만원의 수익금을 모았으며, 수익금 전액은 난치병 어린이 치료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애니 파첸 돌마 (下)

독립과 불교가르침 보전위해 정진

1년뒤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북부의 다람살라에 도착한 그녀는 꿈에 그리던 달라이라마를 친견하게 된다. 애니 파첸 스님은 이 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내가 히말라야를 넘어 중국을 탈출한 것은 달라이라마 성하를 뵙고자 한 일념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성하를 모시고 공식 기자회견을 했을 때, 더 이상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느낄 정도였죠. 수감기간 중 성하를 친견하리라는 꿈이 이뤄진 것입니다."

다람살라에 정착한 이후 애니 파첸 스님은 수행에 집중하면서 불성의 영원함, 초월, 자비, 용서 등을 더욱 내면화 시켰다. 아울러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어려운 티베트 난민들을 돕는 일에 발벗고 나섰다. 독립운동의 이력과 선행이 알려지자 애니 파첸 스님은 다람살라에 살고 있는 많은 티베트인들에게 영웅이 되었으며, 외국 특파원들의 인터뷰 요청을 받아 자신의 경험담을 말하기도 했다. 이때 기자들은 자주 이런 질문을 하곤 했다.

"중국의 감옥에서 당신을 고문한 교도관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지요?"



◇평화시위중인 애니 파첸 스님(왼쪽).

정착후 불성 더욱 내면화

티베트 알리는 일, 자신의 소명

이때마다 그녀는 웃으며 말하곤 했다.

"그것은 단지 업(karma)일 뿐이었죠. 나는 나를 투옥한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렇지만 교도관들 역시 양심을 가졌기에, 그들의 정신적 고통과 아픔을 자연스럽게 떠안기로 마음먹었을 뿐입니다."

애니 파첸 스님은 2000년, 자신의 일생을 다룬 책 <슬픈 산: 티베트 비구니 전사의 여행(Sorrow Mountain: The Journey of a Tibetan Warrior Nun)>을 출판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스님은 <슬픈 산>에서 이렇게 출간의 변을 밝히고 있다. "처음에 나는 출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감옥에서 나보다 더 고통받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결국 망명정부의 설득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젊은 티베트인들에게 나의 체험담은 티베트 현대사의 중요한 증거이자 종교적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수감기간 동안의 고문 휴유증으로 건강이 많이 악화됐지만, 애니 파첸 스님의 정신력만은 결코 흔들림이 없었다. 티베트의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는 열심히 강연하는 한편, 티베트 독립을 촉구하는 평화시위에 참석했다.

남은 여생동안 애니 파첸 스님은 미국 이외에도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등에서 티베트 독립을 호소하는 시위에 참가했다. 미국 의회와 각국 정부, 심지어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티베트 독립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서구인들은 이 부드러운 '여전사'를 통해 티베트 독립운동이 격렬한 투쟁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애니 파첸 스님은 <슬픈 산>의 후기에서 이렇게 자신의 일생을 회고했다. "나는 동료들과 함께 중국의 침략에 항거했습니다. 라사에서 평화적인 티베트 독립시위를 벌였으며,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을 보전하기 위해 정진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의 이야기는 남을 것입니다."

애니 파첸 스님은 이 책이 나온 지 2년뒤의 입적을 미리 암시하듯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인생은 하늘의 번개나 풀잎의 이슬처럼 순간적이며, 사랑하는 사람과 재물들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합니다. 단 하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김재경 기자

당신은 지금 진정으로 행복하십니까? 무엇이 당신을 불행하게 합니까! 그 모든 고통의 무게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늘 땅 맑은 기운이 머무는곳!

계룡산 천왕봉의 정기가 머무는 도량!

도학사 산중 수련회

모시는 말씀

귀의 삼보하옵니다

지금 까지 모든 수행법을 통해서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치 못하신 분들만 특별히 모십니다.

1. 수행과정소개
개인 및 단체가 또는 가족 단위로 주말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닦는 성명쌍수의 수행과정입니다.
각 신행단체, 직장단체, 각종 사회단체, 체육선수 내 외국인 단체 등 진정한 수행법을 알고 싶은 모든분들 모심.
※ 단체(20인 이상 기준회비) 조정

2. 참가회비 ◆ 2박 3일 : 10만원 ◆ 3박 4일 : 12만원 ◆ 4박 5일 : 15만원 ◆ 1 개 월 : 60만원

3. 수행일과표

시 간	내 용	시 간	내 용
4시	기상, 예불	오후 2시	불교기초교리
5시	선체조 및 참선	오후 3시	무술수련
7시	아침공양	오후 5시30분	저녁예불
8시30분	운력	오후 6시	저녁공양
10시	무술수련(태극선공)	오후 7시	(대체의학강의)
11시	워빠사나 수행	오후 9시	취 침
12시30분	점심공양		

4. 개강일 : 2003년 6월 17일 이후 년중무휴
5. 참고사항
(가) 매주토요일 주지스님의 면담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 입과 후 개인외출 및 술 담배는 일체허락지 않습니다.
(다) 규칙을 어길 경우 일정제재나 퇴소조치됩니다.
6. 접수처 : 041)857-0830, 019-538-0830
7. 준비물 : 필기구, 세면도구, 운동화
8. 신청기간:단체는 3일전에 예약 개인은 수시접수
9. 입금처 : 국민은행 479-21-0198-177 (예금주 : 권민주)

찾아오시는 길
충남 공주 터미널 하차 하시면 참선, 윗빠사나, 실전무술(태극선공) 전문수행도량 차량운행

※ 공양주 모집 : 00명
대우 : 80만원 한달 2회 휴무
한의학, 대체의학, 마음공부하실분 특히환영
※부전스님도 모십니다.

충남 공주시 이인면 발양리 86-1번지
도학사 도학선원 주지 光明 道眼

지장보살원력 입은 달마도 보급에 나선 보현스님

달마도의 신비스러운 원력 함께 나누는 삶 서원


보현스님

새벽 맑은 공기가 창을 넘어오는 시간이다. 달마도에 취해 명상에 빠진 보현스님은 날이면 날마다 붓을 들고 그리고 또 그린다. 앳된 여승을 바랑을 질어지고 목탁을 두들기며 서울 시내 지하철역마다 내렸다. 다시 타고 다음역으로 향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달마도를 1년에 전 지하철을 4바퀴를 돌며 불교을 전하고 그들의 찌든 마음을 열어주는 포교를 해왔다.

전생의 인연으로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병치레를 일삼았던 스님은 걷는 것조차 힘겨워 했다. 그러나 어느날 비몽사몽간에 꿈에 부처님께서 나타나 "내 제자가 되면 몸의 병도 낳고 건강이 회복될 터인 부가에 귀의하라."는 선몽을 주시고 떠난 후 출가를 결심하고 지금은 타개하신 은사스님과 인연을 맺고 불가(佛家)에 귀의하게 되었다.



출가 후 줄곳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발원에 발원을 거듭하며 증진하던 중 지장보살님의 화현하심을 영접하고 달마도를 펼쳐 보여 주시며 "이 달마도를 마음에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 보급하면 이 달마도가 있는 곳 마다 영험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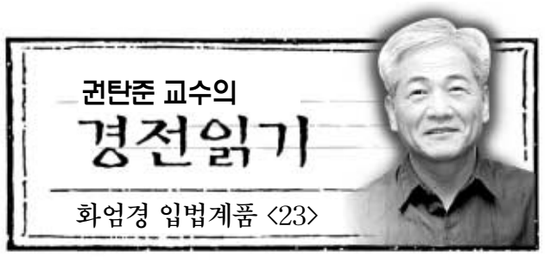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키 어려운 가운데 붓을 들고 지장보살님께서 보여준 달마도를 그리자 자신도 모르게 화선지에 달마선사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원래 그림을 공부한 적이 없어 처음에는 제대로 붓이 움직이지 못하더니 이제는 여느 작가 못지않은 독창적인 면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동안 많은 인연들이 저의 달마도를 소장하게 되었지요." 서울시내에만 무료로 일만 여점의 달마도를 보급해 그들이 달마도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지난 경제위기 때에는 안양의 00아파트를 지어 놓고 분양을 못해 부도직전에 이른 수원의 어느 건설회사는 분양사무실에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걸어 놓고 분양을 시작했는데 전세대가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를 마쳤다고 한다. 또한 불면증에 시달이던 어느 신도님. 몸이 병이 있어 고생하시는 분이 달마도를 걸어 놓고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하고 수맥이 차단 되는 등 그 신비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보현사를 찾은 광명시의 정명자(50세)신도는 귀띔한다.



지금은 구로구에 법당을 마련하고 홍익대에서 체계적인 그림공부를 하면서 날마다 달마도를 그리며 지장보살님께 "이 땅의 병들과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의 법력으로 치유되고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에게 달마선사의 원력으로 어렵고 괴고운 고(苦)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날마다, 날마다 서원하고 있다.

문의 전화 02)857-4576, 017)430-5008 보 현 사 보현스님 합장



미가의 윤자장엄법문

선재 동자는 선주 비구로부터 '드라비다'라고 하는 나라의 자재성(自在城)에 있는 미가(彌伽)를 찾아가서 보살행을 물으라는 가르침을 받고 그를 찾아갔다. 자재성에 이르러 보니 미가는 시장 가운데에서 법좌(法座)에 앉아 일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윤자장엄법문(輪字莊嚴法門)을 연설하고 있었다. 윤자장엄법문이란 언어와 문자를 마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자유롭고도 훌륭하게 구사하여 교법을 설하는 것을 말한다. 미가는 세속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는 세속의 번뇌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간의 기예와 문자를 훌륭하게 닦고 갖추어서 그것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법문을 설하여 해탈을 얻게 하고 있다.

선재 동자는 그에게 법을 설하여 주기를 청하였다. 이에 미가는 선재 동자에게 새삼스럽게 무상보리심을 이미 내었는지를 묻자, 선재 동자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미가는 문득 법좌에서 내려와 선재 동자에게 오체투지로 예경하고, 갖가지 공양거리로 공양하며 선재 동자가 무상보리심을 낸 것을 찬탄하였다.

법을 물으러 찾아온 제자에게 스승이 도리어 오체투지로써 예경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가가 선재 동자가 보리심을 이미 내었다고 하는 것을 듣고 그에게 예경한 것은 보리심은 성불할 수 있는 인(因)이고, 진정으로 보리심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법기(法器)가 되기 때문에 초보의 수행자라고 할지라도 공경을 받을 만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미가의 태도를 통해서 아만심(我慢心)을 버리며 보살행을 행하는 자세와 함께 제자를 진정으로 격려하고 지도하는 스승으로서의 자세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

갖가지 법 설해 환희심, 해탈 얻게 해
중생들의 말 모두 분별해 진리 설명

선재 동자의 물음에 미가가 대답하고 있는 내용은 주로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의 힘과 덕(德)에 관한 것이다. 그는 먼저 보리심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설하고 있다.

"보리심을 낸 사람은 모든 부처의 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고, 모든 부처의 세계를 깨끗하게 장엄한다. 모든 중생을 성숙케 하고 모든 법의 성품을 통달하게 한다. 모든 행을 원만케 하고, 모든 서원을 끊어지지 않게 한다. …또한 모든 중생세계를 편안케 하나니 나쁜 길을 버리게 하고, 어려운 데에서 벗어나게 하며, 모든 가난의 근본을 끊게 하는 까닭이다."

이어서 미가는 보리심에 바탕을 두고 살아가는 보살의 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한다.

"보살은 모든 중생의 믿을 곳이 되나니 중생을 키우고 성취시키기 때문이다. 모든 중생을 건지는 사람이 되니, 여러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모든 중생이 의지할 곳이니 세간을 수호하기 때문이다. 모든 중생을 구호하는 사람이 되나니, 그들의 공포심을 면하게 하기 때문이다. …뱃사공과 같으니 진리의 바다에 나루를 보여 그리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다리와 같나니 생사의 흐름을 건너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리심의 힘과 덕에 대해 설하면서 미가는 보리심을 일으킨 선재 동자를 찬탄하며 여러 보살들도 기쁘게 하였다. 그리고 미가가 얼굴에서 여러가지 광명을 놓아서 삼천대천세계를 비추니, 그 가운데 있는 중생들이 이 광명을 만나고는 모두 미가가 있는 곳으로 모여 들었다. 미가 대사(大士)가 이들에게 윤자품장엄법문(輪字品莊嚴法門)을 연설하고 분별 해석하니 저 중생들이 그것을 듣고 모두 아뇩다라삼먁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되었다. 이와 같이 미가는 다양한 중생들을 상대로 하여 그들에게 알맞은 갖가지 법을 설하여 환희심을 내게 하고 해탈을 얻게 한다.

미가가 다시 선재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이미 묘한 음성다라니를 얻었으므로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말을 모두 분별하여 알 수 있다. 나는 다만 이 보살들의 묘한 음성다라니광명법문만을 알 뿐이고, 저 여러 보살마하살들이 모든 중생의 여러가지 경계에 두루 들어가는 공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미가가 터득하고 있는 법은 세속의 여러 중생들의 언어에 통달해 있는 것이다. 언어는 중생들이 서로 교감함으로써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중생들 상호간의 세속생활은 기본적으로 언어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가는 묘음(妙音)다라니를 성취하여 모든 중생들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생들의 여러 가지 모습에 따라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시설된 모든 수단 즉 문자, 언어, 문장 등 모든 것에 통달해 있는 것이다. 그리하며 이들을 활용하여 모든 경우에 적절하고도 진실하며 아름다운 언어로써 법을 설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면 반드시 모든 장애를 없애고 해탈을 얻게 되며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보조지눌의 '간화결의론' ⑱

화두 공부에서 열가지 병

활구란 삶 자체다. 산길을 걸어보고, 도시의 자동차 소리를 들어보라. 그 자체로 경이로움이다. 그것은 산뜻한 행복감이다. 하지만 일상의 바쁜 우리는 전화벨 소리에도 짜증이 나고 날씨처럼 감정이 들썩거린다. 어떻게 할까? 억지로 그것을 해석하고 억누른다. 억눌린 감정은 더욱 거북스럽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공부의 병이다.

선문에서는 보통 이런 병을 열 가지 지해의 병이라고 부른다. 활구를 참구하는데 있어 잘못된 열 가지의 병을 지적한 이는 대혜 선사이다. 이것을 보조 선사는 '십종지해지병(十種知解之病)'이라고 이름하였다. 이런 화두 참구에서 발생하는 지해의 병통을 처음 지적한 이는 무자화두를 도입한 오조법연(五祖法演: ?-1104) 선사였다. 그는 법당에 올라 다음과 같이 설했다.

대중 여러분, 조주의 무자(無字) 화두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노승은 다만 무자를 들어서 문득 쉰다. 그대들이 만약 이 무자를 뚫고 지나갈 수만 있다면, 천하의 누구도 그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뚫어야 하는가?

경험아닌, 논리적 개념에 의한 해답 찾는 길

뚫고자 한다면 철두철미하여야 한다. 말해보라. 나는 있다고 말하는 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또한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고 말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대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화두의 본질은 쉬는 것이다. 그러나 화두를 우리는 의심하라고 하면, 우선 그것에 대해서 논리적인 해결을 구한다. 왜냐하면 의심이란 분명하게 알지 못한 무엇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명하려 한다. 어느 날 조주 스님은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무(無)'라고 대답한다. 대승경전인 <열반경>에 의하면 모든 것은 불성이 있다. <무량수경>에서는 바위나 냇물과 같은 무정물조차도 불성을 드러낸다고 했다. 이렇게 보면 개에게 불성이 있는가 하는 질문은 오히려 어리석은 질문이다. 당연한 질문인데, 조주는 단호하게 '무'라고 외쳤다.

여기서 대부분 조주 선사와 같은 대덕의 말씀이니, 어떤 이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무자는 어떤 의미를 함축하는가에 대해서 해답을 찾기 시작한다. 세상의 모든 공부가 그렇고, 경전공부도 그렇고, 선에 대한 공부도 마찬가지의 방식을 고수한다. 이렇게 개념으로, 관념으로 헤아리는 공부를 '지해의 병'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경험이 아니고, 논리적인 개념에 의한 해답을 찾는 길이다. 사실 개념은 추리이다. 직접적인 체험은 아니다. 개념의 대상은 관념이다. 체험의 대상은 삶 그 자체이다. 삶을 개념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의 습성은 불성을 파악하는데도 이런 개념틀을 활용하여 해석하려 든다. 이것은 확실하게 병통이다.

대답해보라. 불성은 있는가? 혹은 없는가? 동시인가? 아니면 불성은 있지도 없지도 않는가? 이런 네 가지의 분별에 의지한 질문은 초기 불교경전의 문답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존재에 대한 서로 다른 다양한 이해방식이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존재 자체를 드러내지 못한다. 이것은 경험이 아니라, 개념적인 추론이기 때문에, 환이고, 그림자일 뿐이다. 그렇다면 선문에서처럼 눈을 깜박이고, 소리를 질러대고, 주장자를 치는 것은 어떤가? 이것도 광대노름이다. 귀신이 지나가는 방귀소리이다. 차라리 돌아서서, 냇물에 손을 씻는 것이 낫겠다. 차라리 시장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겠다. 무(無)야.

■인경(禪상담연구원장)
(02-733-5311, www.seontherapy.org)



마음은 에너지와 같은 성질 지녀

<한마음 요전>에 의하면 "우주의 공(空)에서 4대(四大)가 벌어지고 4대로부터 입자가 생산되고 그 입자가 모인 것이 마음이다." "마음은 체(體)가 없는 입자(粒子)로 되어 있고, 마음을 내면 입자가 나온다." "사람이 한 생각을 내면 그것은 빛보다 빨리 우주 법계를 뻗어 간다."라고 되어 있어 마음은 물리적 에너지와 같다고 하였다. 그러면 오늘날 지식으로는 '마음의 에너지'에 관하여 과연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한 번 살펴보겠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공대 교수 로버트 쟌과 심리학 교수 브랜다 듄은 전자난수(電子亂數) 발생기(RNG)를 사용하여 사람의 마음이 전자(電子)에 미치는 영향을 대대적으로 연구하였다. 즉, 마음의 의지대로 전자의 '0'이 튀어 나오거나 혹은 전자의 '1'이 튀어 나오게 할 수 있는가를 1970대부터 1996년까지 1262건에 달하는 방대한 실험을 통해, 인간의 마음이 전자(물질)에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마음의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와 동일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집합무의식 통해 사람사이 정보 전달
몸 밖으로 방사 동물, 식물, 물질에도 전송

미국 심리학자 찰스 다트, 마리리 슐리츠, 더그라스 딘, 프랑스의 심리학자 장 바리 그리고 네델란드의 심리학자 엘렌더 허럴드슨 등은 국제간 공동 연구를 통하여 사람 마음 속의 집합무의식은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두 사람 사이에 마음의 정보가 전송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

딘 라딘은 <의식의 세계>라는 저서를 통하여 1974년부터 1997년까지 사람과 사람과의 마음의 전달에 관하여 발표된 논문이 2천549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은 몸밖으로 방사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은 확고부동한 사실이라고 하였다.

미국의 양자생물학자 글렌 라인은 심령치료사를 이용한 실험에서 마음의 집합무의식은 몸밖으로 방사하여 마음의 의도에 따라서 배양중인 암세포를 증식시킬 수도 있고 억제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호주의 시드니 공과대학 교수 커컵(Les Kirkup)은 마음의 내용을 전송하는 장치를 개발하여 이것을 마인드 스위치라고 불렀다. 마인드 스위치는 머리에 띠를 두르고 "텔레비전아 켜져라", "오디오야 켜져라", "냉장고야 켜져라", "형광등아 켜져라"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 마음의 내용이 무선으로 전송되어 95%에서 정확히 그렇게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마음이 텔레비전, 오디오, 냉장고 및 형광등 등에 전달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미국은 1971년 우주선 아폴로 14호의 우주인 에드가 미첼과 지구에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마음의 전송(spiritual telegraph)이 가능한가를 실험했는데,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그 후 미국은 지구에 있는 사람의 마음과 인공위성에 있는 전자 장치와의 사이에도 정보 전달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학이 불교로부터 배워야 할 점은 마음은 에너지와 같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물이나, 식물 그리고 물질에도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충남大 의대 산부인과학



신라천년의 숨결 화랑이 나를 부른다~

선무도 청소년 화랑(여름) 수련회

골굴사 선무도대금강문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선무도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산사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나태해지기 쉬운 방학생활이나 휴가를 보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 대안교육의 새지평'** (조선일보-2001.12)이란 평가를 받은 선무도의 사찰 수련을 통해 평소 부족한 운동량을 보충하며 화랑의 호연지기를 맛봄으로써 **건강하며 활기찬 삶, 화합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삶**을 배워 익힐 수 있습니다

▶ **언 제** : 하 계 - 7월 ~ 8월(2달간)
▶ **모집 인원** : 수시모집(1주, 2주, 한달)
▶ **대 상** : 초등학생이상 개인 및 단체, 불교학생회 단체 위탁교육은 할인됩니다.
▶ **동참금은** 청소년 - 1일 2만원, 한달 60만원, 성인 - 1일 3만원, 1개월 65만원.
접수를 하셨더라도 입금하지 않으면 예약확정이 안되오니 미리 해당계좌로 입금바랍니다.
농 협 721107-52-037300 (예금주 : 설기준)

- 수련내용 -

1. 안반수의 수행법,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참선, 불교한문, 전통문화(무용, 다도)
2. 기림사, 감은사지, 장항사지, 동해 문무대왕릉 등의 성지순례
3. 주지스님의 초발심 자경문과 부모은중경 강의를 통해 심성정화 및 한문공부

※ 지도진 : 스님 · 사법 등 10명, 무용강사 4명(현직교사 전공자), 다도강사 2명(부산여대 다도대학원)
※ 접수 및 문의 : Tel. 054)744-1689, 745-0246 Fax. 054)746-0172,
홈페이지 www.sunmudo.com

일 과 표

시간	내 용	시 간	내 용
4시	기상, 예불	13시	독서와 사색
5시	좌선	14시	오후 수련 및 전통문화 강습(학생)
6시	조깅, 등산	16시	운력(도량 청소 및 정비작업)
7시	아침 공양(발우 공양)	18시	저녁공양
9시	오전 선무도수련	19시	예불, 자율학습 및 참회록(학생)
11시	108배 참회기도, 자아를 향한 서원	19시 30분	저녁수련(일반인)
12시	점심 고양	21시	점호 및 취침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굴사
선무도 대금강문 선무도 대학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하신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인연이 되어 옛부터 금강산에서 전해오던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기에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승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법제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 을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경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지수 대진 합장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에인다까사야도초청 위빠사나 수련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바로 그 위빠사나 수행법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법 만나기 어렵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자는 많으나 위빠사나 수행하는 이는 적네..."

◉ **일시 : 6월 16일(월) ~ 6월25일(수) - 9박 10일**

◇수 련 비 : 30만원
◇지도스님 : 에인다까 사야도(미얀마스님)
◇준 비 물 : 간편복장, 세면도구, 노트, 필기도구,담마를 체득하겠다는 서원 "통찰의 체험"이나 "지금 이순간 경이로운순간"을 읽고 오세요.

사야도 에인다까

◉ **품계 : 담마 까디까(법문 법사)**
◉ **깜마 타나 싸리야 (수행지도 법사)**
◎ 1956년생
◎ 10세 출가 -제방스승을 찾아 삼장을 섭렵함.
◎ 33세 마하시 선원, 냐웅깡에 선원, 모곡 선원 아웅담마 선원에서 용맹정진
◎ 36세 5년간 강원(비구사미)에서 삼장을 가르침 (간타와사까 라는 칭호로)
◎ 41세 마하시 선원에서 "깜마타나 싸리야" 사야도로 추대됨
◎ 42세 따담 마란디 선원 큰사야도의 십대 제자로 지금까지 수행지도

▷ 연락처 : 031)574-5585, 528-5585 / Fax 031)574-0808
www.bonginsa.net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릉 2리 304번지

봉인사 한길정진원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23화)

"행복 찾아가는 여행"

〈출전 : 장로니게 77〉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욱



이렇게 들었다

6월과 미군

미선·효순이 잊혀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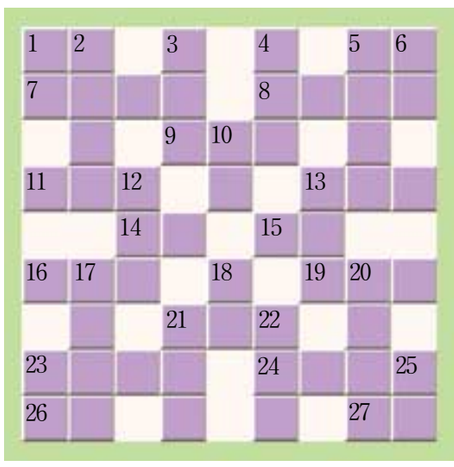
기념일 많던 5월이 가정의 달인 것처럼, 뭔가 기념할 일이 많은 6월에도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6일은 현충일, 10일은 6·10 항쟁일, 25일은 한국전쟁일, 29일은 6·29 선언일 등 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연관된 역사적 사건들이 6월에는 들어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날이 하루 더 있다. 바로 2002년 6월 13일이다. 지난 월드컵 대회에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포르투갈을 물리치고 16강에 합류한 6월 14일의 하루 전이다. 시청 앞 광장을 빨간 함성으로 뒤덮고 난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우리의 손에 촛불을 쥐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던 날이다. 미선이와 효순이를 기억하는가?

응원의 함성 속에서 두 여중생이 미군 궤도차에 숨진 지 1년이 지났다. 2002년의 마지막을 촛불로 물들이고 또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대통령까지 뽑았지만 달라진 그의 언행처럼 언제 그랬나 싶게 조용하다. 과연 1년 동안 미군은 얼마나 달라진 걸까?

불교가 깨달음을 구하도록 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보다 번뇌에 대한 이야기가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많은 것을 보고 선재는 처음에 무척 의아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 많은 번뇌들을 조금씩 만날 때마다 그리고 그것을 없애는 일의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선재는 스승들의 세심한 배려에 감탄해야 했다. 고통 투성이인 현실을 살아가는 중생에게는 번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깨달음에 대한 설명만큼이나 중요했다. 묶이고(繫, 縛) 묶여서(結) 시키는 대로(使) 끌려다니다 보면 선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것들도 잃어버리고(漏) 결국 괴로움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번뇌의 이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끊기 어려우니 자세히 알아야 한다는 뜻일 게다. 미선이와 효순이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주한 미군을 증강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연일 방송에서는 북한 핵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성명이 나온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호국보훈의 달에 역시 별로 달라진 것은 없이 숨어 있던(隨) 번뇌만 늘어났다.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상식퍼즐

가로

1.하늘로 돌아감 5.공 모양의 둥근 전등 7.길에서 만난 적이 있어 얼굴이나 아는 정도 8.한 없이 넓고 커서 끝이 없음 9.경주에 있는 절.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음 11.집착하고 있는 것을 모두 내려놓으라는 말 13.선의 호흡 등을 응용해 만든 무술 14.바위 굴에 산다는 뜻으로 속세를 떠나 산야에 은거함을 이름 15.음악을 연주함 16.식량이 없어 가난하게 지내는 봄철 19.남의 마음을 보는 법 21.근기가 높은 상태 23.삶과 죽음을 포함한 인생의 모든 일 24.6세기경 중앙아메리카의 마야족에 의해 발달된 원시 문명 26.호수나 바다에 둑을 쌓아 그 안의 물을 빼고 농경지 등으로 만드는 일 27.실제 현장에 가서 보고 조사함

〈424호 「교리퍼즐」 정답〉

우	주		평		최		천	상
유	상	무	상		면	상	우	피
	복		심	령	술		신	
보	합	세		혜		복	조	리
		령	계		준	마		
계	룡	산		화		전	생	담
	호		감	로	수		로	
세	상	만	사		종	합	병	원
우	박		장		사		사	리

세로

1.돌아가거나 돌아오는 길 2.하늘 위와 하늘 아래 3.일면불과는 반대로 수명이 하루 낮 하루 밤 밖에 되지 않는 부처의 이름 4.전남 승주에 있는 사찰. 승보 종찰 5.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음 6.말솜씨 10.나라의 땅 12.바위에 구멍을 뚫는 기계 13.선과 악에 대한 견해17.구멍에 든 뱀의 길이를 알 수 없다는 의미로, 사람의 마음이나 재주를 헤아리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18.연 뿌리 20.마음상태에 대해 답함 21.이성을 그리워 한 나머지 생기는 병 22.말을 타고 싸움을 하는 것을 본 뜬 놀이의 한 가지 23.간사한 꾀로 남을 속임 25.명성이 널리 알려진 사람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3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3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박종(동산불교대교수) · 문을식(동국대교수) · 권탄준(동국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권기종(동국대교수) · 최종석(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한정섭(금강선원이사장) · 김호귀(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 정토사상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 정규반 (100명) · 주간반 (50명) · 통신반 (50명) • 불교한문학과 (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3년 6월2일~ 2003년 8월 2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6시 (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2시 (주간반) · 매주 목요일 오후7시 (불교한문학과)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입학일시 2003년 8월 9일 (토) 오후5시 (동산불교회관)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 (조계사앞)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예전수보리쉼터 064)743-4184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연합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매일 아침 나무아미타불을 칭명합시다. 나무아미타불. 정토세계(淨土世界)를 열어 갑시다.

전국 염불만일회 2003년도 여름성지대회

대구팔공산 은해사에서 만납시다!



- 매일 나무아미타불을 부릅시다 -

전국 염불만일회에서는 1998년부터 염불 10대성지를 찾아 금강산 건봉사, 전남 대원사, 설악산 백담사, 해남 미황사를 순례하였고 2003년도는 아래와 같이 대구 팔공산 은해사 여름 성지대회를 마련합니다. 전국에 계신 염불만일회 회원과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2003년 7월 27일 ~ 29일(2박 3일)
◆ 장 소 : 대구 팔공산 은해사
◆ 접 수 : 전화신청(동참금 60,000원)
◆ 신청대상 : 개인, 사찰, 단체, 가족단위

全國念佛萬日會

110-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0
☎02)732-1215~7 / FAX 02)732-1207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새로나온 책

‘스님아빠’ 지홍 스님 수필집



‘누가 밥상을 차려주랴’

지홍 스님 지음

국부카르마 / 1만원

승복입은 택시기사로 버려진 아이들을 키우는 지홍 스님(보광정사)의 수필집 <누가 내 밥상을 차려주랴>가 나왔다. 현재 17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택시기사는 물론 바라춤과 염사일까지도 마다않는 스님의 일상들이 진솔하게 담겨 있다.

또 공부가 하고 싶어 스님이 된 독특한 출가 사연을 비롯해 스님아빠로서 살아가는 어려움, 승복입은 택시기사로 겪은 에피소드, 수행자가 바라본 사회의 군상들이 붓가는 대로 펼쳐져 있다.

‘身·受·心·法’ 관찰법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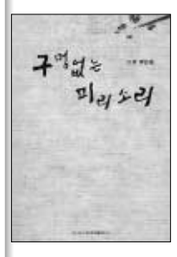
‘네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각묵 스님 지음

초기불전연구원 / 9천원

<대념처경>과 그 주석서인 ‘네가지 마음챙기는 공부’는 몸(身), 느낌(受), 마음(心), 법(法)에 대한 관찰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해설서이다. 저자는 네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에 대해 이 책에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마음을 챙기고, 시시각각 일어나는 느낌들에게서 느낌을, 마음에서 마음을, 법들에서 법을 챙기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네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四念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법만 스님 법문 詩語로 엮어



‘구멍없는 피리’

법만 스님 지음

이화문화 / 8천원

‘구멍없는 피리소리/저 고요가 시끄럽다지/한식경 지나면 잠에서 깨어/소리없는 소리 들어보게나/팔만 사천 법문이 모두 한소리/텅빈 피리 속 바람소리로 남아/ 저 먼저 울다가 돌아간다네’ (‘구멍없는 피리소리’ 중에서)

노래하는 스님으로 알려진 법만 스님(법만사 주지)의 선시집 <구멍없는 피리>는 스님의 평소 법문들을 정제된 시어로 엮은 책이다. ‘허공이 허공에게’, ‘주장자 치켜들고’, ‘공중무색’, ‘팔만대장경’ 등 60여편의 선시들이 담겨 있다.

‘팔방미인’ 초의선사 진면목 탐구



◇한승원 씨

‘초의’

한승원 지음

김영사 / 9천5백원



시·글씨·그림·단청·범패 등 다재다능

茶문화 보급 주력…다경요채 등 많은 저술

초의(1786~1866) 스님은 ‘호남 칠고봉’으로 추앙받던 뛰어난 선승. 글씨, 그림에 모두 능한데다 범패, 탱화, 단청, 바라춤에 이르기까지 팔방미인이라고 불릴 만큼 다재다능했다. 당대 지식인들은 그와 교유하기를 원했는데, 그가 ‘정신적 아버지’로 모셨던 다산 정약용을 비롯해 다산의 아들인 학연과 학우, 추사 김정희, 해거도인 홍현주, 자하 신위 등과 가까웠다.

하지만 초의 스님은 누가 뭐래도 차(茶) 문화를 보급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청나라 모문환이 엮은 <다경요채>에서 ‘차 제대로 마시는 법’을 초록해 <다신전>을 저술했고, 52세 때 홍현주의 부탁을 받고 <동다송>을 펴냈다.

중진 작가 한승원씨(64)는 소설 <초의>에서 입적을 앞둔 스님의 현재와 어린 시절을 오가며 초의 선사의 일생을 그려내고 있다. 역병으로 가족을 잃고 운흥사로 가려는 초립동 초의를 나룻배에 태워준 아낙이 동전 두 닢을 주면서 “먼 훗날 그 돈을 받을 사람이 따로 있을 것이오”라고 한 말은 그에게 일생일대의 큰 화두가 된다.

초의 스님은 특히 속세의 유학자와 예술가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교유하면서 천개의 눈과 손을 가진 관세음보살처럼 중생을 깊은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고자 했다. 아낙에게 받은 동전 두 닢을 세속 사람들에게 돌려주려 했던 것이 그의 삶이었던 것이다.

작가는 초의 스님의 진면목을 드러내기 위해 수많은 일화와 허구를 대담하게 직조하여 영화처럼 속도감 있게 작품 속으로 풍덩 빠지게 한다. 깨달은 마음을 암자의 울타리 안에 가두지 않고 차와 선을 통하여 저잣거리에 회향하려 했고, 어떤 때는 범패를 부르고 바라춤을 추면서 존재의 빛과 그림자를 다독이며 거친 세상의 다리를 홀연히 건넜던 수행자가 바로 초의 선사였다. 작가는 초의의 매력을 서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초의 스님을 알고 난 지금, 나는 세상이 훨씬 아름답고 향기롭고 넓어 보이고, 세상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확실히 하게 되었다.”

작가는 절 집안의 일부 오해처럼 초의를 경학에 능통했던 강백으로만 보지 않고 다선삼매(茶禪三昧)로 깨달음을 이룬 선승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다산학자들의 주장과 달리 ‘초의는 다산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초의가 26세 되던 해에 대둔사 천불전 상량문을 다산과 그 무렵 중진 스님들을 제치고 쓴 사실에서 작가는 그 근거를 찾고 있다. 24세에 다산과 첫 대면한 그가 3년이란 짧은 기간에 어떻게 다산의 가르침을 받아 천불전 상량문을 의뢰받을 만큼 자타가 공인하는 선승으로 성장했겠느냐는 것이다.

작가는 초의 스님을 연모해 출가한 비구니를 등장시켜 소설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다. 작가는 이 작품을 쓰기 위해 해남 대흥사 일지암과 강진의 다산초당을 수없이 오갔으며, 다산 시문집과 추사의 문집, 자하 신위의 글 등 초의 스님과 교유했던 지식인들의 문집을 통해 그의 행적을 좇았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초의 스님의 유년시절과 출가 직후 행자와 사미로서 행적, 지식인들과의 교유 등을 통해 당대의 치열했던 정신사를 복원해내고 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부처님행적 좇아 4대 성지순례

‘인도기행’

법정 지음 / 김홍희 사진

샘터 / 1만2천원



1989년 11월부터 3개월간 법정 스님이 인도에서 체험한 설산(雪山)의 신비와 성스러운 울림이 오롯이 깃들어 있다. 스님은 시종일관 따뜻한 손을 내밀어 인도를 안내한다. 이번에 출간된 ‘인도기행’은 개정판이다. 글의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사진작가 김홍희씨가 담아낸 2003년의 인도가 과거의 인도와 만났다. 이번 책을 위해 김홍희씨는 3월 한달내내 인도에 직접 가서 3천여컷의 셔터를 눌러댔다. 깊고 그윽한 사진은 스님의 글과 잘 어우러진다.

스님은 싯다르타의 행적을 좇아 인도의 4대 성지 룸비니와 부다가야, 녹야원, 쿠시나가르를 찾는다. 또 불교 포교의 중심지였던 왕사성, 최초의 불교 사원 죽림정사, 인도 문화의 해외전파 본거지 나란다 대학 등에도 발을 디딘다. 여정에서 음미하는 삶과 죽음, 자연과 인간에의 반성과 성찰이 가슴깊이 다가온다. ‘도심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초록이 눈부신 숲에 오니 마치 물 만난 고기가 된 듯 싶었다. 인류의 위대한 사상과 종교가 대자연의 숲 속에서 잉태된 그 비밀을 넘어다볼 수 있었다.

김주일 기자

‘사람이 그리운 산골이야기’

법장 스님 지음

바보새 / 1만원

삶·깨달음 감성적 문체로 그려

해인사 도서관장을 역임한 법장 스님(화순 시적암)이 펴낸 <사람이 그리운 산골이야기>에는 중생들과의 인생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수행자의 체취가 흠뻑 배인 글들이 즐비하다. “법장 스님의 글은 단순한 문자향을 넘어서 아련한 그리움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때론 탄탄한 현실속에서 살아가는 삶과 깨달음의 이야기를 녹여내고 있다”는 현응 스님(불교신문사 사장)의 추천사는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 책은 ‘사람이 그리운 산골이야기’, ‘인연이야기’, ‘산사에서’, ‘운수행자로 살아간다는 것’,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등 총 5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 ‘사람이…’에서는 자연과 하나되는 사계절 산사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2장 ‘인연…’에서는 신심이 굳은 보살을 비롯해 자신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처사 등 스님이 만난 인연들을 소개했다. 또 3장 ‘산사에서’를 읽으면 입가에 미소가 머문다. 장삼 손질에 얽힌 실수, 면도기로 하는 삭발행사 등 수행자들이 산사에서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 들이 스님 특유의 감성적 문체로 그려져 있다. 이외에도 4부 ‘운수행자로…’에서는 가족과의 인연을, 5부 ‘세상과…’는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움에 대해 들려준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스님	시공사
2	소리없는 소리	서암스님 시자엮음	시월
3	스님 사랑하면 안되나요	월성스님	웃는나무
4	화	틱낫한	명진
5	유식30송	서광스님	불광
6	할	한암대종사	휴먼북스
7	아비달마불교	권오민	민족사
8	기도	일타스님	효림
9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에모토 마사루	나무심는사람
10	불자의 가족사랑	김형준	효림

도서 안내:(02)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고요아침 전화 : (02) 322-0036 팩스 : (02) 322-3674 홈페이지: www.oachim.co.kr 도매일원화(주)한국출판유통 전화 : (031) 945-2900

일본 열도를 감동시킨 화제의 책!
자아를 속박하는 고정관념이 보일 때까지 당신을 무너뜨리는 책!
—일본 〈요미우리신문〉 서평

달마, 머리를 치다 1, 2권

전등록傳燈錄 마침내 책으로 나오다!
달마 이후 대선사들이 나눈 선문답으로
현대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풀어 쓴 깨달음의 말씀

법회 선사가 있었다. 법회는 저 유명한 마조 도일을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마조가 대답했다.
"이리 짐자코 오너라." 법회가 공손히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마조가 한 주먹 쥐어박았다.
그리고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귀가 여섯이 있어서 온근한 모의를 할 수 없다.
내일 다시 오너라."
—「머리에서 벗어나라」 중에서

素空慈 지음 | 각권 값 8,500원

꽃과 소쇄한 바람이 가득찬 산사에서 들려주는 신선한 법문!

내가 나를 만나러 가다

마음 명상 태교 차와 선시의 향기를 따라
스스로 마음자리의 등불을 밝혀라

석성우 스님이 전하는
진실로 사람으로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
어지러운 세상에 스스로 몸을 바르게 하는 명상,
좋은 사람들이 가득하기 위한 태아 교육법

석성우 스님 지음 | 값 8,500원

무심 경허 큰 스님의 유일한 법어집
비바람 눈보라치는 텅빈 산, 못을 잠아도 한 처 걸림도 없이 문장 구절 구절마다 경허 스님의 글은 관법이요 시이다. —중앙일보 경허 큰스님 지음 | 법륜사 영정 | 값 8,500원

마음꽃 경허 큰 스님이 던져주는 마음의 화두
「마음꽃」은 보통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를 담는 데 큰 도움이 될 책이다. —조선일보 〈편집자 리터〉 경허 큰스님 지음 | 값 11,000원

편지 성철, 만해, 경봉, 효봉 스님이 나눈 편지
「편지」는 있는 그대로가 '글언집'이며 한국 근대 불교사의 증언이다. —중앙일보 경허, 만해, 성철, 효봉스님 外 | 값 9,500원



자연은 사람 · 땅 · 하늘의 스승


◇이현주


◇장회익


◇김종철

'새들은 과외수업을 받지 않는다'

이현주 · 김종철 · 장회익 지음

샨티 / 8천5백원

자기성찰, 비움과 섬김의 길 제시

명상에세이 21편 … 세 필자 글맛 독특

"사람, 땅, 하늘, 도를 거슬러 맨 꼭대기에 있는 스승이 바로 자연이야."(이현주 목사)

동서양의 철학과 종교를 넘나들며 우리 사회에 큰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현주 목사, 물리학자이자 '온생명' 이론으로 생명운동 분야에 새로운 흐름을 일군 장회익 녹색대학 총장, '척박한 환경에 녹색 씨앗을 뿌리는 사람'으로 불리는 격월간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 교수(영남대 영문학). 종교와 물리학, 문학이라는 출발점은 달랐지만 자연이라는 하나의 길에서 만난 자연인들. 이 세 사람이 쓴 릴레이 에세이 <새들은 과외 수업을 받지 않는다>(샨티)는 자연이라는 말없는 스승에게서 배운 '넘치지 않음', '비움'과 '성김'의 미덕을 찬찬히 전하고 있다.

이현주 목사는 <유마경> <노자> <성경> <베다> 등의 경전과 성철 스님, 신비주의 사상가 루미, 일본 도원(道元) 선사의 이야기 등을 통해 사람이 자연에서 무엇을 배우고, 자연과 어떻게 관계맺어가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한다. 이현주 목사가 자연에게서 얻은 가장 큰 깨우침은 "자연에는 억지로 하는 일도, 무엇을 위해 하는 일도 없다"는 것. "꽃은 꽃을 피우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나무는 싹을 내기 위해 따로 노력하지 않는다. 그냥 절로 꽃을 피우고 싹을 틔운다. 새는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 과외 수업을 받지 않는다." 자연은 말 그대로 '절로 그렇게 있음(自然)'을 가르친다고 적고 있다.

장회익 교수는 '온생명(global life)' 주창자 답게 '생명이란 무엇인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등에 대해 철학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출생 이전 하나의 세포 속에 담긴 정보의 출처는 선조들의 생애로 소급된다. 그렇다면 그 정보의 시원은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길게는 40억 년이라는 세월 속에서의 '나'를 생각하게 한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글이 시간적 접근 방식으로 나의 생명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우주인의 눈에는 온생명이 보인다'라는 글을 통해서는 공간적 개념, 즉 우리가 속한 온생명의 공동체 속에서 나의 생명성을 인식하게 한다. 장 교수는 개개의 생명체(낱생명)가 태어나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지구생태계의 시스템을 하나의 생명체(온생명)로 해석한다.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은 영국의 한 작은 마을을 세계적 녹색운동의 메카로 만든 인도인 사티쉬 쿠마르의 "시간은 무한한데, 바삐 서둘러야 할 까닭이 무엇인가"란 말을 통해 "자동차 대신 걸어다니기를 선택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과 자유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한 시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장일순 선생의 생전 모습속에서는 비폭력과 가난의 철학을, 지역 통화 운동을 통해서는 자립적 삶의 바탕을 생각하게 한다.

21편의 명상적인 에세이가 담긴 이 책은 자연을 닮은 세 사람의 개성과 경험의 차이만큼 글맛도 달라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더욱이 이 책에는 생명을 노래하는 판화가로 알려진 류연복씨의 작품이 글마다 실려 각각의 글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더욱 함축,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 또 한번 눈길을 사로잡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물봉선


참나리


금낭화


연꽃

우리자연, 토종꽃 찾아 30년

'우리꽃 답사기'

김태정 지음

현암사 / 1만원

"자연은 늘 우리 곁에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다. 섬세한 애정과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아끼고 지킬 때 비로소 제 본디 아름다움을 전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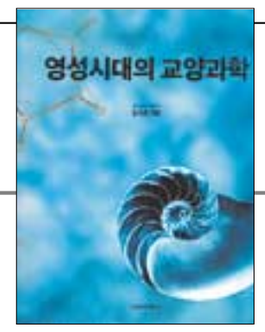
15년 동안이나 스테디셀러 자리를 지켜온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백가지>의 저자. '걸어다니는 식물도감', 야생화 전도사', ' 우리 자연유산 지킴이 ' 등의 별명을 가진 김태정 한국야생화연구소장은 우리 자연과 꽃을 찾고 그것을 카메라에 담아 기록하는데 30년을 보낸 사람이다.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김 소장은 우리나라 북녘 끝 백두산 곳곳에서부터 남녘 끝 한라산과 거문도, 독도와 동해안 7번 국도변, 서해 연평도와 백령도까지를 헤매고 다녔다. 어느 때는 위독한 어머니를 뒤로하고 눈물을 뿌리며 떠나야만 한 적도 있었다.

<우리꽃 찾기에 인생을 건 사람, 김태정의 우리꽃 답사기>(현암사)는 그러한 여정에서 발견해낸 우리 자연유산과 곳곳의 뜨스한 인심, 정을 간직한 식당 등, 그간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둔 이야기를 남김없이 풀어낸 책이다.

이 책의 내용은 책상 먹물 보다는 현장 공기와 햇빛에 익숙한 이의 글답게 담백하고 진솔하다. 때묻지 않은 의뭉함과 구수한 입담으로 읽는 이의 입가에 슬며시 웃음을 담아주기도 한다. 100여 컷의 컬러 꽃사진과 우리나라 곳곳의 자연 풍광은 생동감을 더한다. 저자는 "우리 문화유산을 찾아보는 것도 귀중하지만 우리 자연, 우리 꽃 답사 여행은 더 귀한 일"이라며 "삼천리 강산 발길 가는 모든 곳이 자연사 박물관이요, 눈길 닿는 모든 것이 자연 유산"이라고 감탄사를 연발한다.

전문가 서평



'영성시대의 교양과학'

윤세중 지음

정신세계사 / 1만2천원

이원론의 한계 극복할 지혜 제시

인간 · 자연 · 물질의 본질 명쾌하게 규명

순수한 영성바탕 신과학운동 주장 펴

오르테가가 제기한 '유식한 무식군(learned ignoramus)'의 쟁점이 오늘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인문사회 과학자와 자연과학자간의 상호이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데 그치지 않는다. 인문학적, 자연과학적 소양과 지식을 함께 갖추지 못한 채 과연 온전한 세계 이해가 가능하느냐고 하는 문제와 부딪히게 된다. 이것은 고도의 문명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그만큼 관찰과 사고와 학습에 많은 시간과 정력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윤세중 교수의 <영성시대의 교양과학>은 투철한 상황인식에서 출발하여 과학 연구와 과학 교육이 있어야 하는 방식에 대한 진지하고 의미 깊은 모색을 보여준다. 아울러 인간과 자연과 물질의 본질에 대한 고찰을 명석하고 평이한 문장을 통해 밝히고 있다.

저자는 서론에서 "물질세계만을 다루어온 과학이 과학과는 전혀 무관한 영역이라고 여겨왔던 인간 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영성과 밀접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적고 있다. 그것은 종교와 자연과학을 대립적으로 파악하는 피상적인 견해에 대한 거부에 기초한, 세계 이해의 한 방식을 시사한다. 장엄하고 신비스러운 우주의 존재와 운행에서 우주적 신성(cosmic deity)을 느낀다는 아인슈타인의 증언이 아니더라도 신앙과 이성이 상호배제적인 것이 아님은 비록 표현이 다르다 하더라도 동서의 최상급 정신들이 꾸준히 시사해온 것이다.

인간복제가 시도되고 그 윤리성이 실천적인 쟁점으로 떠오른 오늘 자연과 인간에 대한 편벽되지 않은 종합적인 시각의 필요성은 절실하고 다급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나온 윤 교수의 저작은 시기적으로나 주제의 성격으로나 적정성과 시의성을 조화롭게 갖추고 있다 할 것이다.

이 책은 근대과학의 발전을 더듬고 물질과 자연의 성질을 설파하면서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에 해답을 시도한다. 또 육체와 정신의 상호관계를 검토하면서 의식의 에너지와 진화를 검토한다. 특히 지구 생태계의 성질을 설명하면서 동양 전통에서 말해온 기(氣)의 이모저모를 현대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종래의 과학개론 흐름의 서적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말하며, 신과학운동의 당위성을 역설한다. 저자는 책의 끝자락에서 "신과학운동은 과학과 과학기술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과학자와 과학기술자 뿐만 아니라 산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전 분야에 관계하는 모든 이의 생각이 진정하고 순수한 영성을 바탕으로 하여 조직되어져야 한다는 운동이다. 진정하고 순수한 영성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주 속에서 인류 모두의 영원한 행복을 도모하는 자기 의식의 핵심인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이것은 웅대한 비전인 동시에 현대가 절실히 요청하는 운동이다. 과학은 단순한 지식체계의 일환임을 넘어서 인류 행복에 기여하는 심신상관적인 지혜와 통찰의 핵심이 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나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깊은 과학적 접근만이 아니라, 직관적 인식세계에 대한 이해와 함께 물질과 정신, 동양과 서양, 과학과 종교라는 이원론적 한계를 극복하는데서 지혜로운 삶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배금주의와 소비적 향락주의가 대세를 이루면서 삶의 질이 천박해지고 인간적 품위를 상실해가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는 감히 정신의 위기란 말을 써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그러한 풍토속에서 윤 교수의 이번 저서는 청년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자를 위시하여 자기 교육을 도모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귀중한 마음의 양식이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 비전문 일반 독자에게는 과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준거틀을 안겨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여가 선용을 위해서, 또 평생 교육의 실천을 위해서, 자아 계발을 위해서, 이 책은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유종호 / 문학평론가

<영성시대의 교양과학>은 과학이 단순한 지식체계의 일환임을 넘어서 인류 행복에 기여하는 심신상관적인 지혜와 통찰의 핵심이 됨을 웅변한다.

육 법 등(六法燈)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 용 범 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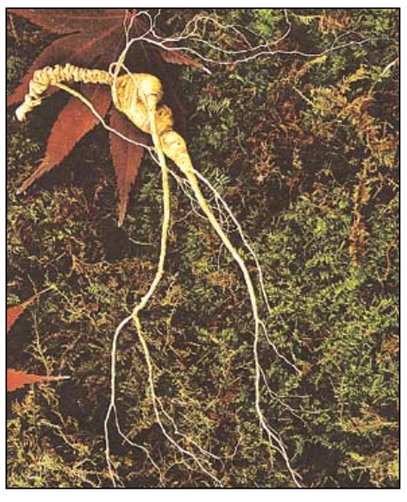
㈜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충판 및 대리점 모집

元 · 氣 · 回 · 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 마 당 長腦山蔘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가이드



삼보이야기(1)-부처

불교에서 믿음을 이야기 할 때는 보통 삼보를 이야기 한다. 부처,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사람들의 집단인 승단이 그것이다. 그래서 불교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삼보에 귀의해야 한다. 삼보에 귀의한다는 맹서를 한 다음에 출재가자 공히 수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를 받아 지니게 된 다음에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불자가 된다. 또한 아무리 오랫동안 사찰에 다녔더라도, 많은 법문을 듣고, 불교관련 서적 등을 수없이 읽었다 해도 수계하지 않은 사람은 불교도라 할 수는 없다.

부처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부처란 깨달은 사람이라는 의미의 일반명사이기도 하지만 보통은 석가모니부처님을 지칭하는 특별한 용어이다. 그분이 남긴 말씀이나 전기를 통해 그와 같이 살고자 하거나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대승불교가 흥기한 이후에는 석가모니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3신불사상이 등장하게 되며, 부처님의 개념도 변하게 된다.

불경에서는 삼보 중에서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부처님에 대해 굳은 신념을 품노라. 그 세존은 응공, 정등각자,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타, 세존이시라고"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깨달음을 성취한 자란 의미의 부처님 이외에 아홉 가지의 다른 호칭이 있는데 이것은 이들 호칭 속에 부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이들 호칭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부처님이란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는 존귀한 자(世尊)이다. 적절한 환경이 주어지면 그것을 올바른 열망에 의지하여 도덕적인 완성의 정점에 도달한 사람을 말한다. 둘째는 존중과 공경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應供)이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태어나 수많은 조건들에 의해 여러 가지의 괴로움을 받지만 부처님은 도덕적 품성을 계발하여 그런 괴로움을 대부분 극복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부처님이 받는 공경과 예배는 초월적 존재자가 누리는 공경과는 차이가 있다. 셋째는 완전하게 깨달은 자(정변지)이다. 여기서 완전한 깨달음이라 해서 절대적인 의미의 전지성(全知性)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는 지혜와 실천을 겸비한 자(明行足)이다. 이것은 인식과 동시에 행동도 수반했다는 말이 아니라 부처님의 행동이 자신의 인식 즉 아는 것과 일치했다는 의미이다. 다섯째는 행복해진 사람(善逝)이다. 인간이 희구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안락 즉 최상의 행복을 얻었다는 의미이다. 여섯째는 세상을 아는 자(世間解)다. 여기서 세상을 안다고 하는 것은 가정될 수 있는 모든 수수께끼를 풀어낸다는 의미가 아니다. 연기론에 입각하여 형이상학적인 담론에서 벗어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을 말한다. 일곱째는 가장 탁월한 사람(無上師)이다. 부처님은 모든 인간이 종속되는 최고의 존재자가 있다거나 모든 인간이 따라야 하는 궁극적인 도덕적 법칙이 있다거나 하는 두 개의 절대주의적 단정을 거부한다. 그는 단지 유능한 스승일 뿐이다. 여덟째는 숙련된 조련사(調御丈夫)다. 그는 인간들의 심리적 구조와 인간성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없는 연민의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그런 것들을 기초로 사람들을 잘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 아홉째는 신과 인간들의 스승(天人師)이다. 부처님은 메시아가 아니며, 자신이 피땀 어린 정신적 도덕적 수련을 통해 발견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뿐인 스승이라는 의미다.

각고의 수행 통해 깨달음 이룬 스승
언제나 지행합일…성인의 의미 함축

이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부처님은 각고의 수련을 통해 최상의 지혜를 성취하였으며, 그것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는 도덕적 완성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 다른 사람들의 스승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동시에 부처님은 결코 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들과 같은 인간이며, 단지 아는 것과 실천이 언제나 합일되는 성인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대승불교시대가 되면 불타관도 일대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즉 체상용(體相用)의 관점에서 법신(法身), 보신(報身), 화신(化身)으로 세분하여 부처님이 지니는 세상을 구제하고자 하는 자비심을 보다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그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묘법을 깨달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처님인 보신불이다. 이 부처님은 근본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중생들의 소원에 따라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되는 화신불이다. 역사상 출현했던 수많은 보살과 부처님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 보신불과 화신불의 본체인 법신불이다. 법신불은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며, 전지성(全知性)과 전능성(全能性)을 지니고 있다.

지상 백고좌

마음이 즐거우면

법흥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회주)

나는 과연 무엇때문에 사는가?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어야 하는가?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무리 감각이 둔한 사람일지라도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특히 조용한 밤중에 홀로 깨어있거나, 고통스런 일을 당했을 때나, 저승길이 얼마 남지 않은 황혼녘에서 이러한 의문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안타깝고 답답하지요.

사실 누구나 자기 삶을 돌이켜 본다면 만족한다거나 자부심이 들기보다는, 아쉽고 허무하고 무상한 생각이 드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를 제대로 알고, 진실로 믿는 사람은 그러한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삶과 현실을 직시하고 진실한 나를 찾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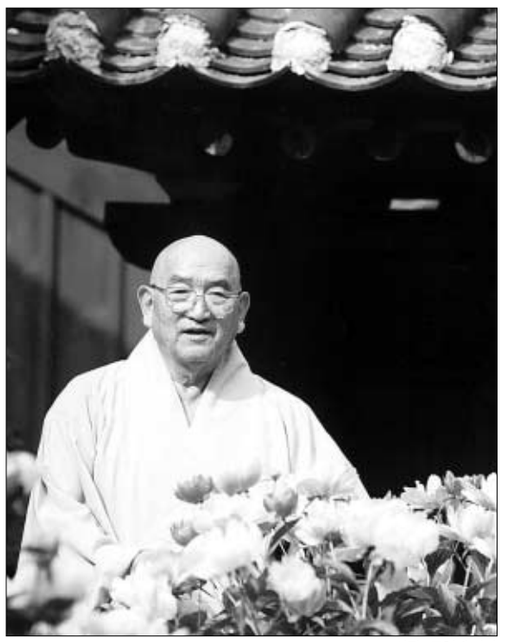
우리의 삶이 순탄하고 생활에 여유가 있고 일이 잘 풀려가면 종교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인생의 석양길에 드는 60~70대가 되면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 보게 됩니다. 인생에 대한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길에서 자기의 근본문제를 생각한다면 늦은 겁니다. 지금 이시간, 자신을 바로 보세요.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연속에 태어납니다. 태어나니 늙고, 늙으니 병들고, 병드니 죽게 됩니다. 언젠가는 죽어야할 숙명을 가진 것이 인생인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속에 빠져 바로 내일 일을 생각하려 들지 않지요. 우리는 일시적으로 잠깐 살다가는 존재며 그래서 불교적인 용어로는 '가아(假我)', 가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가짜 나인가? 나라는 이 육신이 수백년 수천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는 죽어야할 숙명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가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아(實我)는 무엇이냐. 마음이고 넋이고 얼이고 영혼이고 정신이고 본래면목이고 육신을 끌고가는 주인공입니다. 불교적 용어로 말하면 불성이고 자성이며 여래장이지요.

육신은 생멸이 있고, 나고 죽음이 있지만, 청정한 마음자리 법신은 생멸이 없습니다. 법신은 우주에 충만하고 불생불멸이며 상락아정(常樂我淨)입니다. <법화경>에 '제법종연생(諸法從緣生) 제법종연멸(諸法從緣滅)'이란 말이 있습니다. 모든 법이 인연을 좇아 생겼다가 인연이 다하면 없어진다는 말이지요. 함허스님도 "천겁을 흘러가도 옛이 아니고(歷千劫而不古) 만세를 뻗어도 길이 이제(亘萬歲而長今)"라고 하였으니 육신은 생멸이 있으되 마음은 생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이순간에도 1초1초 죽음으로 한발 한발 가고 있습니다. 생(生)과 사(死)는 동일점에서 출발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어요. 부단히 살고 있으면서 부단히 죽음의 길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모순이요, 이율배반입니다. 영원히 살고자 하지만 결국 죽음에서 단절되고 맙니다. 단절된 계기에서 생과 사는 즉(卽)하고 있어요. 그러니 생즉사요, 사즉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생사가 바로 열반이고 번뇌 즉 보리라는 말이 이래서 나왔습니다. 둘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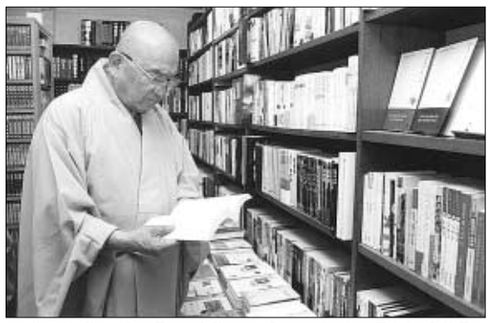
부처란 말은 상주불변의 진리를 뜻합니다. 진리란 생멸이 없는 것이고 고금이 없어요. 동서고금을 통해 누구라도 그렇다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주의 작용은 일정한 이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법이 도이고 진리입니다. 우주에 가득차 있는 진리를 인격화시킨 것이 부처예요. 인간의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그 소중한 불법을 만났으니,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탐하거나 남을 이기고 헐뜯고 경쟁하는데 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자신의 인격을 완성하고, 공동으로 우주의 대 진리를 찾아내 성불에 이르는 것을 최고 목표로 삼으십시오.



사진=고영배 기자

참선은 본래의 참나 찾는 '큰 일'
성불을 인생 최고의 목표 삼으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의 마음의 산물이요, 마음가짐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



◇법흥스님은 73세인 지금도 늘 책을 가까이 한다. 또, 만나는 누구에게나 책을 즐겨 법보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감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망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 · 지전류 · 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 · 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합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 · 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 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 · 사무실 · 조상묘소의 수맥 · 지자기 · 지전류 유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天一氣功

세계최초로 발명특허 받은 건강법

◆ 단체강의한곳 : 국립경찰대학교, 중앙경찰학교, 육군73사단, 삼성종합화학(주), 한국중공업외 다수

道家, 佛家에 비밀리에 전해져온 신비의 氣 치료법 공개!
누구나 5박 6일이면 氣 치료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천일기공 연구회에서는 가정에서 자기 스스로 척추교정 운동을 하여 백병을 다스리는 건강법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세균성 질환을 제외한 모든 만성병은 100%가 골반, 척추의 변형으로 인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국민의 99%가 골반과 척추가 변형되어 있으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골반, 척추 문제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모든 만성 질환자의 경우 백가지의 치료법보다 먼저 골반, 척추를 바로 잡는 것이 병을 고치는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천일기공 <정기10,000원>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만성 디스크(탈출, 협착, 만곡, 측만) 요통, 좌골신경통, 목의통증, 만성두통, 관절통, 오십견, 견비통, 요실금, 생리통, 수족냉증, 심장병, 위장병, 간장병, 비만, 불면증, 고혈압, 안짱다리, 허리굽은분, 만성피로, 발기불능 등을 스스로 치유하는 수련법과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주말 무료체험 교실 운영 www.chgg.co.kr

- 척추교정운동법, 오장육부 氣 치유법, 통증해소법, 비만감량법등을 무료로 가르쳐드립니다.[선착순 20명한] T. 02-3436-3206

※ 책신청방법 : 아래계좌로 우송료 2000원을 입금시키고 전화주시면 책(370페이지)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우체국 : 013094-02-213631 주문옥]

도서출판 건강한 세상. 책신청 전화 : 1544-3246

홍보관 운영하실분, 즉석에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발명특허 받은 의료용구 T. 02-3436-3207

무료체험실 부산 525-4849, 제주 712-9001

宗門第一書 碧巖錄 懸吐 法徹一愚 譯解
泰華淨圓 平心寺의 정원스님이 毛筆로 手書한
벽암록의 영인본



역해본 원본

碧巖錄

眉餘年前初學時	삼십여년전 처음 배울 때
黑底字兮白底紙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더니
譯解書刊將十載	역해(譯解)해 써서 간행한 지 거의 십년에
有求索人付意味	구색(求索)하는 사람이 있음에 의미를 부여할까나.
某師燒却成學語	고사(某師)가 소각함은 말을 배움을 경계했음이니
至今流通一場愁	지금토록 유통(流通)하니 한바탕 근심일런가
抹底何曾限碧巖	지울 것이 어찌 벽암록에 한할 뿐이랴
看他本師涅槃時	저 본사(本師)의 열반하실 때를 보아라.
無所說已多語	설한 바가 없음이라 함도 이미 많음이니
倚天太阿不容擬	하늘에 기댄 태아검이 헤아림을 용납하지 않느니라.

- 泰華淨圓 -

300질 한정판 / 정가 140,000원

도서출판 수미산 02)3672-4276

바로 극락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 방법의 근본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형상과 모양과 빛깔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마음에 의해 움직이게 됩니다. 고통과 번뇌를 여의어 내 마음이 즐거우면 바로 극락인 것이고, 내가 죄를 지어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지옥입니다. 부처님법의 요체는 바로 중생이 겪는 삶의 고통을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불교는 마음을 갈고 닦고 기르는 공부입니다. 마음을 닦는 것이 수심(修心)이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양심(養心)이며, 마음을 쓰는 것이 용심(用心)이고, 마음을 잡으면 섭심(攝心)이라 합니다.

그러면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져야 극락이고, 마음을 잘 쓰는 것이냐.

첫째, 청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광명정대한 마음, 청풍명월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임제선사께서도 "청정심이 부처"라 했어요. 청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은 부귀나 권력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혜, 부모님 은혜, 스승의 은혜, 중생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쌀 한톨의 생산에도, 우리가 사는 집도, 자연의 수고와 수많은 사람이 관여하여 이루어낸 결과물입니다. 주의깊게 살펴보면 감사할 일은 많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확산될 때 이 세상은 밝아지고 평화로워 집니다.

세번째는 용맹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은사스님이신 효봉스님은 38세때 금강산 신계사 보은암에 입산하여 8년동안 장좌불와와 오후불식으로 정진하셨습니다. 한번 앉으면 일어나는 것을 잊을 정도로 용맹정진하셨지요. 한번 목표를 세우면 그렇게 용맹심으로 밀어붙여야 성취가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번뇌가 치솟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정신집중이 없으면 번뇌는 끊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참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문의 왕인 철학이라는 것은 개념을 논리에 의해서 구성해 놓은 세계입니다. 그러나 선은 논리와는 적입니다. 선은 정신집중이고 공안에 대한 의심입니다. 강력한 정신집중을 하기 위해 참선을 하는 것이지요. 오롯하게 정신집중하여 이 마음을 깨쳐야 인간존재의 진면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참선을 하여 자성을 깨치면생사를 해탈하고 선악의 근본을 알고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닌 이치를 알게 됩니다. 나라는 집착을 버리고 무명을 깨뜨리고 본래의 청정한 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참선이란 욕망과 아집으로 뭉쳐있는 삶을 근원적으로 비판, 탈각해서 진실하고 자비롭게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지식이나 분별작용, 자기주관으로 뭉쳐져 있어서 삼라만상을 하나의 생명근원으로 보는 전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파악되는 협소한 개인의 주관적인 분별에의 투영입니다. 참선은 열심히 하면 전인적이고 근본적인 입장에서 사물을 보게 됩니다.

세속사람들이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전부 고통덩어리입니다.

세속 사람들은 적자생존의 법칙하에 환경의 지배를 받아 먹고 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 도 깨칠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루 하루를 습에 따라 보내지요. 생사에 매여 있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혹한 중생으로 머물러, 윤회의 고통을 반복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법이 최고라는 사실을 알게된 이상 부처가 되고자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혹한 중생이, 세속에 부대껴 살며 부처가 되는 길이 그리 쉽겠습니까?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겨도 될까 말까 하지 않겠어요?

이 좋은 법이 있는 줄 알게 된 이상 마음을 닦는 수행을 꾸준히 해야 발전이 있습니다. 형상앞에 나아가 무엇을 얻게 해달라고 열심히 빈다고 그것이 참다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나 예불은 스스로의 마음을 청정하게 해 부처님께 진심으로 귀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극한 마음이 우선이지요.

우주의 본질을 보고 내 생명의 본질을 깨닫고, 만가지 다른 모습에서도 본 성품을 보고 결국 나의 생명이나 우주의 모든 중생이 근본은 같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부처님법입니다.

나라는 인간이 무엇인지, 자기의 본래면목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말세가 되어 혼탁한 것은 자기 자신을 모른채 가아(假我)에 정신이 팔려 모두가 진실한 참나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매일 매일 새롭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정리=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지켜야 할 마음가짐

늘 청풍명월 같은 마음 유지

부처·부모·스승 은혜에 감사

용맹심 일으켜 목표향해 정진



◇방장 보성스님 등 송광사에서 스님들과 함께 한 법흥스님(맨 오른쪽).

상좌 지묵스님이 본 법흥 스님

항상 '인과' 강조…누구에게나 책보시

언제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송광사 화엄전에서 있었던 일이니 아마 십 여 년이 더 지났지 않나 싶다.

은사 스님이 발이 삐었다. 성질이 좀 급하신 편인 스님이 급히 물바가지를 찾으러 건너편 수각으로 가시다가 그만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내가 과보를 받아서 그렇지." 누워서 간호를 받으시면서 나을 때까지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다. 왜냐하면, 낯선 객이 와서 스님이 쓰는 물바가지를 세면장에서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스님이 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누가 자주 물바가지를 가져 가?" 하고는 이리저리 한참 찾으러 다니다가 그만 발이 삔 것이기 때문이다.

인과인데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 늦은 점심때에 인근 도시에서 대학생들 서너 명이 참배 와서 배가 출출해 하던 차에, 내가 내준 미수가루를 타서 먹고는 세면장 정리를 하다가 바가지 위치를 잘못 찾아 놓은 것이다.

당장 그릇이 없어서 여기저기 수각에 놓인 바가지를 모아다가 미수가루를 나눠먹은 파티였다. 그 뒤 학생들은 다 떠나고 오후 늦게 해질 무렵에 스님이 세면장의 바가지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셨다. 그 뒤 세면장 벽에는 이런 글귀가 붙었다.

"세면장 밖으로 물바가지를 마음대로 가져가지 말 것."

물론 스님이 쓰신 것이다.

"내가 과보를 받아서 그렇지."

스님 곁을 떠나서 지내는 일이 많은 나는 인과를 생각하고 스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곤 한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상좌의 한 자리를 지키는 입장에서 은사 스님의 깨끗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게 청복(淸福)이 아닌가 생각한다.

법흥스님은 1931년 충북 괴산생으로 58년 고려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59년 동화사에서 효봉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통도사 해인사 상원사 등 제방 선원에서 안거를 지냈고 74~77년 송광사 주지, 84년 송광사 조계총림 유나를 역임했다. 기억력이 탁월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흥스님은 70이 넘은 지금도 늘 책을 가까이 하고 또 만나는 누구에게나 책보시하시는 일을 즐겨 하시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새벽에 일어나면 어김없이 대능엄주 독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대웅전 등 각 전각을, 독경하면서 일일이 참배한다.

덕혜스님의 스님이야기

서암스님

지난 3월 30일, 문경 봉암사 큰방에서 나는 만장을 쓰고 있었다. 밖에서는 영결식 준비하랴, 문상객을 맞으랴 스님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만장 쓰는 장면을 촬영하려는 기자들의 셔터소리가 울릴 때마다 나는 이 시대를 살다간 위대한 스승과의, 짧지도 길지도 않았던 기억들의 사진첩을 한 장씩 넘기고 있었다.

황금을 황금이라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진짜 금인줄 알 듯, 서암 큰스님을 모르는 불자들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 하는 것은 그 분의 실체 보다는 언론에 비춰진 그분의 이미지인 경우가 많기에, 나는 곁에서 그분을 모시고 공부한 인연의 한 자락을 여기서 펼쳐 보이고 싶다.

84년 가을, 봉암사행 완행버스는 지루하도록 오지 않았다. 3시간 가까이 기다린 끝에야 봉암사행 버스에 올라탄 나는 가을빛이 완연한 희양산 물길을 따라 봉암사에 들어섰다. 송광사에서 구산스님을 모시고 참선을 시작한 지 5~6년이



그림 · 문명성

되는 때였다. 이젠 제법 선방 장판때가 묻었다는 나름의 자부심을 지닌 20대의 한창 젊은 혈기가 들끓는 때였다. 먼저 조실 스님인 서암스님께 입방인사를 드리러 조실채로 갔다.

"수좌는 어디서 왔나?"

분명 격외의 일대사 소식을 묻는 것임을 번연히 알면서도 대답을 못했다. 그런 나를 보시더니 빙긋 웃으시며 그만 내려가 정진이나 열심히 하라 하셨다.

겨울에도 스님의 방은 온기가 없었다. 조금만 불을 많이 지피어 방이 더우면 시자를 불러 주의를 주곤 하셨다. 찬 기운이 냉냉한 방에 나무판을 깔고 그 위에 좌복을 놓은 채 좌선을 하시곤 했다. 밤늦게 밖을 나가다 조실채를 보면 늘 불이 켜져 있어 정진중임을 알수 있었다.

그해 겨울, 대중들은 결제 반철부터 용맹정진을 하기로 했다. 자지 않고 눕지 않으며 목욕과 삭발도 않은 채 조사의 관문을 뚫기 위하여 온몸을 내던졌는데 대중스님들의 정진열기에 감복하신 조실스님께서는 죽비경책의 인례를 자임하셨다. 경책은 혹독하여 조금이라도 조는 기색이 있으면 장군죽비로 무릎을 툭툭 치거나, 잠에 빠진 수좌에게는 힘차게 죽비경책을 내리어 우리의 정진에 힘을 보태 주셨다. 이때부터 나는, 망월사에서 참선의 맛을 본 뒤부터 불불기 시작한 불가사의한 선(禪)의 세계에 빠져 정진의 힘을 얻게 되었으니 이는 서암 스님으로부터 힘입은 바 크다.

가끔 스님께서 붓글씨를 쓰는 날에는 먹을 가는 시봉을 해드렸는데 시간을 절약하려고 급하게 먹을 갈라치면 "수좌가 무에 그리 급할게 있어? 마음을 들여다보며 천천히 갈아." 하셨다.

서암 스님은 평소 무척 소탈하셨다. 법상에 오르셔도 알기 어려운 선문답이나 옛 조사를 흉내내어 게송을 읊는 등의 행위는 하시지 않았다. 그저 간절히 공부하라고 일러주실 뿐이었다.

또 전형적인 수행자의 모습으로 일관하셨다. 조실이니 주지니 하는, 자리에서 올 수도 있는 권위적인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조실이란 자리도 부득이 후학들을 위해 맡으셨을 뿐이다. 그저 대중의 한 사람으로 행동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매양 검소하기 이를데 없었다. 다른 스님들이 가은까지 가는 30리 길을 택시를 타도 스님은 걸어서 가은까지 가시고 버스를 타고

죽비경책 자임…용맹정진 몰두케

생활검약·전형적인 수행자 모습

김천까지 가시고 그런 다음 기차로 전국 여기저기로 법문을 다니시거나 일을 보러 다녔다. 한번은 김용사에서 예수재에 스님을 법사로 청했다. 내가 스님을 시봉하게 되었는데, 시골 완행버스를 몇 번씩이나 갈아 타며 가시는 것이었다.

이후에도 나는 종종 봉암사로 스님을 찾아뵙거나 인천에 법문을 오실 때 찾아뵙거나 했다.

서암스님은 93년 조계종 종정에 오르셨다가 서의현 전 총무원장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종정을 사임하시고 조계종을 탈퇴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시더니 홀연히 산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나는 팔공산 제2석굴암에 머무시던 스님을 신도들과 찾아뵙게 되었는데 많이 수척해진 모습임에도 방에서 나오셔서 신도들을 위하여 법문을 들려주셨다. 그때 다른 신도 일행이 찾아오자 스님께서는 지친 노구를 마다 않으시고 다시 법문을 하시는 것이었다.

지인무기(至人無己)요 성인무명(聖人無名)이라 했던가.

지극한 도에 이른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성인은 아예 이름마저도 초탈한다.

서암 스님이야말로 이런 경지에서 유유자적하며 화광동진의 교화를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 서울 정법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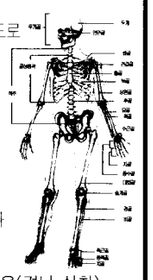
당 뇨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그것은 다운 밸런스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물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다운 밸런스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원저하게 떨어지며 혈액 알칼리성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우너진 알칼리환경으로 조정해 준다.
▶다운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평강병 자신합니다.
자연식 통무원 원장
제일약사(전약사) 박종원
다운 밸런스 90mg cap 90 cap × 3병
1개월분 150,000원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등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자율신경실조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암, 관절염, 고혈압
초원종묘라이프 Co.
(주)한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 료 전 화 080-598-9832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영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 빙의된 중생에게 영가가 왜 왔으며, 원하는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며, 또 제3자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 중생들의 가정에 일이 풀리지 않고 계속 악연만 되풀이 되는것이 영가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알 수 있고, 또한 영가의 원하는 바를 물어봐서 그 소원을 들어 천도해주면 영가가 눈물을 흘리면서 뉘우치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가위눌림이나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영가를 제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3년후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한편의 영화를 보듯이)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수하고 새옷을 갈아입는 모습
♦ 노잣돈을 챙기는 모습
♦ 지옥의 문이 열리고 영가가 떠나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 영가의 작용에 의해 고통받는분 특별 상담
무병 · 신병으로 고생하는분
마귀에 눌리고 환청으로 잠 못이루는 분,
방마다 가위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분
지상의 그 어떤 악령도 즉시 단 한번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대 상 : 스님, 법사, 철학인, 무속인, 기공사, 의사, 사업가, 일반인
■ 일 시 : 인원 수시 접수
02)556-5590, 5542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먹물, 마직 적삼 · 바지 : 150,000 동방 · 바지 : 180,000 두 루 막 : 150,000
2. 무 명 수재 · 한국산 먹물 염색 적삼 · 바지 : 180,000 동방 · 바지 : 220,000 두 루 막 : 180,000
3. 모 시 론 (풀 안해도 됨) 적삼 · 바지 : 150,000 동방 · 바지 : 180,000 두 루 막 : 150,000
4. 면 래푸사 특 징 - 세탁시 풀 안해도 됨 적삼 · 바지 : 130,000 동방 · 바지 : 160,000 두 루 막 : 130,000
5. 장 삼 특 징 - 가볍고 통풍이 잘됨 모직 : 180,000 ~ 250,000 썸머울 : 200,000
6. 신 도 복 (단체주문받습니다) 조끼 · 바지(모직회색) : 60,000
7. 셔츠(차이나 라운드) · 걸망 · 손가방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하철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향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관 절 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 악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 습 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차세대 차인 고 있다

‘어른들 문화’로 여 던 차계 청소년 바람 활발
차준비 과정 통해 마음 안정 한 인성교육
자기의사 표현의 열린대화법 자연스 체

다도, 다례, 차살림 . 차 마시는 일을 일 는 은 다르지만, 차를 마심으로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추구한다는 행위의 목적은 을 이다. 하지만 그동안 복 한 절차와 엄숙한 분위기에 ‘어른들만의 문화’로만 여 던 차계에 다도를 배우려는 청소년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국차문화협회(이사장 이귀례)와 가천문화재단(이사장 이길여)이 매년 6월 개최하는 ‘인설 차문화전-차 예절 경연대회’에는 유치부에서 대학부까지 5개 부문에 쳐 400~500여 명의 청소년들이 가한다. 22일 인천종합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제4회 인설차문화전’에도 400여 명의 가자들이 저마다의 기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행사는 지난 2000년, 인스 음식과 컴퓨터에 숙해져 있는 청소년들에게 차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차예절을 통한 심성 개발을 위해 처음 개최 다. 한국차인연합회(이사장 박권)가 매년 11월에 개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차문화대전’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차의 의미와 가치를 심어주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다도 교실을 직접 운영하거나 학교나 복지단체를 방문해 다도를 가르치는 단체들도 있다. 한국차문화협회와 가천문화재단은 문화관광부의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방학 때 마다 전국의 문화소외지역과 국군장병들에게 무료 차예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10만여 명이 다도 교육을 받 다. 가천문화재단의 어린이 예절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남유경 주임은 “다도교육은 피나 라 등의 음료수에만 빠져있는 청소년들에게 차 한 마실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일깨 준다는 이 가장 장점이다”고 한다.

수원차인회(회장 강성금)의 ‘소년원 차예절교육’은 다도의 다른 적용범주를 보여주는 실례라 하겠다. 1992년부터 매월 소년원인 안양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를 방문해 다도와 예절을 지도하고 있는 수원차인회 강성금 회장은 “차를 마시기 위한 준비과정을 거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정서가 불안정한 원생들에게 다도는 가장 좋은 인성교육인 ”이라고 한다.

‘차 열풍’은 대학가도 예외가 아니다. 학교에 정식 등록된 차 동아리만도 동국대 ‘서라 다우회’를 비 해 전남대 ‘남도차문화회’, 경상대 ‘ 로다우회’ 등 전국적으로 50여 곳이 는다.

다도를 통한 예절교육도 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불교 종립학교 교학연구발표회에서 ‘선다( )지도의 내면화를 통한 불교 교육방안’을 발표한 이동배 정광고등학교 교법사는 “중 · 고등학교마다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인성교육을 는 다도 교육이 도입 야 한다”고 주장 다. 차를 기는 분위기에서 자 학생들은 사람이나 손님을 대하는 예절을 배우게 되고, 평등을 추구하는 자리의 특성상 남의 을 경청하며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열린 대화법을 자연스 체 하게 된다는 이다.

청소년 다도 특강을 실시하고 있는 명원문화재단 김의정 이사장은 “차를 마시는 일은 손님을 맞는 부터 는 자세, 절하는 법, 다기 다 는 법까지 ‘예( )’아 이 없으 로 청소년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예절교육이 된다”고 한다. 김 이사장은 “최근 청소년들에게 일기 시작한 차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 차인 양성과 올바른 차문화 확산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받침되어야 한다”고 였다.

여수령 기자



우리차



불성차

지리산 야생 차에서 자 어린 을 손수 채취해 동( )가마에서 어 전통 수제차로 은 과 향이 어우러진 이 특징이다. 제조: 불성제다. 값 9만원. (02)732-1520

작설차 제조 비법 법정공방
지허스님-전통식품 명인 신광수씨
신씨-“비법, 정부인정 명인지정 잘못” 명예 손
지허스님-“ 림부의 올바른 인식 필요주장 을 ”

이 새의 를 다고 해서 이름 여진 ‘작설차( )’의 제조 비법을 놓고 법정공방이 어지게 다.

전 선암사 주지 용 스님의 아들이자 림부 지정 전통식품 명인인 신광수 씨는 최근 <지허스님의 차( )>라는 책을 지허 스님(선암사 주지)과 출판사인 김영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일 서울지법에 다.

신 씨는 소장에서 “내가 오 기간의 수행으로 독특한 작설차 제조비법을 전통식품 명인의 반열에까지 올 는데 피고는 ‘작설차를 만드는 방법은 전통적 차제조법 한가지 에 없는데도 특별한 비법이 있는 쳐 정부가 인정해 명인으로 지정한 건 잘못 다’는 내용의 책을 내 명예를 손 다”고 주장 다.

이에 지허 스님은 “나는 책에서 한국 전통차 문화의 을 기 위해 림부가 작설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 을 이며, 원고의 이름과 원고가 판매하는 작설차 상표를 직접 거론하지 않 다”고 반박 다.

한편 신 씨는 지난해 10월 문화관광부에 전통차 제조에 대한 중요 무 문화재 지정 신청을 고, 지허 스님도 한 달 은 신청을 다.

여수령 기자

차맥 지킴이



박권

(한국차인연합회 이사장)

경향신문 기자 출신으로 세 차례(10, 11, 12대) 국회의원을 지 한국차인연합회 박권 (71) 이사장. 언론과 정치라는 순 치만은 않은 길을 돌아 그가 안 한 곳이 바로 ‘차( )’다. 1992년 한국차인연합회장직을 은 후, 11년 동안 차인연합회를 이 며 국제대회 유치와 한국다도대학원 설립(1994년) 등 차문화 중 에 앞장 서 온 박 이사장을 만나 차문화 발전을 위한 차 단체들과 정부의 노력, 청소년 다도 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해 들어 다.

‘차의 정신’을 정의해 주신다면?

“초의 선사는 ‘중정(中)의 도에 의해 다도가 이 져야 한다’고 습니다. 드러내고자 하는 이 없는 차 은 마시는 이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이지요. 진정 차를 기고 음미할 아는 이 바로 ‘차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차인연합회 활동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1979년 설립된 차인연합회는 차의 명맥이 어질 위기에 놓였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생 차단체입니다. 그동안 국제대회도 유치하고 지부도 전국 200여 개의 차회로 어나면서 그 기 을 실히 다져 습니다. 94년 설립된 다도대학원을 수료한 차인들은 전국에서 차회를 결성하고 차문화를 보급하는 등 차 지도자 배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도대학원, 지도자 배출 중추적 역할
인재양성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필요
자연스러운 ‘생활문화’로 거듭나야

사명당기념사업회 수석부회장 소임도 고 계신데요.

“승군으로 리 알려져 있는 사명대사는 차인으로서의 면모도 대단합니다. 올해 9월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사명대사를 기념하기 위해 차인연합회에서는 사명대사가 승병을 련시 던 강원도 고성군 건봉사에서 사명대사 모 공 다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차문화 발전을 위해 정부나 차 단체들이 해야 할 일은 무 입니까?

“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차산업 발전의 기반이 다져지고 있는 에 비해 정부 차원의 정책은 많이 부족합니다. 정부와 차단체들이 전문가와 지도자들을 길러내야 하고 우리 차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차 생산업체들간의 연합회가 성되지 않은 도 아 운 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차문화를 보급해야 하는 이유는 무 입니까?

“한 의 차에도 덕과 예를 중하던 우리의 정신문화가 담 있습니다. 차를 나 면서 상대방을 위하고 자신의 마음을 닦게 되는 이 . 청소년이 자연스 게 차문화를 접하게 됨으로 차문화가 구나 생활 속에서 길 수 있는 ‘생활문화’로 거듭나게 입니다.”



정신과 육체 두뇌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신비의 요가

자격증 을 위한 특별 강좌



요가의 효능 및 방법

바른자세와 호흡을 통하여 폐와 내장기관을 청소한 해맞이 운동 12가지를 전개하면 다음과 은 효과가 나타난다.

개강일시 및 장소

▶ 서울 : 6월 3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6개월 간)

▶ 기 : 6월 8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6개월 간)

물구나무서기(Sirshasan)
기억력, 사고력, 집중력이 강화되고 시력, 청력이 좋와지며 신경이 해진다.

추곧세우기(Sarangasan)
상선, 심장혈압, 비만에 좋고 목과 가슴부위가 해지고 불면증, 우울증이 치료된다.

기포 (Halasan)
등, 어깨, 팔, 근육이 강화되고 소화가 잘 되며 비, 불면증이 없어진다.

물고기자세(Matsyasan)
혈액순환이 잘 되고 폐활량이 어나고 은 어깨가 지고 중추신경이 발달하여 충치가 예방된다.

앞으로 히기(Paschimothanasan)
비만을 치료하고 소화력을 높이고 마디를 부드 게 하고 당뇨병을 치료한다.

라(Bhujangasan)
추를 하게 하고 요통 류마치스를 치료하며 체온조절이 잘 되 자궁이 해진다.

기운동(Salabhasan)
장, 장, 간장 등을 하게 하고 허리, 등, 팔을 유연하게 한다.

활(Dhanurasan)
만성 비, 소화불량, 간무력에 좋고 은 를 준다.

추반비 기(Ardha · matsenbrasan)
힘 이 지고 혈액공급이 원활해지며 특히 관절에 좋다.

까마귀포 (Kakasan)
팔과 목 어깨를 하게 하고 손가락, 팔목, 근육이 어나 무기력증이 없어진다.

손과 발포 (Padahasthasan)
허 지 가 부드러 지고 체지방이 없어지며 두뇌에 혈액공급이 잘 된다.

각 (Thikonasan)
월경불순, 절건강에 좋으며 추신경과 내장기관이 좋아진다.



세계전통요가실천본부 · 세계젠요가학교

본 부 : 경기 화성시 동 면 중리 213번지 / 전화 031) 375-0778
서울교육원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한국불교금강선원 02) 969-2410



민족운동 중심 불교역할 조명

독립기념관, 22일까지 특별전

'불교근대화와 식민지불교' 등 여섯주제 경허스님 친필등 희귀실물자료 350여점



◇만해 한용운 스님의 옥중 서신을 담은 신문.

한국근현대사에서 불교가 끼친 민족사적 역할을 조명해볼 수 있는 '불교와 민족운동' 특별기획전이 22일까지 독립기념관 대한민국임시정부관(제7전시관) 특별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개항 이후 불교의 근대화운동을 비롯해 일제강점기하에서의 독립운동 등 불교계를 중심으로 전개된 민족운동과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불교의 근대화와 식민지 불교, 불교의 독립운동, 전통불교의 수호, 불교의 자주화, 해방과 민족불교 등 6개의 소주제로 구성돼 있다. 주요 전시물로는 3.1운동 당시에 스님들이 작성한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 한국불교에서 선풍(禪風)을 중흥 시킨 경허스님의 친필과 제자 만공스님의 친필 '세계일화(世界一花)'와 유물 가사 및 발우, 만해 스님의 <불교대전>과 목각판 '오도송' 및 <조선불교유신론> 등 희귀 실물자료 350여점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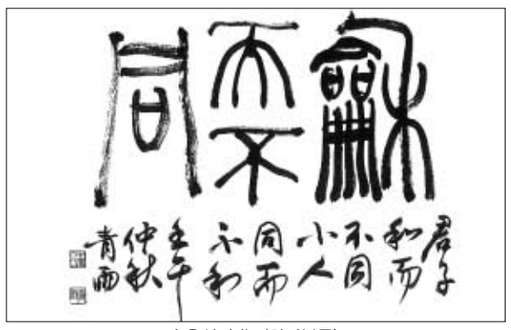
특히 이번 전시는 불교의 민족운동을 중심으로 한국 근대불교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한국근대사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이 재조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가 한국 근현대사에서 불교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전시회를 위해 수덕사와 만해 기념관을 비롯한 대학 등 많은 불교 단체 등에서 자료를 제공해 알찬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041)560-0271.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범어사 3·1 운동기념비. 사진으로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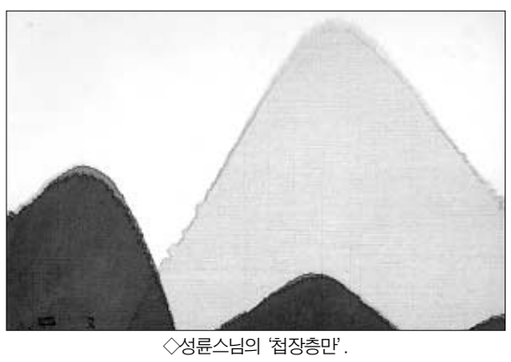
가볼만한 전시회 3題



◇윤상민 作, '화이부동'.

윤상민씨 첫 서예전 25일까지 백악예원

서예가 청우 윤상민씨가 19일부터 25일까지 인사동 백악예원에서 첫 개인전인 '청우서전'을 연다. 그의 일생의 화두는 서도의 '선(線)'과 불교의 '선(禪)'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행서, 해서, 초서, 예서는 물론 국한문 혼서에 문인화까지 소개된다.(02)734-4205.



◇성륜스님의 '첩장층만'.

첩첩산중의 禪的 표현 성륜스님 작품전

선화가 성륜스님 작품전 '첩장층만(疊障層巒)'이 18일부터 24일까지 갤러리 서호에서 개최된다. 91년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설치미술과 행위미술전을 열었을 정도로 독특한 화풍을 선보인 성륜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회백색 연한 수묵의 담채로 첩첩 산중의 풍경을 선(禪) 적으로 표현한 작품 30여점을 벽에 건다. (02)723-1864.



◇김인숙 作, '중국비취 목걸이'

구슬목걸이 이야기展 20개국 수집 구슬 선뵈

19일까지 성곡미술관에서 마련되는 구슬보살 김인숙 교수(국민대)의 '구슬목걸이 이야기 展'에 가면 인도를 비롯한 티베트, 중국, 영국, 모로코 등 20여개 국에서 수집한 각양각색의 구슬을 감상할 수 있다. 김 교수는 비취, 산호, 진주, 수정 등을 수집해 목걸이와 브로우치로 가공했다. (02)737-7650.



노래하는 포교사 송춘희씨 새음반 '영덕은 내고향' 내놔

노래하는 포교사 송춘희 법사(64·사진)가 신곡음반 '영덕은 내고향'을 내놓았다.

이번 음반 출시는 '90년대 내고장 노래운동'을 벌여온 작사가 김점도씨와 담소중 영덕에 관련된 노래가 이미 13년전에 지어졌지만 가수를 찾지 못한 채 잠자고 있다는 것을 송법사가 알면서부터 시작됐다. "약산 진달래꽃으로 유명한 평북 영변이 제 고향입니다. 영덕도 영산홍이 만발한 꽃의 도시라 우선 마음에 와 닿았지요. 또 흥겨운 민요조에 누구나 한번 따라 들으면 쉬운 가락이라 영덕인들의 삶의 애환을 노래로 달래주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음반에는 '영덕은 내고향'을 비롯해 '인생길', '천년향', '노래가락 차차차', '할아버지 쌈짓돈', '신이별가' 등 16곡이 수록돼 있다. 또 신곡외에도 송법사의 대표히트곡이라 할 수 있는 '수덕사의 여승'과 '영산강 처녀'도 들어 있다. (011)783-4587.

김주일 기자

음악으로 듣는 소설 '토지'



김영동씨 70여분 CD로 구성

작곡가 김영동씨(52·사진)가 만든 서사 음악극 <토지>가 CD로 제작돼 출반된다.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를 원작으로 해 만들어진 이 음악극은 이미 지난 95년 9월 세종문화회관에서 광복 50주년 작품으로 초연된 바 있다.

이번에 나온 음반은 당시 공연에서 선보였던 음악들을 새롭게 70여분 분량으로 재구성한 것.

음반에는 극의 주제곡이라 할 수 있는 '그대는 바다입니까'(길상)를 비롯해 '가네 가네'(용이와 월선의 이중창), '사랑가'(길상과 서희의 이중창), '토지여 어머니여'(서희) 등 모두 30여곡이 실려있다.

내용은 총 5부작으로 된 '토지' 중 1, 2부를 축약한 것으로, 길상과 서희, 용이와 월선을 두 축으로 해 각각의 독창, 이중창, 합창 등이 차례로 이어지며 줄거리를 이어 나간다.

김주일 기자

포항 MBC다큐멘터리 '남산'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 선정

"남산에 깃든 역사적 뿌리 아름다운 영상에 담아"

포항 MBC의 '특별기획 다큐멘터리-남산 4부작(기획 이보근, 연출 김욱한)'이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선정하는 5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방송위원회는 "'남산'은 경주 남산에 깃든 우리 민족의 역사적 뿌리와 미학적 근원을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탐색한 동시에 아름다운 영상으로 담아낸 세련된 연출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남산'은 '노천 박물관'이라 불리는 경주 남산의 숨겨진 역사와 문화를 속속들이 파헤친 대작. 제작비 2억원을 들여 기획에서 촬영까지 2년에 걸쳐 남산 곳곳을 훑었고 남산 불상의 원류를 찾아 중국, 파키스탄 해외로케까지 감행했다. 지방 방송국의 넉넉하지 않은 재정을 감안한다면 그야말로 '모험'이었던 셈.

김욱한 PD는 "겨레의 혼이 담긴 남산의 모습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화면에 담아내는 작업이 가장 힘겨웠다"고 말했다.

1부 '신화를 넘어 역사로'에서는 경주 남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과정을 알아본다. 2부 '돌로 빚은 불국토의 비밀'은 첨단 기술을 이용한 불교미술의 복원에 초점을 맞췄다. 석탑의 해체와 복구, 레이저 스캔작업으로 복원한 불상의 미소 등을 볼 수 있다. 3부 '실크로드는 남산으로 흐르나니'에서는 중앙아시아와 중국 등의 불교유적 답사를 통해 남산의 세계사적 의의를 살린다. 4부 '남산, 역사에서 영원으로'는 남산 유적을 영상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아울러 남산의 보존방안을 찾아본다.

'남산'은 포항 MBC 홈페이지(www.phmbc.co.kr)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7~8월 경 전국에 방송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5월 이달의 좋은 프로에 선정된 포항 MBC다큐멘터리 '남산 4부작'의 한장면..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btn 불교텔레비전 <ch 32>

06:25 신행365일
08:00 BBS 뉴스광장
11:00 행복스튜디오 황청원입니다
14:45 고승열전
18:15 유쾌한 저녁길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11일 08:30 정세채의 '밥상에 도가 있다'
12일 08:30 강법선의 난과 생활
13일 19:40 야! 부처님이다
14일 11:30 퀴즈 야단법석
15일 09:30 무비스님의 법화경 강의
16일 12:20 자비의 천수천안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노정렬의 유쾌한 저녁길 1, 2부(17일 18:15~20:00)- 정보와 오락이 어우러진 퇴근길의 휴식처, '노정렬의 유쾌한 저녁길' 화요일 순서에서는 세광코리아 한광호 실장이 직장인의 재테크와 내 집 마련을 위한 경제정보를 들려준다.

■불교텔레비전

▷정세채의 '밥상에 도(道)가 있다'(11일 08:30~09:05)-11일 방송되는 세 번째 시간에는 '음식과 성격'을 주제로 시대와 지역, 먹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음식의 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국내 파동명상의 최고 권위자 법운선생 특별지도』





◇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의100% 활용에 도전한다.
<파동명상 지도사>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파동명상으로 하는 제령 천도-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나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전생퇴행 파동명상 - 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져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원격제령 파동명상 - 제 3자가 파동명상상태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음.

[특전] 파동명상 지도자 전생연구학회에서 파동명상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전 문 반 : 일주일 과정 (참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 전문반 과정을 마친 후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지속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음 [참가비 300만원]
● 적용분야 : 일반적인 파동명상 수업외 배아령 조상령 빙의령 축생령 구병시식 천도 및 제령
● 적용대상 : 스님, 법사, 상담가, 기공수련가(수업을 끝마치신 많은 분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 특강일시 : 6월 2째주, 4째주

「동방파동명상연구소」에서 수행하신 많은 스님, 법사님들이 파동명상을 통하여 경험하신 신묘하고 놀라운 경험담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그분들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 옮기지를 못하고 작고 가벼운 경험담만 허락을 받아 옮기고 있습니다.

◆ 이 코너는 저희 파동명상연구소에서 수행하신 스님 · 법사님들의 놀라운 경험담을 싣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느 산중에서 토굴 수행을 하시고 계신 보명스님.

경기도 어느 산중에서 토굴 수행을 하시고 계신 보명스님은 저희 연구소에서 수행하시던 이틀째 되던 날 새벽, **파동명상**요법으로 유체이탈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순간 스님은 다차원의 공간으로 의념을 옮기면서 평소 스님과 인연이 있던 신도들과의 영적인 친견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는 한 집안에서 세 명의 자식들이 줄줄이 40살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원령怨靈이 있었음)를 알 수 있었고, 또 다른 신도의 집에서는 외국(*프랑스)에서 공부하다 집안에 초상이 나서 잠시 귀국했던 큰딸이 집 뒷산에 등산을 다녀온 뒤부터 갑자기 언어장애가 생겨 말을 못하게 되어 유학을 포기해야 하는 상태에 이르렀는데 스님이 유체이탈 상태에서 그 딸의 상태를 점검해 본 결과 그 딸의 몸 속에는 지난 I. M, F 때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그 산에서 자살한 벙어리의 영혼이 빙의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 후 스님은 그 ! 신도의 집에 찾아가 **파동명상**요법으로 그 벙어리 빙의령을 불러내어 천도하게 되고 그 딸은 무사히 출국할 수 있었다고 한다.

(※본인의 요청에 의해 연락처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동 방 명 상 전 생 연 구 소

◈ 문 의 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14화 무사독오(無師獨悟)

싯다르타의 고행(苦行)은 호흡법으로부터 단식법(斷食法)으로 이어져 갔다. 차츰 식사의 분량을 줄여가더니 하루 보리 한 숟갈이 되었을 때 이미 예전 싯다르타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몸은 여윌대로 여위어 문자 그대로 배와 등뼈가 찰싹 달라붙었다. 거기에서 다시 쌀 한 알에 삼(麻)씨 한 알로 줄이니 바짝 마른 데다가 피부 빛깔도 다 바래어 먹빛이나 죽은 잿빛 같아서 마치 죽은 사람의 형상 그대로였다. 이 고행 기간엔 여름의 살인적인 더위도 겨울의 추위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며 모기나 다른 독충들이 물어도 내버려두었다. 이미 죽음을 각오한 고행이었던 것이다.

"세상의 사문(Sramana)이나 브라만(Brahman)들 가운데는 몸과 마음이 방일(放逸)에 빠져 탐욕의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까마(Kama, 慾望)를 털어 버리지 못한 채 고행을 하고 있는 이가 있다. 이것은 마치 불을 얻고자 하면서 젖은 나무를 물 속에서 열심히 비비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 어떤 사문이나 브라만 중에는 비록 몸으로는 탐욕을 행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애착을 갖고 있는 이가 있으니 이것도 역시 불을 얻고자 하면서 젖은 나무를 마주 비비는 것과 같아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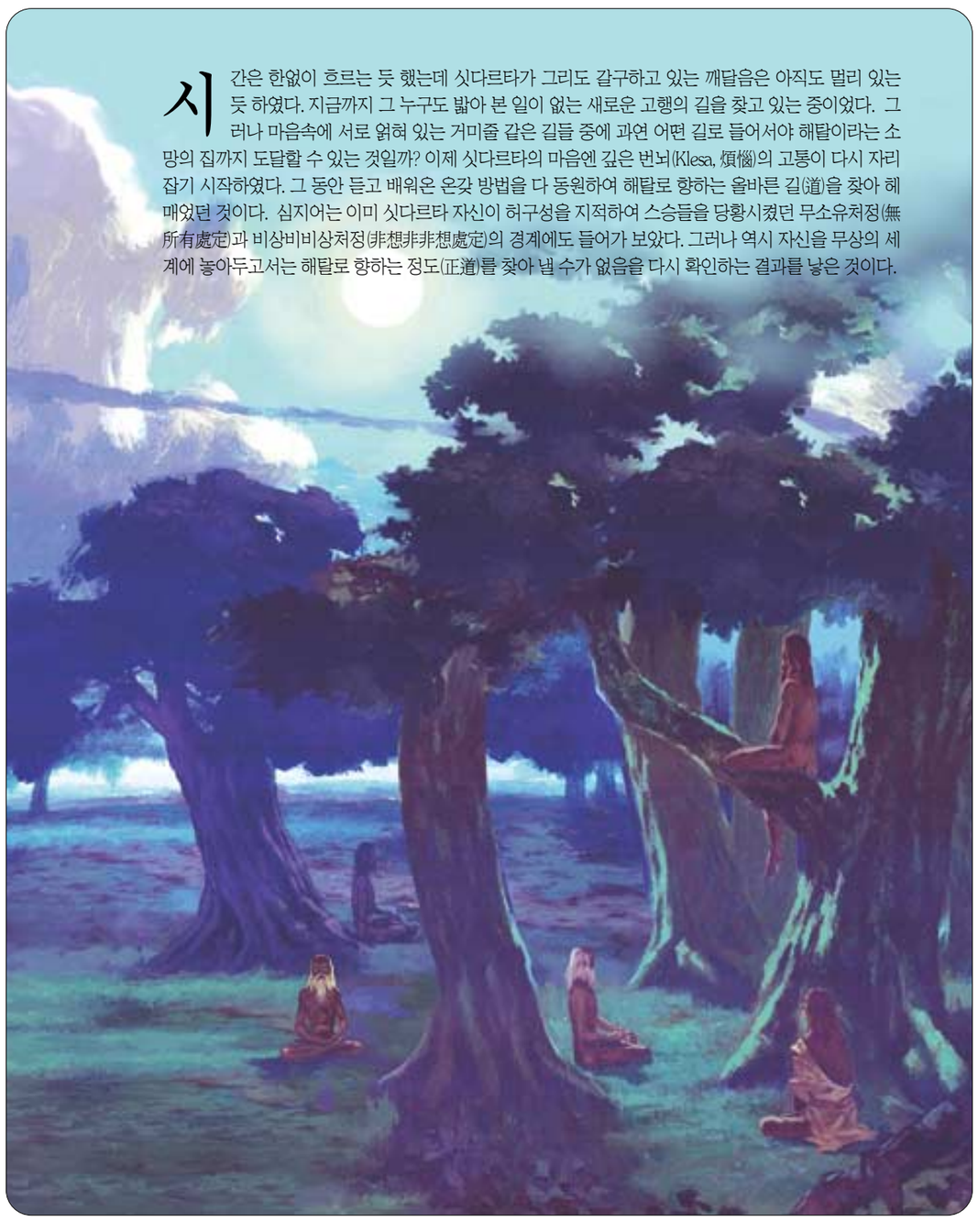


수행자는 몸과 마음을 바르게 닦고 탐욕을 완전하게 버린 후 조용한 곳에서 수행하고 고행의 길을 가야만 한다. 이것은 마치 불을 얻고자 잘 마른 나무를 마른 땅 위에서 비비는 것과 같아 비로소 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맑고 고요하게 되어 심오한 삼매(三昧)의 경지 속에서 수행하고 고행하여 최고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어느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며 계절이 바뀌고 산천이 바뀌어 갔다. 그러나 결심을 굳힌 싯다르타는 결코 자리를 일어날 줄 몰랐다. 내리퍼붓는 폭풍우도, 싯다르타의 자리를 위협하며 차 오르는 홍수의 위력 앞에서도 결코 굴복하는 일이 없이 고행의 길을 계속 가고 있었다.



시간은 한없이 흐르는 듯 했는데 싯다르타가 그리도 갈구하고 있는 깨달음은 아직도 멀리 있는 듯 하였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밟아 본 일이 없는 새로운 고행의 길을 찾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나 마음속에 서로 얽혀 있는 거미줄 같은 길들 중에 과연 어떤 길로 들어서야 해탈이라는 소망의 집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일까? 이제 싯다르타의 마음엔 깊은 번뇌(Klesa, 煩惱)의 고통이 다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듣고 배워온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해탈로 향하는 올바른 길(道)을 찾아 헤매었던 것이다. 심지어는 이미 싯다르타 자신이 허구성을 지적하여 스승들을 당황시켰던 무소유처정(無所有處定)과 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의 경계에도 들어가 보았다. 그러나 역시 자신을 무상의 세계에 놓아두고서는 해탈로 향하는 정도(正道)를 찾아 낼 수가 없음을 다시 확인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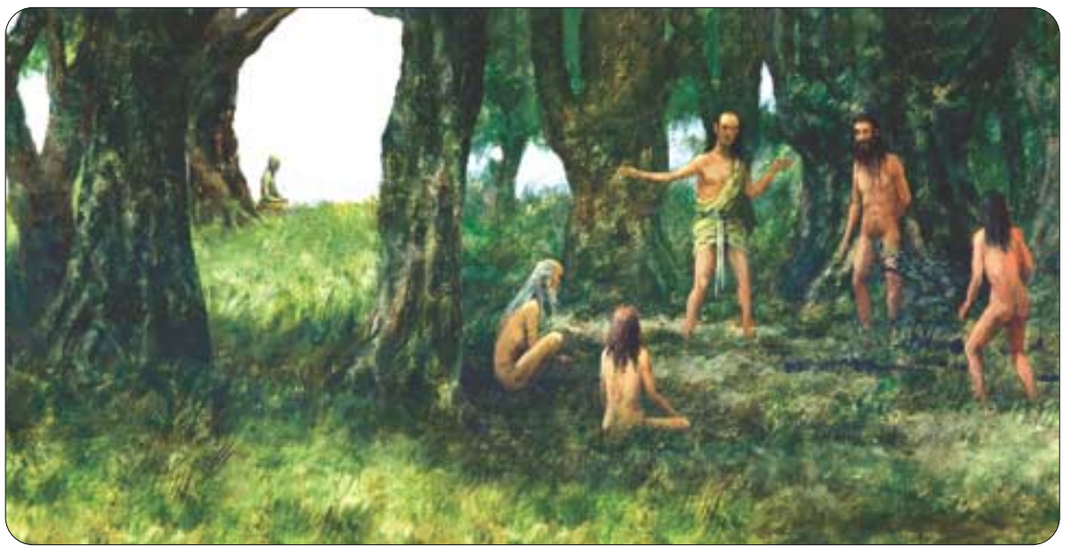


어쩌면 해탈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잡을 수 없는 대 우주의 자연법칙 속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싯다르타의 눈물겨운 투쟁은 한없이 계속되어갔고 이미 한계를 넘어버린 그 체력은 더 이상 그의 생명을 지원할 수 없게되어 버렸다. 결국 그토록 갈망하던 해탈을 이루지도 못하고 아까운 한 생명이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그 생명의 주인은 이미 모든 것을 맞이할 각오로 그 최후의 순간까지 아직도 해탈로의 고행 길을 재촉하고 있지 않은가….

싯다르타가 생사를 가르는 최후의 기로에 섰을 때 그의 고행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줄기차게 지켜본 다섯 사람의 수행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숫타카 라마풋타 선인의 제자들이었다. 이 다섯 명의 수행자들은 싯다르타가 처음 그들의 스승을 찾아왔을 때부터 이 샤카족의 왕자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믿으며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싯다르타가 입문(入門)한지 불과 한 달만에 그곳을 떠나자 크게 경악한 것이다.

"우리들은 벌써 오랜 세월을 스승의 밑에서 수행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스승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저 샤카족의 왕자는 짧은 기간동안에 스승과 같은 경지에 도달했고 이에 만족하기는커녕 더 높은 경지를 찾아 수행을 계속하고 있다. 이 분이야말로 반드시 최고의 깨달음을 실현할 것이다." 웃타카 라마풋타의 제자들은 서로 의논 끝에 이 샤카족의 왕자를 뒤따라와 멀리서 그의 거동을 살피며 그와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려 했다. 그러나 싯다르타는 이곳에 오는 즉시 참선에 빠져들었고 그의 수행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거룩하여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계속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이다.

이들 오인(五人)의 수행자들은 마하나마 쿨리카(Mahanama Kulika), 바드리카(Bhadrika), 다사발라 카샤파(Dasabala Kasyapa), 아쉬바지(asvajit), 아즈냐타 카운딘냐(Ajnata Kaundinya) 등 다섯 사람이었다.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보살도 이루는 3단계 공부방법

하나, 모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놓고
둘, 둘 아닌 도리 알기 위해 또 놓으면
셋, 나툼의 이치 깨닫고 구경각에 도달

▲스님: 이렇게 첫째 일요일에 형제 법우님들과 같이 한자리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질문과 토론을 같이 할 수 있길 바라면서 시작합시다.

▲질문자1: 이 도량에 오시는 불자님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스님께서는 불법의 공부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서 첫째는 참나의 발견과 완성, 둘째 모두와 하나가 되는 것, 즉 전체 속에 자기가 있음을 깨닫는 것, 그리고 셋째는 이런 수행을 거쳐 보살도를 완성해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평소 스님 법문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아 왔지만 우둔한 저희들은 아직까지 미혹한 가운데 있습니다. 차제에 이 3단계의 공부과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데도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되는 모양이죠. 물론 체험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그것은 이름해서 삼정지각 불이법이라고 합니다. 난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것이니 잘 참작해서 들으세요. 육이법도 있고 팔정도법도 있고 십이지법 등이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떠나는 게 아니라 한마음에 놓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첫째도 죽어야 나를 볼 수가 있고, 둘째도 죽어야 나와 더불어 둘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셋째도 죽어야 나하고 둘이 아닌 바로 나툼의 도리를 알 수 있어서 구경지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도 이름해서 말입니다. 이 세 단계를 체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요. 내가 나왔기 때문에 일체만법이 나로 인해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나로 인해 벌어지니 나를 다스리면서, 바깥 경계도 내면에 놓고 안의 경계도 내면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무조건 용광로에다 헌쇠 넣듯, 모든 것을 거기서 하게끔 감사하는 마음으로 놓아야 합니다. 나를 이끌어 가는 것도 거기요, 일체만법 역시 거기서 들고나는 것이니까요.

그리하여 일단계 참나를 발견하게 되면 둘이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 거기에다 또 놓고 가야 합니다. 그때 안에서 어떠한 뜻이 나오더라도 해서 되는 것은 하되 나오는 대로 맹종하진 마세요. 즉 참나를 발견하고 나면 지혜를 넓혀서 생사윤회에 끄달리지 않게 하기 위해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며,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고 주장하는 그런 안의 경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경계에 맹종하지 말고 누(累)가 되지 않을 일은 하고, 누가 될 일은 하지 마세요. 나를 테스트 해보려고 그러는 것이니 감사하구나 생각하고 거기 또 놓으세요. 만일 안의 경계에 맹종하여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한다면 안으로 기울어지고, 밖의 경계에 끄달리면 밖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안에나 밖에나 맹종하지 말고 모든 이치를 바로 알아서 올바르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양변은 하나가 되어 그대로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생각하면서도 걸림 없이 그대로 자기 주장자를 올바로 세우고 이끌어 나가는 공부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둘이 아닌 까닭을 알았기 때문에 둘이 아닌 나툼을 하게 됩니다. 그 나툼이란 열반계를 말합니다. 즉 열반각지, 구경각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구경각지인가?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항상 드는 비유입니다만, 여러분은 여러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이름이 많으시죠? 한 분이 남편, 사위, 아버지, 아들, 아우, 할아버지 등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회에 나가면 또 사회에서 맡은 직책이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갖가지의 이름이 될 때마다 그에 맞는 행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을 만나면 아버지로서의 생각과 행과 말이 아주 선명하게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부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없고 남도 없다라고 한 것은, 일체가 내 아님이 없고 일체가 내 도량 아님이 없고 일체가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부처 아님이 없고 중생 아님이 없으며, 모두가 한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도 없는 것이 부처다.'라고 하신 것은, 그릇에 따라서 종지에 응해 주기를 원하면 종지가 돼 주시고 사발에 응해 주기를 원하면 사발이 돼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달마대사도 구렁이가 됐다가 금방 다시 달마대사로 됐던 것이지요. 나도 그런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들 호소합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병도 없다는데 나는 죽겠습니다. 어디가 아프긴 아픈데 몸져눕지도 않고 이렇게 아프기만 합니다.' 하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부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그냥 밖으로만 끄달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천차만별로 많은데 인간사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구렁이가 구원해 달라고 한다면 부처님은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의 마음은 구렁이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문을 활짝 열고 안아 들이시니 두드러지지도 않으면서 바로 구렁이가 되어 버렸죠. 그리고 사람이 건져달라고 할 땐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고, 돼지가 건져달라고 하면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고, 소 속으로도 들어가고, 말 속으로도 들어가고 그럽니다. 또 하다못해 풀 속으로 나무 속으로도 들어가고 구더기 속으로 들어가서 구더기도 되고 하니, 어떤 게 될 때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부처다 이겁니다.

그걸 바로 이름해서 구경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계를 통달했다는 얘깁니다.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을 다 통달하고 과거 현재 미래세계를 다 통달했다는, 그래서 자유자재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될 때 나라고 할 수 없고 어느 미물이 될 때 나라고 할 수 없고, 어느 목신 지신 용신이 될 때 나라고 할 수 없이 일체 만물만생으로 화하여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 이름해서 부르는 겁니다. 이런 각을 이룬 마음이라야 무심의 도리인 중용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한생각은 체가 없어서 저 바깥에 나가는 것도 문지방 넘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앞뒤 툴린 텅 빈 불바퀴 속을 서슴없이 들고 날 때 비로소 우리는 우주삼라 대천세계를 그대로 자유스럽게 들고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처럼 경을 많이 읽지 않아 경전의 용어를 인용하지 않기 때문에 좀 답답하시겠지요. 그러나 난 우주 천하가 그대로, 큰 불바퀴 작은 불바퀴 둘이 아닌 그대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부처님께서 3천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도 말씀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이 법이 되어 끊임없이 여러분과 더불어 언제나 함이 없이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자기로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으니까 상대성 원리로서 일체만법을 서로 공심으로 공용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공용을 할 때 찰나찰나 변하고 화하여 찰나찰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면서 끊어짐이 없습니다. 광력, 전력과 같이 자력으로서 우리들은 통신력을 충만히 두루 하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학적으로 본다 해도 그렇고 3단계의 문제가 바로 우리에게 아주 극치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나 즉 내가 짊어지고 나왔으니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없고, 현재는 짊어진 것이 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없다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났다 금방 다른 이를 만나고 또 다른 이를 만나고 그럽니다. 그러나 둘이 아닌 까닭에 너는 너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뚜렷하다 이 소립니다. 전력이 둘이 아닌 까닭에 어느 불이나 불은 똑같지만 전구는 각각이듯이. 그러므로 그 도리를 3단계로 나눈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었어도 결국은 삼계를 통달한다면 모두를 그대로 요리할 수 있어서 아무런 나누어짐 없이 스스로, 3단계는 이미 3단계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도 고정됨이 없고 몸뚱이도 고정됨이 없으며 듣는 것 보는 것 먹는 것 모두 고정됨이 없으니 어떤 것을 먹을 때 누구를 만날 때, 어떤 것을 들을 때 어떤 것을 볼 때 어떤 것을 맡할 때 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변해서 찰나찰나 돌아가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의 모습, 말, 뜻 모든 것이 화하듯 그렇게 응해 주시는 천백억화신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3단계의 모든 이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놓으라는 말은 재차 하는 소리지만 여러분은 놓고 가질 않습니다. 마음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착을 두고 욕심을 내고 아집과 아상으로 '내가 내가' 모두 '내가'로 돌아가니 어려움에 부딪치는 거죠.

바깥에 끄달리면서 남의 말 듣지 말고 자기 마음에 의지해야 만이 정심이며 옳게 들어가는 공부

3단계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나도 아니요 너도 아니요 모두가 아닐 때, 나 아님이 없다는 도리가 거기에서 선명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내면세계가 옳으냐 바깥세계가 옳으냐, 이론이냐 마음이냐 이런 것도 다 통달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법은, 예를 들어서 '이게 옳습니까 저게 옳습니까' 한다면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불을 켜기 위해서 스위치를 누를 때 '불을 켜야 옳겠습니까' 하고 불을 켭니까? 안 그러시죠? 전력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전구가 모두 가설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대로 아무 소리 없이 불을 켤 뿐입니다. 방바닥에 물이 떨어졌으면 아무 소리 없이 걸레를 갖다가 닦을 뿐입니다.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말라도 아무 소리 없이 그저 냉장고 열고 꺼내 먹거나 '나 물 좀 줘' 해서 그냥 마실 뿐입니다.

거기 무슨 이유가 붙습니까? 목이 말라서 물 달라는데 무슨 이유가 붙느냔 말입니다. '내가 먹어야 옳으냐 안 먹어야 옳으냐' 하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물에게 물어봅니까? 내가 너를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고 물어보고 먹습니까? 목마르면 그냥 마실 뿐입니다. 이유가 붙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불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라는 걸 내세우지 않는 데서 바로 구경지를 이루어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망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관습에 의해서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지 아니,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목석이지 그게 어디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좌선을 한다고 몇 시간 앉아 있는 것만이 좌선이 아닙니다. 일분일초도 하지 않았다, 했다는 소리 없이 일상생활이 그대로 참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좌선이요, 참선입니다.

내 마음 편안하게 끄달림 없이, 망상이 일어날지라도 아랑곳없이 일어나는 그 마음을 가만히 관해 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의식에 모두 마음들이 있어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는 것이니 지켜보고 옳은 것은 옳은 것대로 그른 것은 그른 것대로 다 쓸 수 있는 그릇이 되게끔 몰아 넣는다면 그것이 바로 올바르게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지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모두가 마음이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가, 젊은 청년들, 학생들, 모두가 마음 일어나는 대로 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질은 누가 시켰으며 선행은 누가 시켰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자기 주처에 놓는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학문제도 그래요. 나오는 문은 좁히고 들어가는 문은 넓혀서 기술계 고등학생들도 일하면서 그 방면으로 계속 성장하도록 해주고, 한편 월급도 대졸 고졸 가리지 말고 자기 능력대로 지급된다면 꼭 대학에 가려고 애쓰지도 않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대학 들어가기 위한 부정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게 다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넓지 못하고, 또 남의 소릴 듣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바깥으로만 끄달리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런 처리들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역사를 가져온 것도 바로 그 탓 아닙니까? 불교를 등한시하고 유교만을 중시했기 때문에 바깥으로 끄달리고, 관습에 얽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런 문제들을 짊어진 한국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근본 수행을 하여 유무를 한데 합친 한마음 속에서 모든 일을 해 나간다면 제일가는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하나, 의학 · 과학 · 노동 등 모든 것이 정신노동, 정신과학, 정신의학, 이렇게 모두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모든 걸 해나간다면 부정부패 같은 건 없을 겁니다. 부질없는 싸움들도 안 할 겁니다. 남을 물에 끌어다 넣으려면 자기도 물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니 자기 죽는 짓을 누가 하겠습니까. 자기와 남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발전이어야 합니다.

내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은 '에이, 뭘 그럽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에 의해서 입력이 되어 곧바로 나오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손을 대지 않아도 차가 그냥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으로 한다면 차 사고도 그렇게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적게 쓰고도 많은 인력을 쓴 것보다 몇 곱절 더 이익을 볼 수 있고, 경제난에 허덕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방에 앉아서 세계를 탐험할 수 있고 우주법계를 다 탐험하고 결정지어서 마음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오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린 이런 공부를 하지 않고는 안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 아까 3단계의 문제가, 바로 3단계가 3단계가 아닌 도리로 3단계도 없고 1단계도 없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여러분이 자기 탄생을 한다면 삼계를 통달한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며, 바로 '삼계 통달'이라는 이름도 없는 그런 통달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그 경지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가슴에 닿게 말씀을 해드렸습니까?

▲신도일동: 예, 감사합니다.

▲질문자2: 저도 천도재를 올렸습니다. 도량에 가면 조상님이나 살아 계신 분들을 위해 천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곁들여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그 얘기를 하면 영(靈)도 들어가는데 뭘 또 붙였습니까, 하하하. 그것도 세 차원이 있습니다. 첫 단계는 모르는 사람이 그냥 천도식을 하는 것입니다. 흉내를 내는 거지요. 삼천 년 전에 부처님께서 '이렇게라도 해라' 하고 말씀해 놓으신 것을 말로만 따라 외우면서 그렇게 해주는 천도식이 있습니다.

또 한 단계는 이 도리를 공부하면서 주인공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처음 오신 분들도 그렇고, 스님네들이 그 마음의 도리라도 알아서 떡 한 그릇 차려놓고라도 함이 없이 했을 때 비로소 영령들이 그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전체가 내 아님이 없는 도리에 들어온 것입니다.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갖고 어떤 것을 할 게 없이 전체가 자기 것이니까, 즉 스님네들의 마음내는 능력에 따라서 영령들도 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신도님들은 그러한 스님에게서 천도를 해야 조상들의 은혜도 갚을 수 있고 자손들도 잘된다더라 하는 생각으로 천도재를 지내려 합니다. 모든 걸 거기다 맡겨놓고서 천도할 때, 일체제불의 마음과 조상님들의 자식 위하는 마음이 한데 합쳐집니다. 마음과 마음이 합쳐짐으로써 아주 큰 밝은 불이 되었을 때 '아이구, 내가 추워서 여기 있었는데, 저기 큰 밝은 불이 있으니 가서 따뜻하게 살아야겠다.' 하고 가는 것이 천도인 것입니다.

부모가 마음도리를 알지도 못하고 끄달리면서 살다가 돌아가시면 그 차원의 그릇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사찰이나 종지 등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의 큰그릇으로 만들어 놓으면 개미 지나가는 것도 볼 수 있는 밝음을 그대로 맛볼 수 있고, 모든 게 내 아님이 없고 내 먹을 것 아닌 게 없으니 그렇게 해서 한 찰나에 천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단계는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정말이지 당당하고 원력이 있게 되었을 때 '아하, 일체제불의 마음과 모든 조상들의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한자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고 드는 것이니 여러 가지 차려놓고 빌고 하는 것만이 아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한다면, 촛불 하나 안 켜놔도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밝은 인등을 켜니까 그 인등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마음 속에서 온 누리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으니 그 온 누리에 통신 아니 뭄이 없고, 온 누리에 한마음으로 바로 공심으로서 돌아갈 때, 그 조상의 마음도 거기 한자리 하는 거죠. 그러니 뭘 또 따로 지내고 자시고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천도재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천도재를 하고 우린 이러이러했다고 하니까, 여기 와서 천도를 하면 부모님들이 잘 천도되겠지 하고 생각들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요사이 지방의 신도들이 천도재를 합니다만 어떤 때는 빼놓는 영가가 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이렇게 살던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넣어서 해!" 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걸 빼놓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그런 걸 챙겨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도재에 드는 재비는 물론 집안 형편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가난하면 부모님들께 용돈을 적게 드리고, 부자는 부자대로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상 차려 놓고 천도시키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있는 사람은 많이 가져와도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고생 고생 하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벌어 놓고 간 것, 부모를 위해서 좀 쓴들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진실하게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다시 나올 때 가지고 나오는 무심의 통장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깨우치질 못해서 참 공덕은 받지 못하나 자식의 공덕으로서 부모가 무의 세계에서 그 정성으로 통장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 출현하

☞30면으로 계속

무심으로 양면을 껴잡아서 중용 할 수 있어야 멋있는 자유인

☞29면에서 계속

게 되는 것이죠. 자식들로 인해 공덕을 받았으니 무식한 사람 안되고 당당한 사람으로서 나온다는 겁니다. 살면서 지은 죄는 어쩔 수 없지만, 자식의 공덕으로 천도된 분들은 복주머니 안가지고 나오는 분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이런 얘기 하나 할까요? 어느 분이 살아 생전 아주 착하게 살다가 죽었는데 어디로 가자고 하여 따라가 보니 촛불을 주욱 켜놨는데 거기에 복주머니들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이름 석자가 모든 것에 붙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촛불이 가느다란 것긴, 것, 금방 꺼질 듯한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더래요. 그러고는 그분이 '어이구, 내가 잘못한 죄로 자식들을 고생시켰노라' 고 하니까, '당신은 마음이 착해서 이렇게 해 줄 테니 한번 해봐라' 하더랍니다. '이 촛불은 긴 것이니 오래 있다가 죽을 것이다. 이것을 빌려 줄 테니 이 복주머니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일을 하라. 이 주머니에서 빌려간 돈을 다 갚고도 이익이 남아서 좋은 일을 더 할 수 있고, 복주머니는 다시 찰 것이다. 착하게 살았으니 나가서 그렇게 해보라' 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시 내보내져서 도로 깨어났단 말입니다. 그렇게 깨어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삼일장 또는 칠일장을 지내기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삼일장을 지냈는데, 나흘 만에나 닷새 만에 깨어나서 자기 집이 없으면 딴 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말입니다. 자기 몸이 없으면 살아날 수 없으니까요. 그런 영혼은 다시 나와도 들어갈 곳이 없으니 다른 사람 몸으로 들어가서 살게 됨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한 몸에 둘이 살게 되니까요.

그래서 타의 영계로 인해 혼동을 일으켜 병원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유전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도 많은데 그런 것을 어떻게 의사가 고칩니까. 생각해 보세요. 딴 소리 하거든요. '난 아무개야!' 하면서. 그러나 그게 딴 소리가 아닌데 제삼자가 듣기에 그렇게 듣고 미쳤다고 갖다 넣는 거지요. 여간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예전에 원주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북에서 나왔다는 어느 처사님이 7남매를 두었는데 그 부인이 말입니다. 항상 몸을 웅크리고 벌벌 떨고만 있으니 애들을 거들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밥도 떠 넣어줘야 먹고 그러는 겁니다. "어이구, 무서워! 아이구, 무서워!" 하면서 달달 떨고만 사는 거예요. 7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 별의별 굿은 물론 병원에 입원도 했지만 안 낫는 겁니다.

그래 그 남편이 날 찾아온 거예요. 하도 기가 막히니까 자기 시계를 풀어놓고는 "아무 것도 없고 이 시계밖에 없으니 받으시고 제 아내 좀 살려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그 시계는 받아서 뭘 합니까. 내 몸도 주체 못해서 죽겠는데 시계는 왜 끌고 다닙니까. 그래 도로 주니 안 돌봐주려고 그러는 줄 알고 그걸 받아야만이 가겠다고 합니다. 할 수 없어서 "정히 그렇다면 지금 주머니에 얼마 들었소?" 하니까 뭐 3천 원인가 4천 원이 있다길래 그럼 5백 원어치의 사탕이라도 사오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라도 주고 가라고.

그랬더니 사탕 한 봉지를 사가지고 와선 우는 겁니다. 그래 그걸 놓고 떡 부러지게 잔치를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 처사가 이북에서 월남을 했는데 그 쪽에서 어머니를 불들어다가 어떻게 죽였느냐 하면 치마를 씌우고선 총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죽은 그대로 흉내를 내는 겁니다. 며느리가 말이에요. 할 수 없어서 그분들을 사탕을 가지고 일체 다 천도를 했습니다. 천도를 하고 나니 그 이튿날 씻은 듯이 나은 거예요. 그러고는 그 후에 아들들 다 대학 보내고 집도 사서 떵떵거리며 잘 살았습니다.

잘 살면서 몇 해가 지나고 월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 부인이 몰라볼 정도로 세련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난 몰라봤다구요.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우리 남편이 진급되게끔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 정성을 지극하게 자기 딴에는 한다고 했습니다. 주인공을 믿으라고 그래도 그런 것은 아랑곳없이 스님이 사탕 몇 개 가지고도 다 해결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 그렇게 걱정이냐 이겁니다. 그땐 불쌍해서 그랬는데 말입니다.

아, 그런데 남편이 진급이 안되고 딴 사람이 돼서 월남에 갔습니다. 그랬다고 와서 행패를 하는 겁니다. 능히 해주고도 남음이 있는 스님인데 우릴 밉게 봐서 진급이 될 것을 안 해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안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다. 싸움터에 나가서 후퇴를 하는 것도 법이야. 전술의 법이야. 그러니까 전진하는 것만 법이 아니라 후퇴하는 것도 법이다." 이런 말을 해줬더니 그런 것도 아랑곳없습니다. 그러고는 갔습니다.

그런데 몇 달 있다가 다시 왔습니다. "아이구,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똑같은 지위에서 진급을 한 사람이 월남에 가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그때서야 '아이구, 진급 안되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후퇴도 바로 법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렇게 하고 가선 종무소식이예요. 편안해졌거든요.

부처님이 하시는 일, 천차만별의 그 뜻, 그 나툼, 이런 걸 여러분이 어떻게 다 아시겠습니까? 전력이 들어오는 걸 못 보듯이 그저 불 들어온 것만 보시지 전력이 오고 가고 천차만별로 그저 달라는 대로 씀씀이대로 전력이 간다는 건 모르죠. 그러니까 가고 오고 있다는 것만 알지 그걸 실제로 보진 못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부처님이 천차만별로 천백억화신으로서 나투면서 또 진화시키고 이끌어 나가는 그 나툼의 중용을 여러분은 다 아시지 못합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전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처사님이 가발회사를 조그맣게 했는데 하면 망하고 하면 망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 다니면서 부모님 천도재를 지냈는데, 꿈에 부모님들이 보따리 가지고 나갔다가는 도로 들어오곤 하더랍니다. 꼭 천도재를 지낸 그 날 저녁에 꿈을 꾸면 도로 들어오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형제들, 난리통에 죽은 사람 할 것 없이 그냥 보따리 갖고 도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 천도가 안됐다는 걸 본인 자신이 알고는 다른 절로 가서 또 지내도 역시 그런 꿈을 꾸게 되고, 그러다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찾아와서 "천도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길래 나는 무심코 "당신 앉은 방석에다 놓고 가시오!" 했습니다. 당신 앉은 방석에 놓고 삼배하고 가라고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곤 나갔다 다시 들어와선 방석에 얼마를 놓고 갔습니다. 하도 속아서 인제는 그냥 이렇게라도 해보자 하는, 그냥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되고 한 거지요. 그렇게 하고 갔는데 그 날 저녁에 꿈을 꾸니까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면서 "얘야, 250원이 모자라서 내가 그 스님한테 꾸어가니 갖다가 갚아라."고 하더래요. 그 이튿날 와서 고맙다고 250원을 내면서 좋다고 절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고부터 가발공장이 부쩍부쩍 일어나서 돈깨나 벌었죠.

그런데 그 사촌동생이 원주에서 구멍탄들이고 내는 데서 사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남편 월급만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부인이 화장품 장사도 하고 그랬는데 남편은 폐결핵이 걸려서 피를 쏟고 그랬습니다. 언제 절에 올라왔길래 8천 원인가 시주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8천 원을 시주하라 그랬더니 그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당신 남편을 위해서는 당신이 화장품 장사 하면서 벌어서 버선 속에 넣어둔 거 가져와, 남편을 살리려면!" 그러니까 버선 속에 넣은 걸 어떻게 아느냐는 겁니다. 하도 가진 게 없어서 못한다니까 할 수 없죠. 그 딱한 사람을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벌금을 물고 빼내오는 것처럼 벌금을 물은 셈이죠. 그렇게 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자기가 잘했던지, 뭐 어떻게 했던지 병이 나아서 서울에 있는 가발회사 지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삐끗해서 약국에 가서 동침을 맞았대요. 발목 뼈에다 맞았는데 그게 썩어 들어갔던 거죠. 병원에 가니까 자르라고 그런답니다. 병원에서는 내일 아침까지 자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는 그 부인이 어린애를 업고 와서 막 우는 겁니다. 그래서 낫거든 25만 원을 시주하라 그랬습니다.



그림 · 최주현

그때는 그 정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고는 다시 진찰을 하니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 그때에 다리 절단하는 것을 그만둔 거죠. 의사들이 "아, 우리가 오진은 안 했는데 이거 무슨 일이냐?"고 "뭘 믿느냐?"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불교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내보내더랍니다. 발목만 조금 아프지 괜찮아졌는데, 돈 25만 원을 부인이 꼬깃꼬깃 손에다 쥐어주면서 일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고 말하고 합니까?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는 시시때때 찰나찰나 화하시기 때문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가야 옳으냐 안가야 옳으냐 하는 분별을 하지 않는 겁니다.

돈오돈수다 돈오점수다 하는 것도 돈오돈수가 옳다는 사람은 돈오돈수에 걸린 사람이고 돈오점수가 옳다는 사람은 돈오점수에 걸린 사람이지,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면 뭐냐, 아무 소리 없이 주먹만 내밀었죠. 그러니 그렇게 흥내를 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원력을, 자기 능력을 스스로 길러야 합니다.

지금 과학적으로도 많이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한다 해도 그것은 한계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주법계가 돌아간다는 그 사실, 살림살이가 그대로 돌아간다는 것과 내 마음 속의 그 의식들이 전부 내가 마음내는 대로 돌아간다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계도 여러분이 그저 이 보이지 않는, 항상 내가 이런 말을 하죠. 마음은 체가 없어서 원자 속에서 입자로 화해서 분신이 돼 가지고 천백억화신으로 화한다. 내가 이런 모습을 하고 이런 무기를 들고 들어가야만 일을 하겠다 하면 그 모습으로 화해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한마음, 깨달은 사람의 한마음이 그렇게 천차만별로 화해서 나툰다 이 소립니다.

나툼! 이걸로도 되고 저걸로도 되고 그렇게 나투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라크 문제가 벌어졌는데 스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묻고, 또 어떤 사람은 "왜 싸움을 일어나게 했습니까?" 합니다. 허허, 아니, 욕심 많은 자는 부처님도 거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싸움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마음으로 뭉쳐서 모든 것을 잘 해낸다면 끝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만 잘하면 석 달 안에라도 다 해결이 날 수도 있죠. 잘해 보세요. 참 멋있는 법입니다. 하도 멋있고 희한해서 묘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영계의 말씀을 많이 해드려도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맛을 봐야지만 실감이 나겠지요.

어떤 때는 선연해요. 영가 천도를 하려고 하면 주욱 옵니다. 이것은 수원에 사는 일가의 이야기인데, 천도를 하려고 돈을 갖다 맡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돈 맡기고 간 걸 알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그 집 영가들이 오는데 말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니까, 왜 후욱 불면 불어지는 거 있죠? 그것이 수없이 오는 거예요. 수없이 오더니 우리 이 절 중턱에서 내리더니만 전부 사람으로 화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뭘 가지고 오느냐 하면, 색깔 있는 담요로 둘둘 말아서는 들것에 담아서 들어오는 겁니다, 송장을. 그래서 왜 그렇게 들것에다 담아서 왔느냐 하고 물으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편히 장사 지내지 못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염은 하지 못하더라도, 죽을 때에 불에 타기도 했지만 똥오줌 고름 묻은 것을 둘둘 말아서 그냥 묻은 거예요.

그랬으니 그게 어디 자식된 도리입니까? 그러니 눈만 떴다 하면 형제들끼리, 3형제인데 막대기를 들고 싸우는 겁니다. 싸우기만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되는 노릇이 없고, 3형제가 다 의절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식들이 자식이 아닌 것을 죽어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기르고 공부시켜서 그렇게 해 놓으니 이렇게 불효하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왔길래 호통을 쳤습니다. "왜 돌아가신 부모님을 답요에 둘둘 말아서 묻었느냐? 그리고 여기까지 들것에다 들고 오게 만들었느냐? 네가 한 그대로 들것에다 들고 왔더라."고 하니 깜짝 놀라면서 "담요가 어느 색깔이에요?" (일동웃음) 아이구, 거기다 대고요. 그래도 못 믿어서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아무개하고 너희 친척이 갔지 않았느냐? 그것도 자식들이 손수 한 게 아니라 남을 시켜서 그렇게 갖다 팽개치듯 하고, 지금 산소도 어디 있는지 찾지 못했지?" 했더니, "잘못했습니다." 하고 백배 사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도재를 지내려 하는데 말입니다. 영가들이 들어와서 요것도 사고 조것도 사러 같이 나가자는 거예요, 하하하. 그래서 내가 시장 보는 스님한테 그랬죠. "얘, 손 닿는 대로 사되, 물건 가격을 깍지 말고 네 마음 내키는 대로 사거라." 그랬더니 정말 가서 좋은 걸로만 집어지고 많이 사고 싶어서 그대로 장만해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가님이 자기가 노비를 가져가야 할 테니까 조금 남겨달라는 겁니다. 남겨준다는 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나올 때 노비를 해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독불장군 없어요. 모두가 서로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 상 차리고 영가님 해달라는 대로 해주었지요. 그렇게 하고 나니 가정은 화목해지고 형제간에 우애 있어지고 하는 일마다 잘되며, 자녀들을 외국으로 유학도 보내고 아주 괜찮아졌죠.

그 이유는 한생각의 악의 씨가 수만 개로도 벌어질 수가 있어서 집안을 어지럽힐 수도 있고, 선의 씨 또한 수만 개가 되어 부자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씨가 영이기에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만 개를 집어넣어도 둘이 아니니 구태여 둘 셋으로 보지 마시고,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조상들도 다 자기와 둘이 아니니 거기다 맡겨 놓으시고, 그렇게만 하신다면 영가님들이 부질없이 헤매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못 봤지만 지금 그분들은 내가 이렇게 있는 이상 살아계시죠. 항상 더불어 같이 살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그분들만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공생 공심 공체 공용 공식화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될 겁니다. 이 세상의 도리는 서로 주고 받고 합니다. 나무들이 공기를 좋게 해서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또 나무들이 먹게끔 내놔주고 하듯이 말입니다.

괜히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개구리 한 마리, 올챙이 하나도 그냥 괜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미생물에서부터 수없는 나날을 거치면서 진화해서 인간까지 되었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뱃속을 보십시오. 그 생김새가 얼마나 천차만별로 다르게 생겼습니까? 그 과정을 다 거쳐서 나왔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 인연에 따라서 인과로써 생긴 그 뭉치가 바로 혹성입니다. 그 의식들이 별성이라고 해도 되고요.

우리 마음의 그 별성은 바로 생명의 밝음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그전엔 하늘을 쳐다보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너와 나와 직결되어 있구나. 모든 생명들이 내 생명과 더불어 직결되어있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런 것을 스스로 알고 느낄 때에 비로소 안다 모른다는 소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부탁할 것은, 나를 발견했을 때 안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는 것. 시켜서 좋을 일이라면 할 것이고 해서 누가 뭘 일이라면 '나를 테스트하려고 그러는 거로구나.' 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거기 다시 놔야 합니다. 바깥에 끄달리면서 남의 말을 듣지 말고, 자기 마음에 의해서 해야만이 그것이 바로 정이며, 정심이며, 옳게 들어가는 공부입니다.

그러니 어디에도 노예가 되지 말고 어디에도 국한되어 있지 말며, 여러분이 수없이 나투면서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이렇듯이 그렇게 나투는 생활을 지금 여러분은 하고 계십니다. 무심으로 양면을 껴잡아서 중용을 할 수 있어야 멋있는 자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들어가야만 돼요. 여러분이 없으면 모두가 없는 겁니다. 상대성 원리도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둘로 보지 마시고 3단계 없는 3단계를 다 입수하셔서 하나도 없는 마음의 도리, 그런 나툼을 깨달으십시오. 그럼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41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분일초도 하지 않았다 했다는 소리 없이 일상생활 그대로 참선으로 들어가야

기쁘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불교 이래서 좋다



육승현

동국대 정보통신공학과 4년

참선으로 하루 시작

불교하면 떠오르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바로 저희 할머니이시지요. 저는 어린 시절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매월 초하루날이면 어김없이 절을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법회시간에 어리광도 부리며 할머니를 괴롭히기도 했고, 법당앞 마당이 마치 놀이터인냥 뛰어 놀았으며 점심 때는 어김없이 비빔밥을 한 그릇 뚝딱 해치웠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런 저를 타이르기 보다는 오히려 이쁘다고 칭찬만 해주셨는데 지금도 그 스님이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학교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가끔 주말을 이용해 집안식구들과 함께 인근 사찰을 참배하는 것 이외에는 사찰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불교와 멀어졌지만 학생시절 내내 어린시절의 추억때문인지, 가족이 불교를 믿고 있어서인지 불교에 대해서는 그냥 호의적인 편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불교를 나의 종교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린시절의 인연은 대학진학을 하면서 싹이 트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불교 종립 대학에 진학해 교양 수준이지만 불교를 배웠고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지금은 불교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으며 사찰 학생회에도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불교를 알고 난 이후 제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는 생각에 매일 아침 일어나자 마자 10분간만 참선을 하자고 서원을 세웠습니다. 이 서원을 지키기 위해 저는 저녁에 일찍 집에 들어오게 되었고 아침에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불교의 힘이 바로 실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제가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할머니가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저는 지금도 불교와의 만남을 주선해 주신 할머니가 고맙기만 합니다.



◇조계사 학생회는 6월 1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4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세대는 달라도 우리는 동문

조계사 학생회 창립 41주년 기념법회

흰머리 선배님부터 교복입은 학생까지
행사후 체육대회 통해 한가족 확인
62년 창립,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회 모델

6월 1일 오전 10시 30분 조계사 문화교육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는 희끗희끗한 흰머리의 대선배님들, 자기 키보다 더 큰 중학생 아들을 데리고 온 40대 중반의 보살님, 유치원생 자매를 업고 온 30대 가족, 말쑥한 정장차림의 20대 아가씨 보살, 교복을 입은 중 고등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다. 언뜻 보기에도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세대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오랜만에 만난 고향친구처럼 서로 안부를 물으며 즐거운 이야기 꽃을 피운다.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은 바로 조계사 학생회 동문이라는 점. 오늘은 학생회 창립 41주년 기념법회가 있는 날이다. 동문, 재학생 100명이 참석해 조계사 총무 도림스님과 지도법사 지월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 이후에는 조계사 인근 풍문여고 운동장에서 동문, 재학생들이 발야구, 사탕찾기, 릴레이, 족구 등을 하며 친선 체육대회를 통해 한 가족임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조계사 학생회(회장 합경완)는 1962년 대한불교조계종 학생중앙회로 창립해 76년 조계사 학생회로 개칭 매년 겨울 수련대회, 서울지역 사찰연합 체육대회, 성지순례, 불우이웃돕기 모금행사, 환경 지킴이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금강 신심을 다져왔다. 학생회 초기에는 지방의 많은 스님들이 조계사 학생회 활동을 보고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인식, 전국적으로 사찰 학생회 창립 모델이 되기도 했다.

조계사 학생회가 40년 동안 꾸준히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동문 선배들의 끊임없는 지원과 동문들 간의 굳건한 친목 때문. 학생회 동문회는 회원만도 수천명에 달하고 전국적으로 흩어져 서로 연락이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인터넷 다음 홈페이지에 조계사 중고학생회 동문모임 카페(cafe.daum.net/cbg)를 개설하고 매월 4째주 산행, 기수별 모임 등 자체 행사를 통해 서로의 친목을 다지고 있다. 이같은 친목을 바탕으로 매년 학생회에 장학금 전달하는 등 금전적 후원과 함께 직업교육, 설법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 20여년 동안 학생회 졸업생이 지도교사를 맡아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어 동문과 재학생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점도 학생회 발전의 밑걸음이 됐다.

조계사 학생회 창립멤버이자 동문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상열(58 · 자영업)씨는 "뜻맞는 도반끼리 학생회를 창립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4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선배는 후배를 도와주고 후배는 선배를 믿고 따르는 정이 넘치는 학생회로 발전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요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2003 '세계 물의 해'

수질관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지만 가정에서 약간의 수질관리 요령만 익히면 식수 뿐만 아니라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

넣어 둘 경우 수질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탱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내의 수도관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다.

급수관= 낡고 부식이 심한 옥내 급수관은 녹물이 나오지 않도록 적정한 크기의 내식성관으로 바꾼다.

수질검사= 수도꼭지에서 계속 녹물이 나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 121이나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하면 무료로 수질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직접 가정내 수도관 연결 사용
낡은 관 교체, 수질검사는 121

서울시는 5월 23일 가정의 수질관리 요령을 발표했다. 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물탱크= 물탱크는 과거 급수환경이 어려웠을 때 설치한 것이 대부분이다. 물탱크는 물을 오래

"왜, 청소년 참여인가"

청협, 청소년 정책 연구세미나 개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박현성)는 5월 30일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왜, 청소년 참여인가'를 주제로 청소년정책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세일 교수가 '청소년 참여의 의의와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서울청소년문화교류센터 전성민 소장이 '청소년 관(觀)과 패러다임의 전환 모색',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김형주 연구위원이 '청소년의 참여의 정당성과 필요성',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송창석 전문위원이 '청소년 참여와 권리 증진 방안' 등의 주제로 각각 발표를 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현성스님은 이날 "지난 해 월드컵 기간동안 청소년들이 보여준 역동성과 절제의 조화는 청소년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청소년들에게 자긍심과 확고한 주인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청소년부 복원과 양분된 청소년 행정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두식 기자

대불어 어린이지도자 연수회 열어

경력 · 기본과정으로 나눠 실시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정여스님 · 이하 대불어)는 6월 7~8일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제 35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어린이 법회 지도 경력 3년 이상의 지도자들을 위한 심화과정과 어린이 법회에 관심이 있거나 지도 경력이 적은 지도자들을 위한 기본과정으로 나누어 실시된 것이 특징. 기본과정은 어린이 법회 운영 개론, 지도교사가 알아야 할 기초교리 등의 프로그램으로, 심화과정은 어린이에게 경전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여름불교학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분임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대불어는 6월 6일~8일까지 2박 3일간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사성제를 활용한 상담기법'을 주제로 불교 상담 과정을 개설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양정수련관, 퓨전티어 동아리 발대식

끼 · 역량 지역사회 환원, 활동상 제시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은 최근 실시한 '우리는 퓨전티어' 동아리 공모전에서 '오픈 마인드' 등 16개 동아리를 선정하고 5월 31일 수련관 소극장에서 동아리 발대식을 가졌다.

'퓨전티어'는 '섞이다'는 의미의 '퓨전'과 '자원봉사자'를 의미하는 '볼런티어'가 합쳐진 말로 '퓨전티어' 동아리 공모는 청소년 동아리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해 타인과의 관계 증진과 협동심을 배우는 동시에 동아리 활동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청소년 동아리 활동상을 제시하고자 실시한 프로그램.

이날 16개 동아리 회원 300여명은 자신의 끼와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선서와 함께 동아리 소개, 댄스, 응원 등 자체 축하 공연도 함께 가졌다.

명작 비디오 파일

무간도

조직에 잠입한 경찰 스파이와 경찰에 잠입한 조직 스파이. 그들의 얽힌 인연을 풀어나가는 영화 무간도. 무간도는 2003년 개봉작으로 맥조휘, 유위강 감독의 작품이다.

홍콩 경찰의 비밀 요원 진영인 역에는 양조위가, 삼합회의 숨은 조직원 유건명 역에는 유덕화가 열연을 펼쳤다. 경찰학교에서 훈련을 받다가 발탁된 진영인은 범죄 조직 삼합회에 잠입하여 십 년째 조직원을 위장한 스파이로 살아가고 있다.

삼합회의 숨은 조직원 유건명은 열 여덟 살 때부터 경찰에 잠입해 현재 경찰 내에서 가장 뛰어난 강력반 요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무간도(無間道)의 무간은 불교에서 말하는 18층 지옥 중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고통 이외에 다른 것을 느낄 수 없는 곳이다.

무간도 라는 이 영화의 제목은 서로 위치가 바뀐 두 사람의 삶 자체가 영원한 고통임을 시사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1334-9490, 334-9491 야간 : 0311706-3060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구불구불 차밭에서 삶의 때를 벗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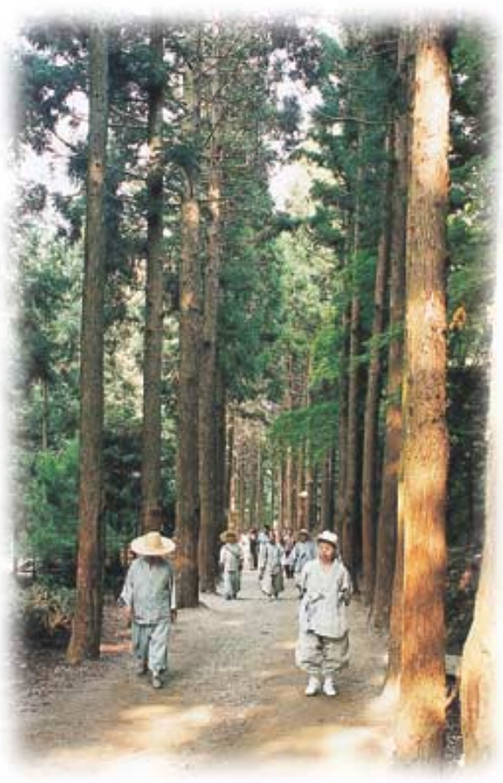
초록색과 부드러운 곡선 끝없이 이어진 차밭
푸른 청동빛 삼나무 숲은 방문객을 숙연케 하고
녹색 양탄자 위에서 차한잔에 여유를 찾는다

보성 차밭기행

◇봇재에서 바라본 보성차밭. 멀리 득량만이 보인다.

‘쓴 차 마시는 엄숙한 때는 속인의 어리석음 깨우치기에 알맞고
좋은 때 좋은 장소는 참선하기에 적합하구나.’ (초의 선사의 ‘동다송’ 중에서)

녹음이 우거진 6월은 초의선사의 ‘선다일미(禪茶一味)’를 음미하며 차밭기행을 떠나기 제격이다. 그중에서 차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바로 전남 보성. 싱그런 녹색 융단을 깔아 놓은 차밭을 옆에 끼고 쭉 뻗은 삼나무사이로 수녀와 비구니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한 이동통신 회사 광고의 무대가 된 곳이다. 국내 차밭가운데 가장 넓다는 대한다업의 입구에서 촬영했다. 차는 항상 바쁘기만한 도시인들에겐 ‘느림’과 ‘여유’를 가르쳐준다. 해수에 녹차를 우려낸 해수녹차탕, 그리고 녹차음식으로 이어지는 보성 관광코스를 즐겨볼 만 하다.



◇곧게 뻗은 삼나무 숲길인 대한다업의 진입로.

보성에선 역시 능선을 휘감고 도는 차밭을 보아야 제격이다. 차밭은 대개 바다에 면한 해발 2백m 이상의 고지에 조성된다. 안개가 잘 낄 수 밖에 없는 지형이다. 국내 최대의 차 산지인 전남 보성 역시 그렇다. 초록색의 부드러운 곡선이 끝없이 펼쳐진 차밭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여기에 안개까지 더하면 완전히 꿈 속 세상이다. 그 꿈의 세상으로 들어가 얼굴을 스치는 ‘신선한’ 공기와 함께 차를 마시는 여유를 즐겨보자.



◇우전차를 시음할 수 있는 대한다업내 ‘보성다원’.

보성읍과 회천면, 웅치면 일원에 조성된 차밭 중 대표적인 곳은 대한다업(061-852-2593). 보성읍에서 율포쪽으로 가다보면 봇재 못 미친 곳이다. 30여만평 규모의 차밭이 흡사 그림같은 경관을 보여준다. 잘 빗어넘긴 머릿결 같다.

바다와 가까워 습도와 온도가 차재배 최적지인 대한다업에서는 350m 오선봉에서 채취한 어린 차엽을 찌고 덖어서 만든 ‘봉로’라는 차를 생산하고 있다. 그저 차밭만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대한다업 제 1농원은 우선 그 진입로가 방문객을 황홀케 한다. 푸르른 청동빛이 완연한 삼나무가 차 한대 지나갈 정도의 흙길만을 남겨 놓은채 터널을 이루며 3백m 가량 이어진다. 한낮에도 태양이 안보일 정도로 울창한 삼나무 숲의 고요함은 방문객을 숙연하게 한다.

차 밭을 내려오다 만나는 ‘보성다원’에는 탁자마다 다기와 차가 차려져 있어 곡우전에 딴 우전차를 맛 볼 수 있다(한잔에 1천원). 또 맞은편 하얀색 2층 건물인 다원 쉼터에서는 ‘녹차 쉐이크’를 비롯해 ‘청녹차’, ‘녹차 김밥’ 등 녹차로 만든 음료와 스낵을 판다.

대한다업에서 나와 우회전해 율포쪽으로 국도를 따라 가다보면 처음 보이는 다원이 동양다원(061-852-2255)이다. 중간쯤에 있는 대한다업을 지나 봇재다원(061- 853-1117) 등 대형 차밭들이 산등성이를 따라 이어진다. 활성산의 봇재를 넘으면 다향각이 있다. 차밭 경치가 제일 좋은 곳이다. 아득히 보이는 득량만과 녹색의 양탄자를 말아 가로로 겹겹으로 놓은 차밭이 장관을 이룬다.

보성=김주일기자, 사진 고영배기자

율포해수녹차탕



보성군이 직접 운영하는 관광상품이다. 다향각에서 2㎞ 쯤 떨어져 있다. 지하 120m에서 해수를 끌어올려 녹차성분을 가미한 ‘건강목욕’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해수는 위장병과 부인병, 피부염 예방에 좋고 노폐물분비를 촉진, 성인병과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 율표해수욕장에 지어놓아 2, 3층 욕실에서 바다를 바로 볼 수 있다. 김재민 해수녹차탕 팀장은 “녹차탕 운영을 위해서는 매일 15㎏~20㎏ 정도의 녹차 찌꺼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중무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른은 5천원, 어린이는 3천원, 단체 20인이상은 10% 할인한다. (061)853-4566

먹거리



율포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은 바지락, 새조개, 키조개, 전어, 꼬막 등이 잊지 못할 맛의 추억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다른 곳보다 월등히 덩치가 큰 키조개나 새조개를 회 또는 데쳐 요리한다. 특히 40년된 원조집 ‘행낭횟집(061-852-8072)’은 전어를 냉동했다가 포를 떠낸다. 또 논우렁을 된장, 고춧가루, 마늘, 풋고추와 함께 끓여낸 향토음식 ‘우렁된장’은 우렁식당(061-857-7613)의 별미다. 이외에도 녹차를 음식인 ‘녹차 냉면’, ‘녹차 수제비’, ‘녹차 비빔밥’ 등이 있다. 보성 사람들은 소주나 생수에도 차를 넣어 다주 또는 냉녹차를 만들어 마실 정도로 차 이용이 생활화돼 있다

찾아 가는 길 ▷**고속버스**(서울 기준):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보성행 버스 ▷**열차** :서울역~보성역 08:25 및 17:25(주말) 무궁화호. 광주 송정리역까지는 다수. 송정리에서 버스 이용. ▷**자가용**: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외곽순환도로→15번국도 화순방면→29번 보성방면→18번국도 보성 →2번국도와 교차로에서 직진, 6.5㎞

